[UCI]I804:11028-200000282890

박사학위논문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연구

-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scriptions of Chinese History in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학전공

종 만 정

2020년 2월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연구

-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scriptions of Chinese History in Kore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지도교수 최 희 수

본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학전공

종 만 정

2020년 2월

종 만 정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 (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20년 2월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 1
1.2. 연구 내용과 방법 ······ 5
2.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과 역사 교육의 변천 ······ 9
2.1.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 9
2.2. 한국 역사교육의 변천 ······ 20
3. 교육과정 차수별 역사 교과서의 중국 전근대사 서술 ······ 31
3.1. 원·청 대의 중국 통일과 통치 ······ 31
3.1.1.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 32
3.1.2.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 51
3.2. 왕안석 개혁과 장거정 개혁 ······ 66
3.2.1.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분석 ······ 67
3.2.2.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분석 ······ 75
3.3. 성리학과 양명학 ······ 84
3.3.1. 성리학에 관한 서술 분석 ······ 84
3.3.2. 양명학에 관한 서술 분석 ······ 95
4. 교육과정 차수별 역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 ······ 103
4.1. 아편 전쟁과 의화단 운동 ······ 103
4.1.1.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분석 ······ 104
4.1.2.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분석 ······ 117
4.2. 신해혁명과 5·4 운동 ······ 129
4.2.1.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분석 ······ 129
4.2.2. 5·4 운동에 관한 서술 분석 ······ 143
4.3.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155

4.3.1.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분석 ···································· 156
4.3.2.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분석 ···· 168
5. 결론 ·· 185
참고문헌 ·· 188
中文摘要 ·· 193

표 차 례

<표 1> 연구 대상 ········· 6
<표 2>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량 ········· 33
<표 3>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 36
<표 4>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에 관한 서술 ········· 41
<표 5> 원의 쇠퇴에 관한 서술 ········· 47
<표 6>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량 ········· 52
<표 7> 청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 ········· 54
<표 8> 청의 중국 지배에 관한 서술 ········· 60
<표 9>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분량 ········· 67
<표 10> 왕안석 개혁의 배경에 관한 서술 ········· 69
<표 11> 왕안석 개혁의 평가에 관한 서술 ········· 72
<표 12>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분량 ········· 76
<표 13> 장거정의 배경에 관한 서술 ········· 77
<표 14> 장거정 개혁의 내용과 평가에 관한 서술 ········· 80
<표 15> 성리학에 관한 서술 분량 ········· 85
<표 16> 성리학 형성의 배경에 관한 서술 ········· 87
<표 17> 성리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서술 ········· 93
<표 18> 양명학에 관한 서술 분량 ········· 96
<표 19> 양명학의 등장 배경에 관한 서술 ········· 98
<표 20> 아편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 ········· 106
<표 21>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 108
<표 22>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분량 ········· 119
<표 23>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 121

<표 24>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분량 ··· 132
<표 25>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 134
<표 26> 5·4 운동에 관한 서술 분량 ··· 147
<표 27> 5・4 운동에 관한 서술 ··· 148
<표 28>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 ··· 158
<표 29>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 160
<표 30>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분량 ··· 172
<표 31>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 174

국 문 요 약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연구

-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해방 이후 극심했던 사회 혼란의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36년 동안 이어진 식민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설계를 서둘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시도된 교육정책은 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휴전 이후 즉시 재개하여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시되어 실시되고 있다.

시기마다 바뀌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집필되는 역사 교과서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의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주류 의식을 반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각 시기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를 적용하여 발행된 교과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역사인식과 흐름, 그리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6·25 전쟁 이후 발행되기 시작한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와 2000년대 이후 신설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중국사에 관한 서술 변화와 흐름을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중국사 주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였는데, 전근대사 주제는 원·청의 중국 통일과정과 통치, 송 대의 왕안석 개혁과 명 대의 장거정 개혁의 시도와 결과, 그리고 성리학과 양명학을 그 대상으로 했다. 근현대사 주제는 아편 전쟁과 의화단 사건, 신해혁명과 5·4 운동, 중·일 전쟁, 국·공 내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다.

중국사에 대한 서술 분석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총론과 각론, 교과서의 서술 내용,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의 변화,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적용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6·25 전쟁 이후 발행된 제1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을 전후한 제6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역사 교과서는 그 이후의 교과서와 달리 심한 시각 차이와 서술 변화를 보여준다.

분단이 굳어지던 이승만 정부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도 했던 박정희 정부시기에는 냉전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고시된 1차부터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서술이 매우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으로 중국과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후 발행된 4차 과정 시기의 교과서부터는 미묘한 시각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중 양국 간의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에 간행된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 그 이후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서술이 긍정적, 객관적으로 바뀌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와 호의적 관계 유지를 위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중국사 서술, 세계사 교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역사 인식

1. 서론

1.1.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21세기가 되면서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빈번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역사와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르치고 있다.

역사 교육에서 교과서는 그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국민 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언제나 그 국가의 정책방향과 의지, 그리고 주류 사회층의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방향, 시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요구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수립되는데, 국내외 정치 상황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기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를 적용하여 발행된 교과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역사인식과 흐름, 그리고 변화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오랜 세월을 살아 온 한국과 중국은 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며 역사를 이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한·중 양국의 안정적인 정치관

계는 양국의 경제와 문화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서로의 경험과 입장,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해 역사 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대립은 한국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1948년 한국의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사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한국 국내외 정치 상황의 변화와 대중국 관계에 따라 서술의 내용이나 표현,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뚜렷한 예는 국가명인 '중국',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용어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시대 한국 사회가 가진 중국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역사 교과서 가운데 중국사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중국 역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사에 관한 분석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사건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거나, 시대 또는 교육과정별 중국사 서술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밖에도 중국사 관련 역사용어나 교과서에 들어간 삽화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연구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실린 1·2차 아편전쟁 부분을 주제로 연구한 신향란은 광동무역체제, 아편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아편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임칙서의 아편 단속, 제2차 아편전쟁 발발 원인 등의 서술을 비교 분석하면서 서술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였다.[1] 5·4 운동을 주제로 연구한 심은정은 제1차~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13종에 서술된 5·4 운동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육과정에 따라 신문화운동과 5·4 운동의 관련성, 5·4 운동의 주도 세력과 성격 등에 관한 서술의 변화를 비교했고, 향후 <세계사> 교과서의 5·4 운동 서술에 대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2] 이 밖에도 하나의 사건이나 특정 주제를 비교·분석한 연구 가운데 윤소정과 임우정, 이병철의 연구는 <세계사> 교과서의 몽골, 거란, 여진 등 북방민족에 대한 서술을 분석하며, 그동안의 교과서들이 이들 북방민족을 야만족, 침략세력, 약탈자 등으로 보는 중국 중심적인 편향된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다원적인 역사이해의 관점을 갖고 균형적 서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3]

손준식은 교수요목기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 나온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 교수요목기의 『이웃나라의 생활(역사)』,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세계사』, 제2차 교육과정기의 『세계사』등 각 교육과정마다 출판된 1종의 교과서를 선정해 중국 근현대사 관련 체제와 서술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손준식의 논문은 그 이전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관련 연구가 주로 현행 교과서의 체제와 서술을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는 있지만, 해방 후 모든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변천을 다룬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별 <세계사> 교과서의 체제 변화와 근현대 중국의 주요 사건에 대한 서술의 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

1) 신향란, 『세계사·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제1·2차 아편전쟁에 대한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 심은정,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의 5.4운동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윤소정, 『제7차 고등학교『세계사』교과서 '북방민족' 서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우정,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몽골제국사에 투영된 중화적 시각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병철, 『'신청사이론'을 통한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파악하였다.[4)]

손준식의 논문보다 1년 뒤에 발표된 이병인의 논문도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과 구조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이병인의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 대상을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세계사> 교과서로 하고, 이들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을 분석하여 새로 나올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안했다.[5)]

이밖에도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발행된 3종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에 대해 연구한 이민경의 연구,[6)] 청대나 명・청대 등의 시기에 대한 서술을 분석한 김선희[7)]와 윤상원[8)]의 연구 등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9)]

이밖에도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사 서술부분에 들어간 삽화를 분석한 연구도 있고,[10)] 교과서에서 사용된 중국사 관련 역사용어에 대해 분석한

4) 손준식, 「해방 후 세계사 교과서 중국근현대사 관련 서술 변천」, 『역사문화연구』 60, 2016.
5) 이병인,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중국근현대사 서술 구조- 2009 교육과정과 교과서, 2015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142, 2017.
6) 李敏卿, 『제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비교와 분석 : 中國 近代史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 김선희, 『세계사 교과서의 청대사에 관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윤상원, 『6・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 명청 시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9) 이러한 연구들로는 송요후,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역사와 교육』 16, 2013; 김지훈, 「『고등학교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史林』 46, 2013; 梁豪煥, 「韓國 『세계사』敎科書의 中國史敍述」, 『歷史教育』 54, 1993; 이승현, 『제 6.7차 교육과정『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비교 분석 : 중국 근현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선희, 『教育課程 變遷에 따른 高等學校 世界史 教科書 分析 : 中國 現代史 單元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강수옥,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비친 중국 역사」, 『白山學報』 111, 2018; 김창규,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의 근대 이전 중국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중등교육연구』 53(1), 2005; 정하현, 「세계사 교과서에 있어서 중국사의 위상과 서술방향」, 『역사와 역사교육』 9, 2005; 김창규, 「현행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 체제와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43(4), 2004.

연구도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출판된 〈세계사〉 교과서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가지 사건이나 특정 시기 또는 시대가 아닌 중국사 전체 서술 가운데 중요한 주제에 대한 내용과 비중, 그리고 서술의 방향과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기준이 된 교육과정과 각 시기별 집필기준에 영향을 준 한국의 국내외 상황과의 연관성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중국사에 대한 이해, 한국인들에게 교육된 중국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들 사이의 역사에 대한 간극을 좁혀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 12월 31일 반포된 교육법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사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로 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교과서는 각 시기의 교육과정마다 출판된 교과서의 종류와 수가 많아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세계사〉 교과서

10) 배성호, 『제7차 교육과정 3종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자료의 비교분석 : 중국 고·중세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현정,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자료의 분석 : 중국 근대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우민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자료의 분석 연구 : 중국사 부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최재영,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고중세사 서술- 역사 용어를 중심으로-」, 『歷史敎育』 142, 2017;

각 1종을 선정하였고,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한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출판된 모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와 분석의 비중을 높였다

제1차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의 한계 때문이고, 제4차 교육과정시기 교과서 가운데 보진재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보진재 출판사의 교과서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처음으로 출판된 교과서이지만 이후 제6차까지만 출판된 교과서라서 제4차 교육과정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5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이후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도 계속 출판되는 교과서이므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여 그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연구 대상 교과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과목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비고
세계사	금성출판사	김형종 외 5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미래엔	최준채 외 5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비상교육	이병인 외 7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천재교육	김덕수 외 7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최현상 외 5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미래엔	김태웅 외 6인	2018. 3. 1	2017. 9. 8. 교육부 검정
	비상교육	이병인 외 6인	2019. 3. 1 (초판 2쇄)	2017. 9. 8. 교육부 검정
	천재교육	안병우 외 8인	2019. 3. 1 (초판 2쇄)	2017. 9. 8. 교육부 검정
2011 개정 교육과정(2011~2015)				
세계사	교학사	최상훈 외 6인	2019. 3. 1 (초판 6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금성출판사	김형종 외 5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비상교육	조항욱 외 5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천재교육	김덕수 외 8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동아시아사	교학사	손승철 외 6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비상교육	황진상 외 5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천재교육	안병우 외 8인	2018. 3. 1 (초판 5쇄)	2013. 8. 30. 교육부 검정

2007(2009) 개정 교육과정(2007~2011)				
세계사	교학사	최상훈 외 7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금성출판사	김형종 외 5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더텍스트	강택구 외 5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천재교육	김덕수 외 7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동아시아사	교학사	손승철 외 7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천재교육	안병우 외 8인	2012. 3. 1.	2011. 8. 19.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세계사	교학사	김은숙 외 4인	2003. 3. 1.	2002. 7. 30.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세계사	금성출판사	오금성, 유경준	1995. 10. 20	1995년 검정 전시본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세계사	지학사	이민호, 신승하	1989. 8.	
제4차 교육과정(1982~1987)				
세계사	보진재	신채식, 양병우	1985. 3. 1.	
제3차 교육과정(1974~1981)				
(인문계 고등학교) 세계사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조의설	1978. 1. 10.	1968. 1. 11. 문교부 검정
제2차 교육과정(1963~1974)				
세계사	을유문화사	김상기, 민석홍	1971. 1. 10.	1968. 1. 11. 문교부 검정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세계사	일조각	조좌호	1956. 3. 25.	1956. 3. 문교부 검정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국내의 정치·사회 상황과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정해지거나 개정된 각 시기별 교육과정, 그리고 역사교육의 변천을 살펴보고 각 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시기 주류 사회의 인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중국 전근대사, 4장은 중국 근현대사로 구성하고, 각 시기별 선정 주제에 대한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의 서술 내용, 분량, 시각, 용어 표현 등을 교육과정과 대조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시기의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수집하고, 분석 대상이 될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 선정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중국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별했다.

둘째,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중국사 가운데 선정된 사건에 관한 서술 분량과 내용을 표로 정리한 후, 같은 주제에 대한 시기별·교과서별 분량과 서술의 차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의 서술 분량과 내용은 모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집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표현상의 문제점, 용어나 시각의 변화 등을 분석해 볼 것이다.

셋째, 교과서 집필에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은 정권 교체 등의 한국 정치상황의 변화, 사회의 여론, 한·중 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과 교육목표가 정해진다. 교육과정이 정해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한국의 여러 상황은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정규 교육을 통해 학습한 중국의 역사와 중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과 한국인들이 가진 중국관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2.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과 역사 교육의 변천

해방 이후 극심했던 사회 혼란의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교육에 대한 설계를 서둘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시도된 교육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휴전 이후 즉시 재개하여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고, 그 후 부침을 거듭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시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국내외의 크고 작은 변화와 사건들을 겪으며 발전해왔고, 교육정책 또한 그 변화와 궤를 같이해 왔다.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역사교육의 변천을 되짚어본다.

2.1.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의 역사교육은 조선총독부의 통제와 감시 아래 일제가 원하는 식민(植民)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인 1938년 3월 개정・공포한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더욱 강력한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여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했다.[12]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 한국어 사용은 일체 금지되었고, 역사교육은 한국사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본사만을 교육하여 한국인들의 민족의식 형성을 억제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각각 미국과 소련군대가 관할 점

12) 『동아일보』, 1938년 3월 5일, 「朝鮮教育令改正 官報로 正式發表」.

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단된 38선 남쪽의 한국에서는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시급히 없애고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을 서둘렀다. 미군정은 한국 교육의 기본 방침을 반공체제의 구축과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에 두고 1945년 9월 16일 한국인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조선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재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13]

다음날인 9월 17일 미군정청 학무국은 아놀드 군정장관의 포고에 따라 일반 명령 제4호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발표했다.[14] 명령에서는 먼저 모든 공립 초등학교의 개교일을 1945년 9월 24일로 하고, 6세에서 12세 사이의 모든 아동의 등록하게 하였다. 이는 의무 교육 구상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무당국의 인가를 얻으면 즉시 개교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인만 다닐 수 있었던 학교를 모두 조선인교육기관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과목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교수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의 수업을 일체 금지시키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학무국 관계자들의 한국 실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 교육체제 기반의 미비 등으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발표는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길로 첫발을 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곧이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10월 1일에 개학하도록 했고, 10월 21일에는 학무 통첩 352호를 통해 초·중학교의 과목당 수업시간을 결정했다.[15] 그러나 미군정은 교재로 쓰일 교과서에 대한 별다른 준비나 계획

13) 김상훈, 『1945~1950년 역사 교수요목과 교과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14쪽.
14)한국사DB(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59B37CCAD5EB58CC6B1348BCA32899A5?levelId=dh_001_1945_09_18_0020), 접속일자: 2019.11.24.

없어 단지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정도였다. 결국 그때까지 사용하던 일본어 교재를 번역하고, 일본사 위주로 되어 있던 역사 내용을 한국사 중심으로 고치는 등 최소한의 수정에 그쳤으며, 일제강점 말기의 교육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6년 초 미군정은 학무국을 문교부로 바꾸고 편수과를 설치한 후,[16]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새 교과서 편찬사업을 시작하는 등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17] 교수요목은 일제 강점기부터 쓰인 용어로 '교육과정'과 같은 의미이며, 교수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과 편제에 따라 교수할 목적으로 작성한 일련의 수업 요목을 말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앞두고 5월 31일 구성된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교육목표, 교육의 행정체계 등을 규정한 교육법(법률 제86호)이 오랜 논의 끝에 1949년 12월 31일 반포되었다.[18]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초 문교부는 '교수요목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951년 3월 문교부령 13호로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제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의 발발로 모든 진행은 중단되었고, 구체적인 논의는 전쟁 이후로 연기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교육 과정에

1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lsInfoP.do?lsiSeq=63280&viewCls=lsRvsDocInfoR#), 접속일자: 2019.11.24.
16) 『동아일보』, 1946년 3월 31일, 「十一部의 五段階로」.
17) 교수요목이 지정되는 교수요목기를 교수요목에 의거한 교과서 사용을 준비한 1946년부터 그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1955년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1946년 9월부터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는 1954년 4월까지를 교수요목기로 보고 서술하였다.
18) 오성철, 「한국 교육법 제정의 특질-교육이념과 학교행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6, 2014, 139쪽.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 1954년 4월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과 1955년 8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각각 공포(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하면서 정식으로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1954년~1963년)은 전쟁을 겪은 후 파괴된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생활을 발전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새롭게 제정하고 공포했던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고 처음으로 특별활동시간을 배정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목표한 기본적인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5월 16일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군사정변 얼마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1362호)을 제정하여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는 강력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는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을 공포했다.

제2차 교육과정(1963년~1974년)은 1차 교과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5.16 군사정변 이후 종래 교육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체제를 통일하였다. 내용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총론’에는 개정 취지, 일반목표, 개정의 요점, 각급 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운영 계획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담았는데, 일반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한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19]

'각론'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으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학년 목표 등을 담았다. 그리고 학교간의 연계성과 아울러 교과간의 통합성을 강조했다. 초등과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반공·도덕생활 및 특별활동의 3대 영역, 고등학교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영역으로 전체 구조를 갖추었다.

제3차 교육과정(1974년~1981년)은 1973년 8월 31일 중학교 교육 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4년 12월 31일 고등학교 교육 과정(문교부령 제350호이 발표되면서 전면 실시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교육이념은 국가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과 사회, 국가를 일체화하는 발전교육의 관점을 기반으로 했다. 이에 국민적 자질의 함양과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및 교육의 쇄신이 표방되었다. 또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전면 수용했으며, 정치이념 교육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민교육헌장 반포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유신헌법 공포 이후 한국 사회는 1970년대 내내 반유신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등 여론은 들끓었고, 1979년의 10.26사건이 발생하여 유신체제가 와해되어 사회가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군사반란과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5.18 민주화운동,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정국의 혼란은 거듭되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1년 3월 3일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고 과열된 과외학습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을 만들어 시행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

19) 김흥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218쪽.

1980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20] 과외전면 금지조치는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과외단속 전담반이 운영되었고, 과외단속반에 적발된 학생, 과외교사, 학부모, 해당 학교 등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21]

제4차 교육과정(1982년~1987년)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인 1881년 12월에 문교부 고시 제442호가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발을 문교부에서 하지 않고, 1980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특정 교육과정 이념이나 사조가 아닌 전인교육의 강화, 진로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심화, 교과 내용의 양적 수준의 적정화, 국민정신교육 강화 등을 종합적・복합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지식의 학문성과 유연성을 강조하였다.[22]

이러한 제4차 교육과정은 국민정신교육으로 표현된 이념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후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점차 분명해지는 전인교육 지향, 분권화 지향, 학교 재량권 및 학생 선택권의 강화라는 현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년)은 1987년 3월 중학교 교육과정, 1988년 3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제5차 교육개정은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한 제6공화국 정부가 형성되면서 보급되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20) 『경향신문』, 1980년 7월 31일, 「“올바른 方向 설정....「不信」 씻는 契機” 國保委 「7.30 決斷」 이후의 健全풍토 造成위한 座談」.
21) 『경향신문』, 1980년 7월 30일, 「과열課外 추방, 社會淨化차원서 塞源」.
22) 『경향신문』, 1982년 1월 22일, 「全斗煥대통령 國政연설(全文), 온 國民 「經濟人」되어 第 2跳躍 다지자」.

개정만 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은 이전에 비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된 상황에서 개발되었다. 제5공화국 말기인 1986년 2월 문교부는 제5차 교육과정 시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여, 6월 30일에 총론 시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에 각론 시안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제5차 교육과정의 시안은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의도대로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시행하고자 했다. 중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교장 운영재량권을 강화하여 융통성을 높였다.[23] 이 시안은 이후 문교부의 심의를 거쳐 1987년 6월 확정 고시되었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이외에 자문기관으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개혁심의회, 대학, 교원양성대학, 각급 학교, 학부모 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관련단체의 요구를 폭 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9년 교원노조 운동, 참교육 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시・도 교육청,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참여 요구가 강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1990년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1997년)은 시대적, 학문적, 개인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부는 1990년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2년 6월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1호)과 10월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9호)이 고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부분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1995년 11월 수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시행시점은 중학교 1995

23) 정선영, 김한종, 양호환, 이영효,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19, 293쪽.

년, 고등학교 1996년부터 실행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효율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에 목적을 두었다. 이 중에 분권화와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분권화는 지방 교육청(시ㆍ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고, 다양화는 분권화를 통해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이 개설되고, 필수과목이 축소되었으며, 선택과목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시켰다.[24) 또한 국민윤리과목을 윤리로 변경하여 이념교육을 약화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도입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1997년~2007년)은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을 이으면서도 자율과 창의를 기초로 하여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을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큰 변화를 주고자했다. 1997년 연말에 고시되었고(교육부고시 제1997-15호), 중학교는 2001년,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적용ㆍ시행되었다.[25)]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들이 각종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구성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기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2년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에는 선택교과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핵심내용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 흥미,

---

24)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210쪽.
25) 이상숙,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역사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6쪽.

적성, 진로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여 교육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시행되기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며 커다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경제논리로서만 보고 인간을 기르기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고,[26] 또한 학생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획일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컸다. 실제로 수준별 교육과정에 경우 학습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하급반에 배치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좌절과 정서적 위화감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27]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는 5년 내지 7년 정도의 간격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존의 일시·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28]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에 따라 2004년에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을, 2005년에는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교과 교육과정을 개정을, 2006년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친 수시개정이 이루어졌다.

---

26)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6일, 「경제논리 교육현장 대입 아이들 희생 너무나 크다」; 『동아일보』, 1999년 3월 27일, 「아이들을 입시에서 풀어주자」; 『한겨레신문』, 1999년 7월 5일, 「시장논리에 학교가 멍든다」.
27) 정선영 외, 앞의 책, 299쪽.
28) 『교과서 편수 자료(Ⅰ) -편수 일반 편-』, 교육부, 2017, 16쪽.

2007 개정 교육과정(2007년~2011년)은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후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개정・고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에 대한 전면적 개정 형식을 취하였지만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고, 각론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개정을 최소화하였다.[29)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11, 12학년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변화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원 계획은 2009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2009년 12월 23일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2015년)은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는데, '미래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학교 교육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의 양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 및 강화한다.

③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조정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29) 지모선,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논의 연구: 2007년 과목 신설부터 2015년 개정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43쪽.

체제를 공고히 구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기초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실개혁을 유도한다.

⑤ 학습부담 및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대비하여 충실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30]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학교가 교육과정 결정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지침을 정해 놓았다. 이를 통해 각 학교는 학년별・교과별 교육과정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31] 그러나 이후 좀더 원할한 적용을 위해 2011년 8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 2012년 12월, 2013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요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32]

2015 개정 교육과정(2015년~現)은 가장 최근의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중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실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의 학습에서 학생의 역량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 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응시교육의 학교 교육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학

3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15, 17쪽.
31) 소경희,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의 변천과 최근의 개혁 동향」,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 28(1), 2019, 94쪽.
3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15, 18쪽.

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예전의 지식 중심 학습에서 학생의 역량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중심을 두고자 하였다. 그중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핵심 능력을 강화하고 양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 핵심 능력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여섯 가지를 말한다.[33]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보고,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회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검정제로 발행하기로 했다.

2.2. 한국 역사교육의 변천

중・일 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강력한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1938년 제3차 교육령을 실시하여 <조선사> 과목을 폐지했고, 1943년 제4차 교육령에서는 선택과목이었던 <조선어>마저도 폐지했다. 폐전 직전인 1945년 5월에는 다시 전시교육령을 실시하여 교육보다는 결전태세(決戰態勢)를 확립하게 하는 등 학교 교육의 역할은 사라져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미군정은 학교교육을 시작했지만, 모든 상황이 열악했고, 교과서마저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국어와 국사 교과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1945 9월 24일 개학에 맞춰 사용할 국사교과서의 집필을 일주일 전인 9월 17일

3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2017, 23쪽.

진단학회에 위촉하였고, 진단학회는 단 4일 만에 교과서를 집필하여 군정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진단학회는 국사 교과서의 원고를 다시 집필하여 1946년 5월에 『국사교본』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34)]

이어서 미군정은 1946년 12월과 1947년에 초등학교 교수요목과 중학교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요목 중에서 미국식 사회생활 교과목을 도입하고 역사, 지리와 공민과정을 사회생활 교과목에 도입하였다.

역사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국사과목부터 시작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에는 <이웃나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동양사를 2학년에는 <먼나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사를, 3학년에는 <우리나라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국사를 편제하였다. 중학교 4학년에서는 <인류 문화의 발달>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계사를 배우고, 5학년 때는 <우리나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국사를 배우게 하였다.[35)]

역사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제에서 검인정 병행으로 전환되었다.[36)]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은 주로 왕조 중심 통사 형식이었고, 고대사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계사는 주로 주제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으로 이 교육과정시기의 국사를 비롯한 역사과목은 일제에 의한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역사는 문교부령 제45호(1955년 8월 1일)로 제정, 공포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국민학교와 같이 공민, 지리와 함께 사회생활과 안에 하나의 영역으로 마련되었다. 중학교 역사는 사회생활과에 포함되나 그 전과의 차이점은 중학교 1학년은 <우리나라 역사>, 2, 3학년은 동양사와 서양사를 통합한 <세계의 역사>를

34) 김봉석, 「『초등 국사교본』의 특징과 역사 인식」, 『사회과교육』 47, 2008, 176쪽.
35) 박진동, 「교수요목기 중등 역사 검정 교과서의 발행 상황과 목록화」, 『역사교육』 151, 2019, 137~138쪽.
36) 신유아, 「한국 역사교육과정의 변천과 근현대사의 비중」, 『전북사학』 55, 2019, 235쪽.

수업했다. 고등학교는 사회생활과 대신 <사회과>라는 이름으로 일반사회,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의 다섯 분과를 두고 그 중 국사를 필수과목, 세계사는 선택과목이었다,[37] 이로 인해 세계사 교육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영향으로 <사회과>를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과 민족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38]

교과서의 발행은 교육과정의 공포에 따라 1955년부터 나왔는데 국민학교 모든 교과와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실과는 국정 교과서로, 나머지는 검인정교과서로 편찬되었다. 그 중 중학교 사회생활과 각 영역(공민·지리·역사)의 교과서는 학년 단위로 저술한 것은 학년단위로 검정하고 영역단위로 저술한 것은 영역단위로 검정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사, 지리, 세계사를 단위로 검정하였다.[39]

제2차 교육과정은 불완전했던 제1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1958년부터 기초연구가 시작되었고, 1963년 2월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그 목표에서부터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실천적 교육 등이 강조되었다.[40]

교과의 개편은 중학교 역사가 포함된 <사회생활과>는 <사회과>로 개명하고 사회과 하위 영역 교과목도 원래의 ‘지리’, ‘역사’, ‘일반 사회’를 ‘사회Ⅰ’, ‘사회Ⅱ’, ‘사회Ⅲ’으로 변경하였다. 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여전히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선택과목이었던 세계사가 국사와 함께 필수과목으로 바뀌었고, 역사 교과목의 단위수는 사회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41] 이 외에 역사 교과목의 내용은 역사

37) 허은철, 「제1차 교육과정의 성립과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과 교육』 22, 2016, 11쪽.
38) 강태현,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 『사회과교육』 54(1) , 2015, 68쪽.
39) 김한종,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991, 70쪽.
40)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3쪽 참고.
41) 제2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는 단위수로 수업 시수를 개정하였다. 1단위는 1학기 중 매주 1시간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수업 시간 배정은 학교에서 자유재량해서 설정한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는 6단위수로, 세계사도 6단위수로 배정한다.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는데, 이를테면 중학교 '사회Ⅱ'는 동일 한 단원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결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구성 방식은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국사와 세계사를 같은 단원에서 서술하였던 구성을 분리하여, 1~6단원은 국사, 7~10단원은 세계사로 분리했다.

1968년에는 한글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제68호)과 민족 주체성과 국민정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헌장의 반포로 국민교육의 지표가 명시되었다. 국민교육훈장에서는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명시하였고, 이에 문교부는 1969년 11월 국민윤리의 실천을 위해 덕성·반공·군사·국방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시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3월 24일 대통령 박정희는 "올바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정립 체득하고 그 위에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42] 그리고 그는 5월 10일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국사과의 독립과 필수화를 건의하는 연구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문교부는 이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3차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국사 교육 강화에 있었다. 그 결과 3차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과목이 사회과에서 분리되어 필수과목이 되었다는 점인데, 국사과의 독립에 따라 역사교육은 국사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라는 이원적 체제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또한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에서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던 교과서 정책이 국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변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국정,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을 유지하였으나[43] 단일 교과서만을 인

---

42) 문교부 중앙교육행정연수원, 『문교월보』 40, 1973, 9쪽.
43) 『경향신문』, 1973년 6월 23일, 「學年別로 1卷-내년 편찬 檢定制폐지 國史 교과서 國定으로」.

정하는 단일 검정 교과서만 출판되어 결국 역사관련 교과서는 한 종류의 교과서만 남게 된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편집은 문교부의 편집과 수정 하에 편집수정관이 주도하여 편찬한 교재는 197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되었다. 국정 교과서의 내용 편집은 중학교의 국사는 정치사, 일반사를 중심으로 통사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고등학교 국사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주제별, 시대별로 구성되었다. 세계사 교육은 세계 문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해를 강조하고 아시아 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동양과 서양사의 특성과 특유의 성격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사회 각계의 논쟁을 일으켜 한국 정부는 1978년에 교과서 편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정, 인정의 교과서를 분류하는 것을 취소하고 '1종, 2종 교과서체'를 확립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전부 1종 교과서에 포함시켰다. 1종 교과서는 '연구개발성도서'로도 불리며 국가와 국가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기획과 감독만 책임지며 실제 교과서 연구개발과 집필은 전문 연구기구에서 담당하였다.[44] 이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의 편찬은 주로 국사 편집위원회에서 책임지며 집필한 원고는 심의, 토론, 수정 후 출판 및 사용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역사 교육은 여전히 국사과와 사회과에 포함시킨 세계사 교육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였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기존 1종에서 2종 교과서로 변경되어 검정 교과서로 환원되었다.[45] 제4차 교육과정부터 국사 교과서는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는데, 상(上)은 한국 역사

44) 조성운,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 선인, 2019, 172쪽; 『동아일보』, 1977년 7월 9일, 「文教部 教科書 二元制度로 全面改編」.
45) 『경향신문』, 1982년 2월 24일, 「教科書도 劃一벗는다」.

의 기원에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하(下)는 조선시대 후기에서 현재까지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국사는 사회사와 문화사를 주요 내용으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단원을 구분하였다. 세계사에서는 아시아사를 유럽사보다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 같은 시대에 경우 아시아사를 먼저 서술하였고,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과 자생적 노력에 대한 서술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사와 중국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를 표방하여 서아시아사와 남아시아사의 내용을 보강되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가 일부 포함되었다.[46]

第5차 교육과정 시기의 역사교과는 세계사를 포함한 사회과와 국사과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였다. 국사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계열성을 강화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주제 중심의 생활사를,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시대사를,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상사 중심의 통사를 다루어 분야에 따라 주제에 접근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념편향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학계의 진보적인 견해를 수용하였고,[47] 조선 후기 민중의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과 사회주의운동, 북한정권의 성립 등을 새로이 담았다. 또한 왕을 주어로 하는 서술의 변경 및 ‘동학운동’을 ‘동학농민운동’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를 개정했다.

세계사의 경우 중학교 사회1에서 중세 이전까지, 사회2에서 르네상스 이후를 배우게 했는데, 이렇게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자국사를 이후에 배우는 역사학습의 순서가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많았다.[48]

고등학교 세계사는 교육과정 편성원칙대로 고대와 중세는 문화권 학

46) 정선영 외, 앞의 책, 292쪽.
47) 『동아일보』, 1994년 3월 20일, 「國史 교과서 개편案 用語 정의 논란 - “進步학자 의견 편향” 비판」.
48) 정선영 외, 앞의 책, 295쪽.

습, 근현대는 주제 중심의 구성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중세까지는 각 문화권 간의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과 발전논리를 설명하고, 근대시기에서는 한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다른 문화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하여 역사의 개념, 역사 학습의 목적, 세계사의 의미와 같은 역사이론과 현대 세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내용이 빈약하고 형식적이라는 점,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분법, 아시아사에서 중국사 중심의 시대구분을 따르도록 한 점 등은 종전의 교육과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육은 제5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계열화를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국사는 분류사를 원칙으로, 문화사와 사회경제사 내용의 균형을 맞춰 서술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고대와 중세에서는 문화권 학습, 근현대사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세계사에 대한 접근방법과 학문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계통성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독립교과로 유지되고 있던 국사과를 폐지하여 사회과에 포함시켰다. 그로인해 사회과 속의 세계사와 국사과의 이원적인 역사교육체제에서 사회과 속의 국사와 세계사로 일원화 되었다.49) 하지만 뚜렷한 이론적 근거나 통합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없이 추진된 사회과 통합은 곧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본질적 성격이 다른 역사와 지리,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고,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사건을 역사와 통합하여 보는 것은 역사인식의 본질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고를 어렵게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제로 인해 역사 교육의 약화를 우려한 역사학이나 역사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였다.50)

49) 강대현,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 『사회과교육』 54(1), 2015, 75쪽.
50)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2일, 「교육개혁안 국사 경시 문제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본의 독도문제 및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전반에 역사의식이 고취된 시기에 고시되었고,[51]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52] 한국 사회는 역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상당부분 유지되었고, 역사는 여전히 사회과에 통합되어 있어 불만은 쌓여갔다.

이러한 사회과 통합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덜어주었으나 교사에게는 전공 불일치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곧바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과 통합으로 역사교육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주변 국가들의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53] 이러한 상황은 2006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응답자의 대다수는 일반사회에 포함된 선택 교과인 국사의 분리(88.7%)와 역사교육의 강화(90.3%)를 원했다.[54]

이런 상황에 근·현대사 강화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원래 취지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목을 신설하고, 세계사와 함께 심화 선택 과정에 포함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작은 국가의 역사 내용을 보충하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의 고대, 중세사 역사 내용을 보강하였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의 역사 서술 초점을 강대국가의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로 맞춘 것이다.[55] 그러나 학생들이 이들 과목을 선택을 하

---

51) 『경향신문』, 1996년 3월 3일, 「日 독도영유권 주장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동아일보』, 1996년 5월 11일, 「하시모토 日 총리 독도영유권 또 주장」.

52) 『한겨레』, 2004년 7월 26일, 「중 동북공정은 '국가사업'」; 『서울신문』, 2006년 9월 14일, 「오류로 점철된 동북공정」.

53)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9일, 「세계화시대 국사교육 필수」;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6일, 「국사교과서 집필 거부」; 『매일경제』, 1996년 7월 29일, 「국사교육 위축 우려 教改委 재고책 마련」; 『동아일보』, 1999년 1월 26일, 「중-고-대학 국사과목 필수로」

54) 『NEWSIS』, 2006년 10월 18일, 「역사교육 강화 필요 90.3%.. '암기식 교육이 가장 문제'」; 이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78.9%로 나타났다.

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구성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세계사와 근·현대사를 아예 배우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모두 검정 교과서로 발행하기 시작한 근·현대사와 세계사 교과서와[56] 달리 여전히 국정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었다.[57]

이에 정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사회 환경에 대처하고, 여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된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정으로 발행되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변화했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시수를 배분함으로써 과목의 시수를 보장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역사' 과목을 배치하고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게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10개 선택과목 중에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등 역사과를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새로 신설된 '동아시아사'는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따라 구분하고 각 시대별 선정된 몇몇 주제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지역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세계사 교육은 세계사 내용의 구성에서 큰 변화를 주었고 교류와 상호작용 중심의 내용 구성 방식을 활용하였다.[58] 즉 지역 세계의 성립과 발전, 세계 제국의 출현 등 방식으로 세계사의 내용을 구성하였

55) 정선영 외, 앞의 책, 302쪽.
56) 신유아, 앞의 논문, 235쪽.
57)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1일, 「다양한 시각 교과서 있어야」;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2일, 「한겨레 인터뷰 이성무 새 국사편찬위원장 "국사교과서 검인정체제로"」.
58) 김덕수,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 현황과 쟁점」, 『역사교육』 141, 2017, 11쪽.

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으로 교체되면서 2009 총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중･고의 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의 과목 편제는 전면 변경되어 시행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개정으로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대폭 수정하고, 역사 교과서의 과목명을 변경하였다. 고등학교는 ‘역사’는‘한국사’로 과목명이 변경되면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던 ‘한국문화사’는 없어지고 ‘세계역사의 이해’는 ‘세계사’로 변경되었다. ‘동아시아사’는 그대로 남았다.[59] 이렇게 바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용되었다.[60]

그러나 2011년 4월 정부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가 다시 필수 과목이 되었다.

세계사는 기존의 서구와 중국 중심주의의 틀을 깨고 지구사적 관점에서 여러 지역세계를 균형 있게 교과서에 담아 세계사를 교육하자는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대단원명에서는 ‘지역세계’, ‘지역문화’, 종교, 문화, 경제면에서의‘확산, 팽창, 교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시간 단위에서 동에서 서로 지역 세계가 형성 발전되는 과정을 서술했다. 또한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 등 그동안 세계사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역사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세계의 역사를 학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학습해야

59) 지모선, 앞의 논문, 44쪽.
60) 신유아, 앞의 논문, 240~241쪽.

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은 선택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2014년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 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2015년 새로운 교육과정이 다시 고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명분으로 전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2013년 발생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였다. 부실교과서, 좌편향 교과서, 우편향 교과서 등 수많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61] 2015년 11월 사회 각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과하고 중학교의 '역사'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즉시 폐지되었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다시 검정제로 전환하였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2020년 3월 1일 발행될 예정이며,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61) 『연합뉴스』, 2014년 1월 8일, 「與, 역사과목 국정교과서 환원 적극 검토」.

3. 교육과정 차수별 역사 교과서의 중국 전근대사 서술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까지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교과서에 서술된 중국사에 관한 내용 중 중국 전근대사에 대한 서술은 근・현대사의 서술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장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중국 전근대사 서술 가운데 정치, 사회 변혁, 사상의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치에서는 유목 민족인 몽골족과 만주족이 중국을 통일한 후 세운 원나라와 청나라, 사회변혁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이었던 진대의 상앙(商鞅) 개혁, 송대의 왕안석(王安石)개혁, 명대의 장거정(張居正)개혁 중 한국 교과서에 실려 있는 왕안석과 장거정의 개혁, 그리고 사상에서는 유교와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인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상의 주제에 대한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서술 내용이나 방향이 교육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원・청대의 중국 통일과 통치

중국 역사에서 중원 왕조와 유목 민족, 그리고 유목 민족과 유목 민족 간의 접촉과 충돌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춘추 전국 시대, 몽골 초원의 동부에서 활동하던 유목 민족인 동호족(東胡族)은 진・한(秦・漢) 시대 강성해진 흉노에 의해 멸망되었다. 흉노는 막북(漠北, 現 외몽골)에 고대 국가를 건립하였다. 이후 흉노가 멸망하자 동호족의 일부인 선비족

은 4세기 말엽 북위(北魏)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당나라가 멸망한 후 5대 10국이 난립하여 혼란에 휩싸여 있을 시기, 북방에서는 거란과 여진 및 몽고가 잇달아 정권을 수립하면서 정치적·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13세기에 접어들어 칭기즈 칸은 몽골족을 통일하였고, 쿠빌라이 칸은 중국 전역을 차지한 후 국호를 ‘원(元)’이라 정했다. 그러나 1368년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16세기 후반 흥성한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한 후 1616년 ‘후금(後金)’을 세웠다. 이후 후금은 주변 각국을 침공하며 영토를 넓혔고, 누르하치의 후계자인 홍 타이지는 1636년 국호를 ‘청(淸)’이라 개칭한 후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함락했다. 이렇게 세워진 원나라와 청나라는 유목민족이 한족의 영역인 중원에 들어와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건국한 국가라는 의미가 있다.

1차 교육과정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원나라와 청나라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정치 상황, 국제 정세, 한중 관계, 한국 역사 교육계의 인식 등의 요인으로 각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원과 청에 관한 서술 내용, 분량, 시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원나라와 청나라 서술에 대한 분량과 내용 두 가지 측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의 변화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1.1.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원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유목민족인 몽골족이 중국 중원지역에 건립한 통일 왕조이다. 1206년 칭기즈 칸은 막북을 통일하고 몽골제국을 건립한 후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서요, 서하, 금 등을 연이어 정복해 나갔

다. 칭기즈 칸이 죽은 후에도 몽골제국의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다. 이후 1260년 제5대 대칸에 오른 칭기즈 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1268년부터 대대적인 남송 정벌을 시작하여 1271년 북경을 점령한 후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元)'으로 개칭하였다.

1279년 원은 남송을 멸망시켰고, 중원의 장기간의 전란은 마무리되어 원의 중국 통치가 시작됐다.[62] 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였고, 고려와 일본, 동남아지역까지 출병하였다. 원의 침략을 받은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고, 원 정부는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원의 중국 통일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1)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각 시기별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원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 분량을 확인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13, 미래엔: 12, 비상: 12, 천재: 22	금성: 11, 미래엔: 8, 비상: 11, 천재: 4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15, 금성: 11, 비상: 14, 천재:18	교학사: 12, 비상: 20, 천재: 16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21, 금성: 13, 더텍스트: 16, 천재: 14	교학사: 8, 천재: 15
제7차 (1997~2007)	교학사: 15	--

62) 이춘식, 『中國史 序說』, 교보문고, 1991, 312~313쪽.

제6차 (1992~1997)	금성: 17	--
제5차 (1987~1992)	지학사: 16	--
제4차 (1982~1987)	보진재: 14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20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27	--
제1차 (1954~1963)	일조각: 18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원의 중국 통일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 분량은 비교적 균일한 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차 교육과정에 맞춰 출판된 을유문화사의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분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제2차 교육과정이 제정되던 시기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확인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교과서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겠다.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0년 4월 혁명과 1961년 5·16 정변 이후 전개된 정치·사회 상황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작용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63] 또한 분단, 해방정국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모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립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제2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혁명정부는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되, 반공과 과학진흥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64]

이 시기 세계사 지도 목표에는 “세계 각 민족의 역사는 시대와 환경의 상이에 따라 특성이 있는 반면에 보편성과 공통적인 인간성이 흐르고 있

63) 정선영 외, 앞의 책, 285쪽.
64) 『경향신문』, 1962년 2월 8일, 「文敎行政의 刷新策을 보고」.

음을 이해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상에 공헌”하게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국제적 지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진작하고 조국의 자주 통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힘과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있다.[65]

이처럼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혁명정부는 2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의 배치와 편집을 정권과 사회 안정을 위한 주제와 한국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나라, 사건,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원나라와 고려는 빈번하게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를 테면 원나라시기에 주자학이 고려에 전파되었는데 그 후 유교가 한국의 각 방면에 깊은 영향을 준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타 교육과정 시기와 비교할 때 2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원나라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은 비교적 많은 비중은 차지한다.

그런데,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2015 개정 시기와 2011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1 개정) 및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이하, 2007(2009) 개정)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2015 개정 시기 원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 분량은 평균 8.5줄로 그 전의 교육과정 시기의 평균치인 16줄과 11.5줄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2015 개정에서 행복한 학습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며 비롯된 것이다. 2015 개정 총론에서는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총론에서 명시했고,[66] 이에 일부 대단원이 통합되면서 ‘Ⅱ.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Ⅲ.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의 단원이 ‘Ⅱ.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로 통합하여 대단원이 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67]

그로인해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에 비하여 2015 개정의 〈동아시아사〉 교

65) 김홍주, 앞의 책, 240쪽.
6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2017, 24쪽.
67) 지모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동아시아〉 교육과정 검토」, 『歷史敎育』 143, 2017, 67쪽.

과서의 전반적인 페이지수가 대폭으로 줄어들었고, 원대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 분량이 줄어든 것이다.

(2)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2015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이 축소되면서 서술 범위를 우리나라 역사 전개와 관련이 깊은 국가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원나라에 관한 서술 중에 ‘유목민족의 성장’ 이나 ‘몽골 제국 이후의 지역 내·외 교류’ 와 같은 북방민족과 관련된 내용요소가 삭제되었고,[68] 원의 지배 방식과 정책,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 원나라 쇠퇴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서술하였다.

다음은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원의 중국 지배 방식과 정책에 대한 비교표이다.

<표 3> 원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2쪽) 칭기즈 칸이 죽은 후 몽골 제국은 분할되어 여러 울루스로 나뉘었다. 쿠빌라이(세조)는 수도를 대도(현재의 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였다(1271). 이후 그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여(1279) 유목 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1쪽) 칭기즈 칸 사후 여러 국가(울루스)로 분열되어 점차 독자적인 지배를 하는 느슨한 연합체로 바뀌었다...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꾼 후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비상	세계사	2015 개정	(52쪽) 칭기즈 칸이 죽은 후 몽골 제국은 여러 울루스로

68) 김한종, 「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 23, 2015, 39쪽.

교육		교육과정	나뉘었다. 왕위 다툼에서 승리한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원을 건국하였다(1271). 이후 그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53쪽)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원은 관료제와 주현제를 비롯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하였다. ...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티베트 불교를 보호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3쪽) 쿠빌라이(세조)가 대칸으로 즉위한 뒤 국호를 원이라 정하고(1271), 이듬해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정하였다. 이에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하였다(1279).**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칭기즈 칸 사후 …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 원을 자신의 직할지로 삼고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여 다스렸습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6쪽) 쿠빌라이 칸 시기에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오늘날의 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쿠빌라이 칸은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과 베트남, 자와 등지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원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정치를 감독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9쪽) 5대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남송까지 정복하면서 몽골은 중국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원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전국을 다스렸다.** (60쪽)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 칸 대에 이르러 **중국 전역을 지배한 최초의 유목 왕조가 되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2쪽)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복속한 후 남송을 정복하여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8쪽)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으며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받아들였다.** 또, 남송을 무너뜨려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강남 지역을 차지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3쪽) 쿠빌라이(세조)는 수도을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였다(1271). 이후 **그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1279).**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7쪽) 몽케의 사후 대칸 경쟁에서 승리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원을 건립하였다(1271).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88쪽) 원은 중앙 제도를 정비하고 **각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였다.** 행성은 독자적인 행정 권한을 보유하여 권한이 막강하였다. **원이 만든 행성 제도는 이후 광역 행정 기구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성 제도의 기원이 되었**

			다. 원은 지역에 따라 다른 통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민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이중 통치 제도를 채택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8쪽) 몽케 칸이 급사하자 남송을 공격하던 동생 쿠빌라이(세조)가 대칸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원이라 하고(1271), 이듬해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정하였다. 이어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켜(1276)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대원은 **각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카치를 파견하여 다스렸으며,** 요•금과 마찬가지로 **이원 통치 체제를 시행하여 농경 지역에는 군현제를 바탕으로 다스렸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8쪽) 티베트와 고려를 보속시킨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또한, 남송을 정벌하여 많은 인구와 생산력을 가진 강남 지역을 확보하였다. 쿠빌라이는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받아들였다. 또, 각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카치를 파견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11쪽) 칭기즈 칸 사후 즉위한 우구데이 탄은 금을 멸망(1234)시켜 화북을 차지하고 ... 이어서 몽케 칸은 쿠빌라이로 하여금 남송을 공략케 하고 ... 뒤를 이은 쿠빌라이 칸은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1271) 도읍을 대도(베이징)로 옮겨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쿠빌라이 칸은 티베트와 남송을 정복하여 **유목 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113쪽) 중국 전역을 장악한 원은 전국을 통일적으로 지배하고자 **각 지방에는 행중서성을 두었는데, 이는 현재 중국 지방 행정 구역인 성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에 몽골 인 다루가치를 감독관으로 파견해 다스렸다. 원은 거란(요), 여진(금)과 같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정복자로서 군림하고자 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1쪽) 1260년에 쿠빌라이는 쿠릴타이를 열어 5대 칸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수도도 카라코룸에서 대도(오늘날의 베이징)로 옮겼다. … 1279년에는 남송을 정복하여 유목 제국 최초로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원은 남송을 멸망시킨 후 지방에 여러 개의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45쪽)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으며,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받아들였다.** 또, 남송을 무너뜨리고 많은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강남 지역까지 지배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정책으로 원은 유목 국가에서 중국식 황제 국가로 바뀌어 갔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56쪽) 4대 칸 몽케가 … 남송 공략 도중 사망하자 쿠빌라이(세조)는 스스로 대칸으로 즉위한 다음,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이라고 하였다(1271). 이어서

			그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여(1279),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 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157쪽) 원은 남송을 멸망시킨 다음 **각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원 역시 요, 금 등의 정복 왕조와 마찬가지로 이중 통치 체제를 채택하여, **농경 지대는 관료 조직과 군현제에 기초하여 다스렸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30쪽) 제5대 칸으로 추대된 쿠빌라이(세조)는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수도를 대도(베이징)오 옮긴 후 남송을 멸망시켰다(1279).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10쪽)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함으로써 몽골 제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형성하였다. 이어 쿠빌라이는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대원이라 하였다(1271).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80쪽) 칸에 오른 쿠빌라이는 제국 지배의 중심을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남송을 정벌하여 중국 전체를 지배하였다(1279). (81쪽)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원은 요, 금과 마찬가지로 **유목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천제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92쪽) 1260년에 쿠빌라이는 쿠릴타이를 열어 스스로 칸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수도도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옮겼다. (93쪽) 원은 1276년에 마침내 남송을 정복하였다. 이로써 **몽골은 유목 제국 최초로 중국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원은 남송을 멸망시키고 나서 **지방에 여러 개의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표 3〉에서 보듯이 2007(2009) 개정 시기 이후에 출판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원의 중국 통치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쿠빌라이는 중원에 진출한 후, 남송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킨 후 중국 전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처음으로 중국 전 지역을 통치한 유목민족이 되었다.[69] 원의 중국 통치 제도에 대해 교과서에서는 원의 관료제와 주현제(州縣制), 그리고 지방 통치 기관인 행중서성(行中書省)과 중앙정부의 통치 기관인 중서성(中書省)의 이원통치

69)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8, 52쪽;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9, 60쪽;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 110쪽;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2, 156쪽;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2, 93쪽.

체제를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에서 발행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원의 행성(行省) 제도를 중국 지방 행정 구역인 성(省)의 기원이라고 서술하였다.[70] 이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인 원의 중국통치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원의 중국 통치 정책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이다.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비(非)한족인 이민족에 대해 문화 수준이 한족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이들의 중국통치에 대해 “대체로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다스렸다.”라고 서술하거나,[71] 4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몽골인은 무력으로 한 민족을 지배하였으나, 경제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종래의 중국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였다. 그것은 정복민의 수가 적은 데다 높은 중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그들의 힘을 중국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72]라고 서술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2007(2009) 개정 시기의 「동아시아사」교과서에서는 한족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원의 유목민 문화의 전통성과 노력에 대해 강조하였고[73], 2011, 210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이 유목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서술하였다.[74]

이상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은 한족(漢族)의 입장에서 유목민족의 중국 통치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원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70) 『세계사』, 비상교육, 2018, 88쪽;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 113쪽.
71) 『세계사』, 일조각, 1956, 103쪽.
72) 『세계사』, 보진재, 1985, 134쪽.
73)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81쪽.
74) 『세계사』, 비상교육, 2018, 53쪽;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 113쪽.

다음은 원나라의 이원 통치 체제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겠다. 원은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여러 민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몽골제일주의 원칙을 세우고 이원 통치 체제를 실시하였다. 이원 통치 체제는 몽골족과 그 이외의 민족에 대한 민족차별 정책으로[75] 이에 대한 각 시기별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3쪽) 원은 관료제와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였지만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 고위직을 독점하였으며,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한 서방계의 색목인을 우대하였다.** 한편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분류하여 지배하였다.** 과거제는 폐지되었다가 후기에 가서야 부활하여 사대부가 활약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지주 전호제는 더욱 발전하여 지방에서 사대부의 지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1쪽) 원은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여러 민족을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몽골인은 최상층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색목인은 대부분 상업과 회계 등 재정 관리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을 형성하였으며, 그중 남인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3쪽)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원은 관료제와 주현제를 비롯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몽골인과 색목인을 우대하고 한인과 남인은 차별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원은 요와 금처럼 민족 차별을 두어 중국을 지배하였다.** 관료제나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제도를 채용하면서도,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여러 민족과 지역마다 다양한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가**

75) 錢穆, 『國史大綱』(下冊), 商務印書館, 2016. 638~639쪽.

			의 최고 고위직은 모두 소수의 몽골인이 독점하였고, 재정과 행정 등의 업무는 서역의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한 색목인이 담당하였다. 그 아래 금의 지배를 받았으며, 남송 출신의 한족들은 남인으로 분류되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한인과 남인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 등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과거제는 아예 폐지되었다가 이후 부활되어 몇 차례 시행되었다. 그나마 과거 합격자 수가 몽골인•색목인•한인•남인 모두 똑같이 정해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한인과 남인이 가장 불리하였다. 원의 이런 극심한 민족 차별 정책으로 관직 진출이 어려웠던 한족 지식인은 문화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원에서는 몽골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몽골인과 색목인을 지배층으로 삼아 중요 임무는 몽골인이 맡고 재정은 색목인이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과거 금의 주민은 한인으로, 남송의 주민은 남인으로 차별 대우하였습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6쪽) 주민을 몽골인, 주로 이슬람교를 믿던 서역계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분류하여 다스렸다. **몽골인은 정치와 군사를 맡고, 색목인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배층으로 군림하였다. 반면에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이었다. 특히 남중국인은 남인이라 불리며 다른 계층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9쪽) **몽골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여 **몽골인이 정치와 군사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으며, 색목인**에게는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반면, 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한인,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남인으로 분류하여 통치**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9쪽) 원 제국은 **몽골 제일주의**에 입각해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을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몽골 족은 정치•군사권을 장악한 최고의 지배층이 되었으며, 색목인은 대부분 서역의 이슬람 인들로서 조세 징수와 재정 관리,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색목인 중 일부는 몽골 지배층과 결탁하여 고리대업으로 부를 쌓기도 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을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남송 출신의 한인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4쪽) 원은 관료제와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여 통치하였지만, **몽골 인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다스렸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나 행정 기관의 고위직은 모두 소수의 몽골 인이 독점하였고,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한 색목인이 우대를 받았**

			다. 반면,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과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8쪽) 각 민족을 몽골 족,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하여 다스렸다. **원의 민족 차별 정책으로 한족 지식인의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9쪽) **원은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워 관료 기구의 고위직을 독점하고, 몽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파스파 문자를 새로 만들어 공문서 등에 사용하였다. 또 위구르인을 비롯한 색목인을 대거 등용하여 조세 징수와 재정 관리, 통상 업무 등을 맡겼다. 그 아래에 금치하에 있던 한족(한인)을 두어 지배하였고, **몽골에 오랫동안 저항하였던 남송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인이라 부르며 가장 천대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 등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과거제는 아예 폐지되었다가 1315년 이후 몇 차례 시행되었다. 그나마 과거 합격자 수가 몽골인•색목인•한인•남인 모두 똑같이 정해졌기 때문에 숫적으로 많은 한인과 남인은 가장 불리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8쪽) 소수의 몽골 인이 군사•행정의 요직을 독점하였으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출신의 색목인을 행정 관료로 중용하였다. 반면, 남송 출신의 한인들을 차별 대우하였다. (85쪽) 송의 뒤를 이어 중원을 지배한 원은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원은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직에 몽골 인을 우선 임명하고, 적당한 인물이 없으면 색목인으로 충당하였다.** 원대에도 과거제가 일부 실시되었지만 한족 사대부가 고위 관직으로 나가기는 매우 어려웠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13쪽) **정복 과정에 공로가 큰 순서로 등급을 정하여 제국의 다양한 민족을 다스렸다.** 이 중 **몽골 인을 가장 우대하여 군사와 정치를 담당시켰고, 그 일부는 천•백호장을 맡은 유목 귀족층이 되어 그 지위가 세습되었다.** 전쟁에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색목인은 그 다음으로 우대하여 주로 조세 수취와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금 지배하의 한족과 더불어 고려인, 여진인, 거란인, 발해인 등을 모아 한인이라 하여 멸망한 남송의 한족인 남인과는 분리하여 통치**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4쪽) **몽골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몽골인과 색목인을 지배층으로 삼아 중요한 군사 임무는 몽골인이 맡고, 재정 운영은 색목인이 담당하게 하였다.** 반면, 몽골 지배 이전에 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인,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남인으로 분류하여 통치하였다. 한인과 남인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적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46쪽) 원을 통치하는 몽골 족은 한족에 비해 소수였기 때문에 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원은 몽골 제일중의에 입각해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을 몽골족-색목인-한인-남인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몽골족은 군사•행정의 요직을 차지하여 최고의 지배층이 되었고, 정복한 지역의 행정은 색목인에게 맡겼다.** 색목인은 대부분 서방의 이슬람교도로서 몽골 제국이 성립될 때부터 정복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색목인은 주로 조세 징수와 재정 관리, 외교 및 통상 분양에서 활약하였다. 색목인 중 일부는 몽골 지배층과 결탁하여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기도 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을 이루었다. 한인은 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여진족, 거란족, 고려인, 한족 등으로 구성되었고, 남인은 남송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족들로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원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원의 황실에 충성하는 가문의 사람들을 등용하였다. 14세기 초 과거제가 부활하였지만 몽골 족과 색목인에게 유리하여 한인과 남인 출신의 합격자는 그 인구에 비해 극소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57쪽) 관리 등용에 있어서는 **소수 몽골 인이 행정 기관의 고위직을 독점하였으며, 서방계 색목인을 우대하여 재정 운영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인과 남송의 지배를 받은 한인(남인)을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원대에는 과거가 꾸준하게 실시되지 않아 사대부 계층이 몰락하였고 한족이 고위 관직에서 제외되었지만, 중하급 관리는 한인과 남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32쪽) 원은 북방 유목 민족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원은 몽골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피정복민인 한족은 중국의 제도를 이용하여 다스리는 이중 통치 체제를 취하였다.** 또한, **원은 몽골 제일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몽골 인을 제외한 피정복민을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분하고 차별하였다.** 소수의 몽골 인이 중앙 정부와 지방 행정 기관의 장관을 독점하고 정치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을 형성하였다. 이란계나 튀르크계의 색목인은 몽골 인 밑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간층을 형성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을 형성하였다. 한인은 화북 지방에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을 비롯하여 여진족, 거란족, 고려인으로 구성되었다. **남인은 남송 출신의 한족으로서,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기 때문에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10쪽) **원은 몽골 인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고 다양한 외국인들(색목인)을 지배 계층으로 우대**하였다. 당시 한족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넘었지만, 중국에 살던 몽

			골 인의 숫자는 약 100만 명에 불과하였다. 그 때문에 위구르 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우대하였는데, 그 숫자는 몽골 인보다 많았다. … 반면, **원은 한족을 차별**하였다. 늦게 정복된 남송의 한족들에 대해서는 남인이라 부르며 더욱 차별하여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리 등용에서도 불이익을 주었다. (111쪽) 1315년 이후 과거제가 가끔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한인 또는 남인을 크게 등용하지는 않았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81쪽)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원**은 요, 금과 마찬가지로 **유목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몽골인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출신의 색목인을 재정 관료로 중용하였다. 전통적인 과거제는 거의 시행하지 않아 한족 사대부가 정계에서 활약할 기회를 없앴다. 특히 **남송 출신의 한인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92쪽) **몽골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몽골 인과 색목인을 지배층으로 삼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군사 임무는 몽골 인이 맡고, 재정 운영은 색목인이 담당하게 하였다. 반면에 몽골의 지배 이전에 **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한인, 남송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남인으로 분류하여 통치**하였다.

이와 같이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시기별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2011 개정 시기 출판된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소략한 편이고, 같은 시기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몽골 제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4개로 나뉜 사회계급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몽골인을 가장 우대한 것과 귀족층인 색목인에 대한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내용과 비슷한데, 한인과 남인에 대해서는 ‘금 지배하의 한족과 더불어 고려인, 여진인, 거란인, 발해인 등’을 모아 한인(漢人)이라고 하고, ‘멸망한 남송의 한족’을 남인(南人)이라 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2011 개정과 2015 개정 시기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세계사>에서는 한인과 남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서술한 편이

고, 납세 문제와 관료의 선발 시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2015 개정 시기 비상교육에서 출판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더 알아보기」코너를 따로 구성해 원의 몽골 제일주의 정책에 관해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며 "몽골의 고유한 전통은 유지되었으나 민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다."라고 설명했다.[76] 이는 이전의 교육과정이나 다른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원의 정책에 따른 사회문제까지 살핀 것이다.

이렇듯 2007(2009) 개정 이후 발행된 역사 교과서는 몽골 제일주의 정책 실시로 인해 몽골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였다는 내용과 한인과 남인이 차별과 압박을 받았다는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들은 2007(2009) 개정 전후로 변화한 것이다. 2007(2009) 개정의 더텍스트에서 출판된 <세계사>에는 "남인은 남송 출신의 한족으로서,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였기 때문에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77]라고 기술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남인이 원의 중국 통치에 순응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고 서술한 것으로 한족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시기 교학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인, 남송 지배에 있던 남인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냉대받았다. 원의 초기에는 과거도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송대의 지배 계급이었던 사대부와 유학자는 타격을 입었다."[78]라고 서술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냉대받았다', '타격을 입었다'라는 표현 또한 한족의 입장에서 상황을 본 것이다.

다음은 2007(2009) 개정부터 2015 개정 시기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

---

76) 『세계사』, 비상교육, 2018, 53쪽.
77) 『세계사』, 더텍스트, 2012, 132쪽.
78) 『세계사』, 교학사, 2003, 103쪽.

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원의 쇠퇴시기에 대한 서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원의 쇠퇴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2쪽) **원은 14세기에 들어 황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난에 빠져 국력이 쇠퇴**하였다. 게다가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자 백성은 불만이 쌓여 갔다.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다**(1368).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1쪽) 쿠빌라이 칸 이후 **원은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분쟁에 시달려 통합력이 약화**되었다. **황실이 사치**를 하고,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유행하면서 법회를 개최하는 데 국고를 소모**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여 북쪽으로 밀려났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3쪽) 14세기 들어 **원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과 귀족의 사치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를 남발**하면서 물가가 폭등하여 백성의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도 중심의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켜 원은 쇠퇴해 갔다.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 유목 지대로 밀려났다**(1368).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쿠빌라이 칸 사후 **원은 황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쟁에 시달렸고 지배층은 사치 풍조에 빠졌으며,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국력이 약화**하였다. 여기에 황실 지배층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신봉하여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는데 국고를 소모**하여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교초)를 남발**하는 바람에 오히려 물가는 급등하고 백성의 불만은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몽골 지배층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쫓겨 북쪽으로 밀려갔다**(1368).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9쪽) 14세기 이후 **원은 후계가 불안정한 데다가 재정 적자, 자연 재해 등이 겹치며 혼란**에 빠졌다. 원 조정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폐인 **교초를 많이 발행**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한인과 남인의 불만이 점차 쌓여 갔다. 이때 종교 조직을 이용한 농민 봉기가 활발히

			일어났다. 농민 봉기군 출신인 주원장은 세력을 키워 난징을 수도로 삼아 명을 건국하였다(1368).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2쪽) 14세기 무렵 **원이 약화되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홍무제)이 명을 건국하고 원을 몽골 초원으로 몰아냈다**(1368).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4쪽) 원은 14세기 이후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국력이 약해졌다. **이 틈을 타 백련교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주원장은 각지의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수도인 대도를 점령**하였다(1368). 원은 중원을 포기하고 몽골 초원으로 물러났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9쪽) 쿠빌라이 칸 이후 **원 제국은 황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쟁에 시달리며 국력이 약화**되었다. 여기에 황실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신봉해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고 **법회를 개최하는 데 국고를 소모**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원 제국은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크게 올랐다. 게다가 **강남의 대토지 소유 현상**은 계속되었고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비밀 종교인 **백련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난**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4쪽) 쿠빌라이가 죽은 후 **원은 황위 계승 분쟁과 지배층의 사치 풍조로 재정난**에 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교초)를 남발하였으나, 물가가 폭등하여 백성의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다(1368).
비상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8쪽) **원은 제위 계승 분쟁으로 내분에 시달리고 지배층의 낭비로 국고를 소비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국력이 약화되었다. 또, **교초를 남발**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원은 백련교가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으로 몰락**해 갔다.
천재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8쪽) 쿠빌라이가 죽은 후 **황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고 귀족들의 사치와 **라마교 사원•불탑 건설 등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 **과중한 세금 징수와 지폐(교초)의 남발**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결국 비밀 종교인 **백련교 신도들이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주원장이 명을 세워 몽골인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8쪽) **농민 반란군을 이끈 주원장(홍무제)은 1368년 명을 건국하고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비상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15쪽) 14세기 들어 **왕위 계승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역참을 담당하던 참호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교역이 쇠퇴**하였다. 또한, **라마교 신봉과 왕실의 사치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교초를 남발**하면서 교초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여기에 **황허 강의 범람**을 계기로 **백련교의 난이 일어나자 몽골은 북방 초원 지대로 쫓겨났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20쪽) 원은 14세기 이후 **황위 계승의 불안정, 황실의 사치와 낭비** 및 방만한 재정 운용,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졌다. 원 조정은 재정 마련을 위해 교초를 남발하고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백성의 불만은 쌓여 갔고,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세력을 키워 대도를 점령하자(1368), 원의 토곤테무르 칸은 중원을 포기하고 몽골 지역으로 물러났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5쪽) 쿠빌라이 칸이 죽은 뒤 귀족들의 사치가 심해지고 라마교에 대한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원은 화폐를 남발하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백련교의 영향을 받은 홍건적이 난을 일으켰고 **주원장이 원을 무너뜨렸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7쪽) 원은 쿠빌라이가 죽은 뒤 황위 계승 분쟁과 지배층의 사치, 낭비 때문에 국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자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백련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난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다**(1368).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31쪽) 쿠빌라이가 죽고 난 후 원은 황위 계승 분쟁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또한, 지배층의 사치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원은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에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의 불만이 커졌고,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는 등 원의 지배력은 차츰 쇠퇴하였다. 결국, 몽골은 명의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났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10쪽) **그(쿠빌라이)가 죽은 후 황위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귀족들의 사치 탓인 재정 파탄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하였다. 또 **과중한 세금 징수와 교초의 남발**로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마침내 비밀 종교인 백련교 신도들이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원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명을 세운 주원장이 **몽골인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밀어냈다**(1368).
교학사	동아시 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83쪽) 14세기는 … 중원에서는 농민 반란군을 이끈 주원장(홍무제)이 명을 건국하고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천재	동아시	2007(2009)	(95쪽) 원은 14세기 이후 왕위 계승의 불안정, 왕실의 사

교육	아사	개정 교육과정	치와 낭비 및 방만한 재정 운용 등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 황허 강의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져 운하망까지 파괴되었다. 조정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교초를 남발하고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백련교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하여 명을 세우고 대도를 점령하자, 원의 순제는 **중원을 포기하고 북방으로 도피하였다.**

각 시기별 교과서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원나라는 통치계급 내부의 황위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지배 계급의 사치와 낭비,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 사원과 불탑 건축으로 인해 국고가 탕진되며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나라 정부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는 폭등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졌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 백련교 중심의 홍건적이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자 원나라는 급속히 쇠퇴했다. 그리고 명의 주원장에게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몽골인은 만리장성 이북의 북방 초원으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서술이다.

2007(2009) 개정부터 2015 개정의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원의 쇠퇴 원인과 멸망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원의 중국 통치가 끝나는 시점이나 멸망 시기에 대해 대부분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원이 ‘쫓겨났다’, ‘몰아냈다’, ‘물러났다’, ‘무너뜨렸다’ 등의 표현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몽골족은 주원장으로 인해 중원을 떠났으나 북방 초원으로 밀려난 몽골의 통치 계급은 원조의 연호와 국호를 여전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홍건적 봉기와 명의 건립을 원의 멸망과 같은 시기처럼 서술하는 것은 정확한 서술이 아닌 것이다.

이런 서술상의 문제는 4차, 5차,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

에서 “명에게 멸망되었다.”[79]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망하였다.”[80]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학사에서 출판된 <세계사>에서는 “쫓아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1.2.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영락제 사후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명나라는 만력제(萬曆帝) 시기 당쟁의 격화와 환관의 발호로 정치가 더욱 혼란해지며 전국에서 봉기와 반란이 끊이질 않았다. 누르하치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신속히 선양(瀋陽)과 랴오닝(遼寧) 지역을 점령한 후 수도를 심양으로 옮기고 중원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1626년 영원성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누르하치는 일단 후퇴하였고 그해 가을 사망하며 아들인 홍타이지가 왕위를 계승했다.

왕위를 이은 홍타이지는 요동을 포함하여 동북 3성을 점령하며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굴복시키며 명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81] 그 후 1644년, 리지청(李自成)이 난을 일으켜 베이징을 점령하자 베이징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하던 명의 장수 우산꾸이(吳三桂)는 군대를 산해관에 주둔시키고 전세를 관망하다가 명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청에 원조를 구하고 항복하였다. 청군은 산해관을 통과한 후 곧바로 베이징으로 진격하였고, 이자성군은 산시성(山西省)으로 폐퇴했다.

베이징에 입성한 청의 황제 순치제(順治帝)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79) 『세계사』, 보진재, 1985, 134쪽; 『세계사』, 지학사, 1989, 87쪽.
80)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93쪽.
81) 이춘식, 앞의 책, 397쪽.

후, 이자성의 잔존세력을 소탕했다. 또한 복명운동을 일으킨 남경정권, 복건정권, 광동정권을 타도하여 중원을 평정한 후 1661년 중국 전토를 통일한다. 원나라 이후 중원을 차지하고 중국을 통일한 두 번째 정복왕조가 세워진 것이다.

이후 순치제의 셋째 아들인 강희제(康熙帝)가 왕위에 올라 청나라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강희제의 아들과 손자인 옹정제(雍正帝), 건륭제(乾隆帝)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의 기틀이 완성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청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대를 중국의 역사에서는 강옹건 성세(康雍乾盛世)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의 청나라의 중국 통일에 대한 서술 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17 , 미래엔: 18, 비상: 12, 천재: 14	금성: 9, 미래엔: 7, 비상: 4, 천재: 10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20, 금성: 17, 비상: 14, 천재: 11	교학사: 13, 비상: 16, 천재: 8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23, 금성: 12, 더텍스트: 14, 천재: 10	교학사: 12, 천재: 24
제7차 (1997~2007)	교학사: 18	--
제6차 (1992~1997)	금성: 16	--
제5차	지학사: 22	--

(1987~1992)		
제4차 (1982~1987)	보진재: 20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14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31	--
제1차 (1954~1963)	일조각: 24	--

<표 6>에서 보듯이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2차 교육과정 시기와 3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분량에서는 큰 변화가 보인다. 이전 시기인 2차 교육과정시기의 을유문화사 교과서에서는 '청조의 흥기'와 '청조의 중국 통치'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고, 3차 과정시기의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교과서는 '청의 성쇠'로 묶이면서 분량이 절반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추진된 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육을 강화하면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007(2009) 개정 시기에 신설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그 이전 시기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2015 개정의 분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2009) 개정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기준 중의 이 부분에 대해 '17세기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 각국의 정치, 사회와 국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켰음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했고, 2015 개정의 해당 부분 집필 기준에서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그 결과로 나타난 각국의 변화를 파악' 하도록 했다. 또한 2007(2009) 교육과정 시기 교육 목표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라고 명시했는데,[82] 2015 개정에서는 교육 내용의 질적

적정화와 분량의 적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시기 발행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의 감소가 있었다.

(2) 청의 중국 통일과 통치에 관한 서술 분석

2007(2009) 개정부터 출판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대의 중국 통치의 서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나는 청이 중국을 통일하고 통치하게 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청의 중국 지배 방식과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각 교육과정 시기별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 교과서에서의 서술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청의 중국 통일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0쪽) 명의 세력이 약화하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청 태조)가 여진족(후의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1616).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었다. **청은 팔기제를 통해 양성한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명이 멸망한 이후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았다(1644)**. 이후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명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7쪽) 임진왜란 이후 명과 조선이 쇠퇴한 틈을 이용하여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만주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다(1616)**. 이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홍타이지(태종) 때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1636) 내몽골과 조선을 공격하였다. 순치제 때 명이 멸망하자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후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중국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2쪽)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의 누르하치(태조)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여진(만주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다(1616)**. 뒤를 이은 홍타이지(태종)는 몽골을 정복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으며, 순치제는 명

82)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7, 82쪽.

			이 멸망하자 베이징을 공격해 중국 대륙을 차지하였다(1644).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0쪽) 명이 쇠약해지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이후 만주족으로 개칭)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1616).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태종)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공격하였다. **청은 팔기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명이 멸망하자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1644), **투항한 한족 장수들의 협력을 얻어** 중국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96쪽) 명은 이자성이 주도한 농민 봉기군에게 멸망하였습니다(1644). 같은 해 청은 **명의 장수인 오삼계의 도움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고 중국 통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강희제 때는 오삼계를 비롯한 삼번의 난과 타이완의 저항 세력인 정성공 세력까지 진압하고 전국을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92쪽) 만주 사회가 정비되자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과 대결하였다. …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93쪽 청의 성장으로 명과 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1644년 명이 멸망한 직후, 청은 산하이관을 지키던 **명의 장수 오삼계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한 청은 중국 각지를 정복한 후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반청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복속하였다. 또한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계승하여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확립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90쪽) (정묘호란) 이후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 (92쪽) 청은 농민군을 몰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하여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였다. 이어 강남 지역의 남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삼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까지 진압하여 중원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93쪽) 16세기 후반 만주에서는 명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이 점차 세력을 키워 갔다. 누르하치는 명과 조선이 일본과 전쟁하는 기회를 틈타 다른 여진 부족을 복속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였다. 이후 그는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다. (90쪽)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태종)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94쪽)청은 조선을 제압함으로써 중원 공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자성의 농민군이 명을 무너뜨린 틈을 타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이후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몽골인 부대를 앞세워 중원을 장악하였다. 강희제 때에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정씨 세력까지 제압하였다. 건륭제에 이르러서는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134쪽) 임진왜란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정세가 불안해진

		교육과정	틈을 타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다. **만주족은 팔기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에는 내몽골과 조선을 공략하여 배후를 안정시켰다. 청은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자 **명 장수 오삼계 등의 협력을 받아** 국경을 넘어 베이징에 입성하였으며, 이후 각지의 농민 반란을 진압하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3쪽)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청 태조)가 여진족(후의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1616).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였다. **청은 팔기라는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빌려 명이 멸망한 이후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 내면서 장기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후 명의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2쪽)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만들고 만주 지방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후금을 건립하였다(1616). 이어 홍타이지는 만주족, 몽골 족, 한족을 포괄하는 다민족 통치 체제를 만들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이후 명이 망한 것을 틈타 중국 대륙을 장악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8쪽)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으며(1616), 태종(홍타이지)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1636) 몽골과 조선을 굴복시켰다. 명이 멸망하자 순치제는 산하이관을 넘어 베이징으로 입성하여(1644) 중국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강희제는 '삼번'의 반란(1673~1681)을 평정하여 중국 지배를 확고히 하고, 이어 타이완을 점령하고 티베트를 복속시켰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12쪽) 금 멸망 이후 만주에 흩어져 살던 여진은 16세기 후반까지 명의 지배를 받았다. 1583년 누르하치는 군사를 일으켜 주변의 부족을 공략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 나갔다. ... 누르하치는 축적된 부와 **팔기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마침내 여진을 통일하였다.** 명은 누르하치를 견제하려 하였지만 임진 전쟁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명과 조선이 일본과 싸우면서 힘을 소진하는 사이 누르하치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 임진 전쟁 이후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113쪽) 정묘 전쟁 이후 명과 후금의 대결이 격화되었다. ... 후금의 군사적 우위는 지속되었다. 1626년 칸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는 내부 세력을 규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중원을 공략하여 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1636년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대청, 연호를 숭덕으로 고쳤다. (114쪽) 1644년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명이 멸망하였다. 청은 투항한 명의 장수 오삼계의 인도를 받아 반란군을 몰아내고 베이징으로 입성하였다. ... 이후 청은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번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중원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비상	동아시	2011 개정	(129쪽) 여진족은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만주 일대에서

교육	아사	교육과정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팔기제**를 완성한 누르하치는 1616년 국호를 후금으로 정하고 명과 전쟁을 시작하였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칸의 자리에 오른 홍타이지는 ... 동아시아 제패를 꿈꾸며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다(1636). (130쪽) 1644년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을 베이징을 함락시켰고, 이로써 명은 멸망하였다.** 그러나 이장성의 베이징 점령은 산해관을 지키던 **명 장수 오삼계의 도움을 받은** 청의 공격으로 40여 일 만에 끝이 났다. 이후 청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남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삼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면서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해 나갔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6쪽) 임진 전쟁 참전 이후 쇠퇴의 길을 걷던 명은 이자성 등이 주도한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였다(1644). 이를 틈타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였다. 청은 **팔기병과 투항한 한인 부대를 앞세워**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강희제 때에 이르러 삼번의 난과 최후의 저항 세력이었던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면서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청조의 평화'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8쪽) 임진왜란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주에서는 누르하치(태조)가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다.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만주 문자를 창안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태종)는 내몽골을 정복한 후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자,** 순치제는 명 장수 오삼계의 항복을 받아 국경을 저항 없이 통과하고, 농민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베이징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청의 지배에 반발하여 일어난 각지의 농민 반란을 진압하면서 중국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98쪽)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청 태조)가 여진족(후의 만주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다(1616). 뒤를 이은 태종은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었다. **순치제는 명이 멸망한 틈을 타 베이징을 점령하였고,** 저항 세력을 진압하면서 점차 명의 영역을 차지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3쪽)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의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다(1616). 그 후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1626),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 본토를 장악하였다.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벌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1683).**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1쪽) 누르하치는 만주의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으며(1616), 2대 태종(홍타이지)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1636) 조선을 굴복시켰다. **이자성이 명을 멸망시키자 3대 순치제는 산해관을 넘어 베이징에 입성하여(1644)**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18쪽) 1583년 누르하치는 군사를 일으켜 주변의 부족을 공략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 나갔다. ...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완성한 후 국호를 후금으로 정하고 명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120쪽) 1630년대 중반에는 후금의 위협이 더욱 커진 데다 각지에서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 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1644년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명은 멸망하였다.** 청은 투항한 명의 장수 오삼계의 인도를 받아 반란군을 몰아내고 베이징으로 입성하였다. ... 청은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번의 난도 진압함으로써 중원 지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35쪽) 누르하치는 이러한 정세를 틈타 랴오둥을 제외한 만주 전역을 지배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어 17세기 초에는 후금을 건국하고(1616) 랴오둥으로 진출하였다. (136쪽) 임진 전쟁 참전으로 쇠퇴의 길을 걷던 명은 이자성이 주도한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를 틈타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였다. 만주족도 집단으로 이주해 오면서 청은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이후 만주족은 각지의 반항 세력을 차차 진압하면서 중국을 정복해 갔다. 그리하여 강희제 때에는 일찍이 청에 투항하였다가 배신한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번의 난과 최후의 저항 세력이었던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면서 확고한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출판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후금의 건립 -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 원의 멸망 - 순치제의 북경 입성 - 중국 전역 통일’의 흐름으로 청의 중국 통일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시기의 서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루하치가 만든 군사・행정 조직인 팔기제에 의해 조직된 팔기군이다. 누루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팔기군을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1642년 8개 깃발군이 모두 갖추어졌다. 2년 후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군을 퇴각시킨 것도 팔기군의 활약이었다. 팔기군은 청나라의 정예군으로 청이 멸망할 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팔기군에 대한 서술은 교육과정마다 차이가 있고, 동 시기 집필된 교과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 시기

의 <세계사> 교과서 중 분석대상으로 삼은 7종의 교과서 대부분은 팔기군에 대한 서술이 없으나 4차 교육과정의 보진재에서 출판된 <세계사> 교과서에서만 "누루하치의 군사 기반이 된 것은 만주 팔기로 이는 여진 부족 사회를 군사 조직화한 일종의 국민 개병 제도로 이 후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83]

그리고 <표 7>에서 정리한 총 21종의 교과서는 팔기군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는 교과서가 8종이고,[84] 팔기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한 교과서도 8종이다.[85] 분석해보면 팔기군에 대한 서술은 <세계사>의 경우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 1종,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2종, 그리고 2015 개정의 경우 연구대상인 4종의 교과서 모두 자세히 서술한 편이고, 같은 시기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만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나머지 3종의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과목별 학습목표와 집필기준의 차이 때문이고, 집필진의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청의 중국 통치에 관한 서술에 대한 분석이다. 청은 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점령한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국가지만 철저한 민족차별 정책으로 일관한 원과는 다르게 다수를 이루는 한족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며 중국을 통치했다. 이러한 청의 중국 지배에 관한

83) 신채식, 양병우, 『세계사』, 보진재, 1985, 142쪽.
84) 팔기군에 대한 서술이 없는 교과서로는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중 금성출판사, 더텍스트,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 중 천재교육 교과서가 이에 해당되고, 2011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중 천재교육,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교과서가 있다. 그런데, <표 8>의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팔기제도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는 전쟁 과정에서 팔기군의 역할이 아니라 몽골족과 한족을 수용하고 있는 민족 융합 정책에 대한 서술이므로 이 분석에서 제외했다.
85) 팔기군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한 교과서로는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중 교학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 중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시아사> 교과서 중 교학사,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모두 해당한다.

내용은 각 시기의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청의 중국 지배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0쪽)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였다...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한 청은, 직할지에서는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몽골·신장 등의 주변부(번부)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다. (61쪽)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압도적으로 다수인 한족을 다스렸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옥으로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고**(만한 병용제)**,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신사층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7쪽)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 (58쪽) 청은 만주족•한족•몽골족 등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 융합 정책을 펼쳤다.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고 티베트·몽골·신장 등 주변부와 소수 민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다. 만주 문자를 만들어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한자·몽골어·티베트어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다. ... 청은 중국을 통치하며 한족에게 강압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 만주족의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여기는 서적을 모두 금서로 지정하는 등 가혹한 탄압(문자의 옥)을 하였다. 동시에 유교 문화를 존중하여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중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다(만한 병용제). 또한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이전에 편찬된 책을 경(유학)·사(역사)·집(문학)으로 분류하여 〈사고전서〉를 간행하는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여 한족 문화를 보존하고 청 왕조 비판을 통제하려 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2쪽)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으며 지정은제를 통해 조세 제도를 정비하였다. ...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함께 사용하여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였다. 청은

			만주족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였다. 또한 만주족의 지배를 반대하는 논조가 포함된 서적을 금서로 지정하는 등 문자의 옥으로 사상을 통제하였다. 한편으로는 과거제를 실시하고 중요 관직에는 대체로 한인과 만주인을 같이 등용하였다(만한 병용제). 그 밖에 한족 지식인을 포섭하기 위해 대규모 편찬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소수의 만주족 지배층은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용하였다. 강경책으로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한족에게 강요하고 ‘문자옥’으로 사상을 통제하였다. 동시에 청은 회유책의 일환으로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신사층을 포섭했으며, 일부 주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하였다(만한 병용제). 청은 제국 내에 편입된 다민족을 융합하기 위해 한족은 전통적인 군현제로 지배하고, 몽골·티베트·신장 등에는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정책을 시행하였다(번부 지역). 건륭제는 몽골의 남은 세력과 신장 지역을 정복하고 티베트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다. 이런 다민족 지배 속에서 청은 만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배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96쪽) 청은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안으로는 한족 지배 계급인 신사층을 장악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만주족의 직할지에는 군현을 두어 직접 통치하였고 점령지에는 번부를 두어 각 지역의 고유한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간접 통치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97쪽) 중국의 한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중화라고 생각하였다. 청은 중화인과 오랑캐는 중화의 인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만주족의 중국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를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4쪽)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주요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으며,... 청은 만주족 중심의 강압 정책을 취하면서도 한족, 몽골 족 등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한 유화 정책을 취하였다. 먼저, 만주족의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억압책으로 만주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였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하였다. 그리고 한족 신사층 사이에서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하는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한편, 한족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족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시행하여 한족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명하였다(만・한 병용제). 군제에서도 **만주족의 팔기 외에 한족 팔기와 몽골 팔기를 두고, 한족으로 구성된 녹영을 설치**하여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청은 제국 내의 다민족을 융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한족은 전통적인 군현제로 직접 지배하고, 몽골・티베트 등에는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만주 문자를 창안하여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자와 몽골 어, 티베트 어, 위구르 어 등을 공용어로 사용하여 이민족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융화 정책의 실시로 소수 민족이 세운 청이 한족 등의 협력을 받아가며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3쪽)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고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옥으로 사상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를 포섭함으로써 그들이 협조를 얻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154쪽) 청은 건륭제 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았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도 계속되어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 청은 이를 통해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청은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칭하이 등의 주변부(번부)와 소수 만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2쪽) 만주족은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복종의 표시로서 변발과 호복을 할 것을 강요하고,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생각하는 화이관을 탄압하였다. 한편으로는 한족 문화의 보호자를 자임하며 한족 문화를 보호하고, 학교 제도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중요 관직에는 만주인과 한인을 같이 임용하였다. ...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황제권을 강화하고, 지정은제를 실시하여 조세 제도를 정비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8쪽)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모든 정보와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 청은 유교 문화의 계승자임을 주장하며 과거제를 시행하여 한족을 대거 등용하고 중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다(만한 병용제). 또 사회 지배층인 신사들의 특권을 인정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였다. 반면, 만주인의 풍습이었던 변발을 한족에게 강요하고, 반만주족•반청의 논조가 들어 있는 서적은 모두 금서로 지정하여 이를 어기면 가

			혹하게 탄압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43쪽) 청은 왕조 교체에 따른 혼란을 효과적으로 수습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한족 관료와 사대부 등에게 특권을 인정하여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 한편, 변발과 문자의 옥을 통해 청에 대한 저항심을 강하게 억누르는 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은 팔기 제도를 통해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는데, 팔기에 속한 기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세습 특권층으로 각종 혜택을 받았다. 한인 신사층은 지방관을 도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40쪽) 청은 ... 안으로는 한족 신사에 대한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용하여 중국 지배를 안정시켰고 ... 이로써 청은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 민족을 아우르는 다민족의 대제국이 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8쪽) 소수의 이민족이 세운 왕조인 청은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먼저 한족에 대한 강압책을 실시하여 한족에게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였으며, 한족의 중화사상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변발을 하라는 명령에 따르는 자는 우리(청 왕조)의 백성으로 여기지만,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자는 황제의 명을 위반한 반역자이다.” 라며 처벌하였다. 그러나 청은 한족의 협조를 얻기 위한 유화책도 시행하였다. 청은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고 명의 통치 조직을 모방하였다. 주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2명 임명하였고(만•한 병용제), **군제에서도 만주족의 팔기 외에 몽골 팔기와 한족 팔기를 두고, 한족으로 구성된 녹영을 설치**하여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한족 학자를 우대하였다. 특히, 명대의 지배층인 신사가 지니고 있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학교•과거제의 문호를 더욱 넓혀 한족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 청은 한족에 대해 강압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이민족이 세운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99쪽) 청은 만주족과 몽골 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청은 만주족 우위의 지배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족은 군현제를 통해 직접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등 주변 지역과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다. (200쪽) 청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다. 한족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한족 학자를 우대하였으며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중요 관직에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여 한족 관리도 고위직에 등용하였다. 그러나 변발과 호복 등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하였고, 문

			자옥으로 강력하게 사상을 탄압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3쪽) 청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하여 변발, 호복 등의 만주 풍습을 한족에게 강요하고, 문자의 옥을 단행하여 사상을 탄압하였다. 반면, 한족 학자를 우대하고, 향촌 사회를 지배하던 신사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여 한인 관리를 등용하고, 투항한 한인 병사를 중심으로 녹영을 편성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회유책도 시행하였다. **청의 군사 조직은 만주 팔기군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한인 팔기군과 몽골 팔기군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청은 **만주족과 한족이 공존하는**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1쪽) 청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한족의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중요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임명하고(만한 병용제), 과거제를 시행하여 한족을 대거 등용하였다. 반면, 만주족의 풍습이었던 변발을 한족에게 강제하고, 반만주족·반청의 논조가 포함된 서적은 모두 금서로 지정하여, 저술하거나 유포하는 자를 가혹하게 탄압하였다(문자의 옥).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39쪽) 청은 중원을 차지한 이후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용하였다. 멸망한 명 황실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한편 변발을 강요하고 반청 운동을 진압하였다. 또 반청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64쪽) 청은 중앙의 고위 관직에 만주인과 한인을 병용하는 정책을 취하였지만, 황제 독재 체제를 비롯하여 명대의 제도와 사회 체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한족 관료와 사대부 등에게 종래의 특권을 인정하여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주자학을 정통 교학으로 인정하고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유교와 전통 사회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은 변발령과 문자의 옥을 통해 한족의 저항 의식을 억누르는 강경책으로 만주족의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165쪽) 청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은 팔기 제도이다. 팔기제도는 누르하치가 여진족 사회를 군사적으로 재편하여 만들었다. 팔기에 속한 기인에는 몽골 족과 한족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우대를 받는 세습 특권층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체제를 만들어 강력한 황제의 전제 권력을 성립시켰다.

<표 8>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청의 5대 황제인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황제권을 강화했고,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현제를 실시해 한족을 직접 지배했다. 티베트와 몽골 등의 주변부와 소수민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를 시행하며 만주족의

풍속인 호복과 변발을 강요했다. 그리고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서 금서를 지정하고 문자의 옥을 일으키는 등 강경책을 실행했다. 반면 유교 문화를 존중하여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했고, 고위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여(만한병용제) 명대의 지배층인 신사층을 포섭했다. 그리고 군제에서도 한족으로 구성된 녹영(綠營)을 편성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했고, 만주족 중심이었던 팔기군에 한인 팔기군과 몽골 팔기군을 두는 등 만주족 이외의 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

이렇듯 청의 중국 지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나라 시대와 달리 여러 민족 간의 융합을 실현한 것이다. 청은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강유병행(剛柔竝行)정책을 실시하여 민족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켰고, 민심을 차차 안정시켰다.

그런데 <표 8>의 2007(2009) 개정부터 2015 개정까지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소략하거나 상세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서술되고 있는데,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서술이 아예 없거나 매우 소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이 없는 경우는 2011 개정 시기의 천재교육, 비상교육, 교학사 <동아시아> 교과서 중 교학사 교과서 1종, 2015 개정 시기에는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 4종 중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 3종의 경우이다. 이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학습목표가 달라서이다.

반면, 1차부터 7차 교육개정까지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수로나 문화면으로 보아 가장 우세한 한족”이라고 표현했고,[86] 4차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는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청은”,[87] 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청은 문화 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은 한인들을 통치하기 위

86) 『세계사』, 을유문화사, 1971, 168쪽.
87) 『세계사』, 보진재, 1985, 144쪽.

해”[88]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변화를 보인다. 교학사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중국 통치에 한인의 협력이 필요했으므로 중앙 요직의 정원을 한만 통수로 하는 등 병용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회유책과 강경책을 병용함으로써 청의 중국 통치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의 원과 비교하여 대단히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89]라고 서술하여 다민족 국가인 청의 민족융합 정책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의 다민족 지배 정책에 대해 한족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하던 기조는 7차 교육과정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왕안석 개혁과 장거정 개혁

북송시기 왕안석의 개혁과 명나라 시기 장거정의 개혁은 중국 고대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개혁이었다. 이 두 차례의 개혁은 행정과 세제, 군비의 개혁을 통해 국고를 든든히 하고, 사회와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두 차례 개혁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내용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왕안석 개혁과 장거정 개혁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 고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혁 운동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88) 『세계사』, 지학사, 1989, 211쪽.
89) 『세계사』, 교학사, 2003, 180쪽.

3.2.1.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분석

1068년 신종이 즉위할 당시, 송은 개국 백년이 지나면서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관료의 부패로 국가 재정난이 심화되었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방 변경지역에서는 요와 서하의 잦은 침략으로 서하와 북송 사이에 군사적 마찰이 잦아지며 군비의 지출이 늘어났다. 위기를 느낀 송은 매년 요와 서하에 대량의 세폐 등을 바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도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종은 적빈적약(積貧積弱)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1069년에 왕안석을 참제정사(參制政事)로 임명하여 개혁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왕안석 개혁은 부국책과 강병책 두 가지 방면에 집중됐고,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 상황을 완화하고 국방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의 실행은 부상(富商)과 지주 계급, 그리고 정부 내 보수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개혁에 반대하는 구법당 간의 당쟁으로 이어졌다.[90]

(1)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왕안석 개혁의 서술 내용 분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금성: 7, 미래엔: 6,	금성: 서술 없음, 미래엔: 4,

90) 이춘식, 위의 책, 259-261쪽 참고.

(2015~)	비상: 8, 천재: 8	비상: 서술 없음, 천재: 5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6, 금성: 5, 비상: 5, 천재: 5	교학사: 5, 비상: 10, 천재: 5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8, 금성: 7, 더텍스트: 11, 천재: 15	교학사: 서술 없음, 천재 : 서술 없음
제7차 (1997~2007)	교학사: 5	--
제6차 (1992~1997)	금성: 7	--
제5차 (1987~1992)	지학사: 16	--
제4차 (1982~1987)	보진재: 11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10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14	--
제1차 (1954~1963)	일조각: 19	--

<표 9>에서 보듯이 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에서는 왕안석 개혁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5차 교육과정 시기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후로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서술 분량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세계사> 과목의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세계사>의 경우 세계사 발전에 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고, 중학교 <세계사>는 사회와 세계의 기초적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구분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 주제가 해당되는 "아시아 세계의 형성"에서는 "중국의 분열과 통일(위, 진, 남북조~송, 원)"의 내용을 서술하도록 했다.[91] 그러므로 송나라 시기 중요한 사회개혁이었던 왕안석 개혁은 간략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2007(2009) 개정 시기에 신설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왕안석 개

91)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부, 1992, 100쪽.

혁에 관해 서술이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도 <동아시아사> 교육의 목표인 '공존'과 '평화'에 크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왕안석 개혁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왕안석 개혁에 대해 배경, 내용, 평가에 관해 서술했다. 이에 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왕안석 개혁의 배경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8쪽)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한 틈을 타 북방 민족 국가인 요(거란), 서하 등이 송을 압박하였다. 송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해마다 요, 서하에 보내는 **세폐 부담까지 더해져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6쪽)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북방 민족이 세운 요, 서하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었고, 이들에게 은과 비단 등을 **세폐로 바쳐 재정이 악화**되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0쪽)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약화된 송은 북방 민족과 갈등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협정을 맺어 **북방 민족에게 물자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중앙 집권화 추진**으로 관리 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9쪽)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하자, 북방의 유목 민족인 요와 서하가 송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송은 군사적 대응보다 평화 협정을 맺는 대가로 **막대한 세폐를 지급**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문치주의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송은 거란(요), 서하, 금 등에 군사적인 열세를 보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6쪽)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을 약화시켜 북방 유목 민족의 공격을 불러왔다. 송은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과 세폐 부담이 더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9쪽)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방 유목 민족인 요, 서하 등이 송을 압박하였다. 송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물자 제공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져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2쪽) 송의 중앙 집권 정책은 관리를 양산하고 지방군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들 틈타 요, 서하 등이 송을 침략하자 **물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하여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2쪽) 송은 오랫동안 거란(요)•서하와 전쟁을 벌이면서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3쪽)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중앙 집권화에는 유용하였지만, 군사력을 약화시켜 유목 민족의 침입을 불러왔다. 유목 민족의 남하를 막기 위한 **군사비**와 관료 집단의 유지 비용으로 **매년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4쪽) 태조(조광윤)는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병권을 황제에 집중시키고, 지방의 주요 관리를 모두 문인으로 임명하는 등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황제를 정점으로 한 군주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시기 문인이 대거 관리로 등용되기 시작했는데, 송대 이러한 계층을 사대부라고 한다. 한편, **사대부의 수**가 점차 늘어나자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무리를 지어 붕당이 형성되었다. 송은 북방 민족과의 대결에 따른 **군사비 지출, 막대한 세폐 지급, 관료 수 증가로 점차 재정이 악화되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1쪽) 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군사력이 약화되어 유목 민족 국가들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를 틈타 요, 하 등이 송을 침략하자, 송은 이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여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15쪽)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을 약화시켜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을 불러왔다. 먼저, 요가 화북 지역을 점령하며 송을 압박하였다. 송은 요와 화친을 맺고 매년 상당한 양의 비단과 은을 보냈다. 또, 송은 서북 지역의 서하와 전쟁을 치러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송은

			이민족에 대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세폐 부담이 더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5쪽)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국방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를 틈타 북방 유목 민족인 요, 서하 등은 송을 침략하고 **막대한 물자를 요구**하였다. 송은 요구를 들어주고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99쪽) 송의 강력한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북방 민족인 요와 서하의 침략을 받았다. 송은 북방 민족과 강화 조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을 보내야 했다.** 또한, **관리의 수**가 늘어나고 군대 유지비가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크게 약화**되었다. 송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크게 늘렸지만, 대지주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중•소 농민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5쪽) 송은 유목민 국가들의 침입에 계속 시달리다 결국 몽골에 정복당하였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문치주의였다. 송 황제는 당 말기 절도사들의 지방 세력화를 거울삼아 끝내 무인들에게 지휘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지휘권을 위임받지 못한 무인들은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왕안석 개혁의 목적은 생산발전, 부국강병, 정치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왕안석 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송나라 중기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면서이다. <표 10>에서 정리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왕안석 개혁의 배경에 관해 송이 문치주의를 실시함으로서 국방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요, 서하의 침입에 굴복한 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물자를 세폐를 지급하면서 국가의 재정난을 초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송의 상황이 적빈적약하게 된 원인에 대해 모든 서술에서 문치주의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07(2009) 개정 시기 더텍스트와 2015 개정 시기

비상교육 출판사에서 출판된 <세계사>에서는 중앙집권화로 인한 방대한 관료기구의 운영으로 관리의 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난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서술했고, 더텍스트의 교과서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대지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중·소 농민들에게 떠넘기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 점도 서술하였다. 또한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의 <동아시아사>에서는 문치주의로 관리가 대거 늘어나면서 사대부가 무리를 지어 붕당이 형성된 점도 송나라 혼란의 배경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악화된 국가의 재정난을 개선하고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나 개혁 추진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구법당파는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당쟁이 격화되자 신종의 개혁 의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급기야 개혁을 위해 자신이 임명한 왕안석마저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 신종은 왕안석을 파면하였고 개혁은 좌절되었다.

1085년 신종이 사망한 후 즉위한 철종은 왕안석이 추진했던 개혁을 대부분 폐지했다.[92] 이로서 왕안석 개혁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실패한 왕안석 개혁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왕안석 개혁의 평가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8쪽)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의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 정치(신법)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보수파 관료(구법당)와 대지주, 대상인층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당쟁**이 벌어져 국력은 더욱 약화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6쪽) (왕안석 변법) 이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국방력 강화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개혁(신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정적인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구법당과 찬성하는 신법당 사이에 **당쟁**이 심화되었다.

92) 이춘식, 위의 책, 261-262쪽 참고.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9쪽) 송의 신종은 재정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왕안석은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목표로 신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재정이 개선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며 상공업이 진흥되었다.** 그러나 신법으로 손해를 보게 된 지주와 대상인, 보수파(구법당) 관리들이 반발하여 **신법은 실패하였다.**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당쟁**이 벌어져 송의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0쪽) 신종은 왕안석을 재상으로 등용했고, 왕안석은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 정책(신법)을 추진하였다. ‘신법’은 농민이나 소상인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민병을 양성하고 농가에서 군마를 기르게 하는 등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마광을 대표로 하는 보수적인 관료(구법당)와 대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은 실패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11세기 중엽 왕안석이 등장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쟁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후 송은 금의 침공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6쪽) 왕안석이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된 후 재정이 개선되고 상공업이 진흥되었으나**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지주와 대상인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신법을 반대하는 구법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개혁은 실패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9쪽)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정치(신법)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보수파 관료(구법당)와 대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은 실패하였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당쟁**이 벌어져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3쪽) 신종 때 왕안석이 재정과 군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정치(신법)를 실행하였으나 보수파(구법당)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후 송은 구법당과 신법당의 **당쟁**에 휘말렸으며, 신법 또한 오로지 조세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하여 국력이 약화되고 농민들의 불만이 심해졌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3쪽)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 후반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 정치(신법)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사마광 등의 ‘구법당’이 왕안석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였고

			신종이 죽은 후에는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신법을 폐지하였다. 그 후 북송 말까지 신법당과 구법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며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력이 크게 낭비되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4쪽) 송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의 확대를 꾀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왕안석의 개혁은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층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이후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송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4쪽)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자 정국은 신법당과 이를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구법당의 반대로 신법은 실패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1쪽) 왕안석은 재정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신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국력이 더욱 약해졌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15쪽) 왕안석이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5쪽)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 정치(신법)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려던 이 개혁은 사마광을 비롯한 보수파 관료(구법당)와 대지주층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치열한 **당쟁**이 벌어져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99쪽)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왕안석은 대상인과 대지주의 착취를 막아 자영농과 중•소 상인을 육성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썼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수파 관료와 대지주층의 반대로 개혁은 실패하였다. 그 후 송은 왕안석의 개혁을 지지하였던 신법당과 이에 반대하였던 구법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5쪽) 왕안석의 개혁 정치는 11세기 후반에 실시되었다. 이 개혁의 직접적 목적은 재정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행정•사회 개혁을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국방비였는데, 송의 군인 수가 점점 늘어나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신법이 시행된 후 재정이 크게 개선되고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이 진흥되었다. 하지만, 농민 부담의 경감이란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신종이 죽고 이른바 ‘구법당’ 이 정권을 장악하자, 신법은 폐지되었다. 그 후 북송 말까지 신법당과 구법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하며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국력이 크게 낭비되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서술 없음

		교육과정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표 11>에서 정리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왕안석 개혁의 결과에 관한 서술은 두 가지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첫째, 왕안석 개혁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범당한 대지주, 대상인, 보수파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라는 점과 두번째로는 왕안석 개혁으로 일어난 당쟁은 결국 송의 국력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1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1차, 2차 교육과정 시기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왕안석 개혁에 대해 '너무나 이상에 치우치다'라거나 '무리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93]

3.2.2.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분석

명나라 중기, 환관의 득세로 정치는 혼란했고 부패는 심해졌다. 게다가 귀족 대지주의 탈세로 국고는 비어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 조정은 세금을 과하게 거두었고,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변경 지역의 위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북방의 몽골족과 왜구는 빈번하게 명나라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었다.

1572년 10살 나이의 만력제 신종이 즉위하였다. 대학사인 장거정은 어린 나이의 신종을 보좌하기 시작했는데,[94] 그는 정치, 경제, 국방 등 여러

93) 『세계사』, 일조각, 1956, 96쪽; 『세계사』, 을유문화사, 1971, 102쪽.
94) 이춘식, 위의 책, 347~355쪽 참고.

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장거정 개혁이라고 한다. 장거정 개혁은 상앙 개혁, 왕안석 개혁과 함께 중국 고대의 3대 사회개혁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장거정 개혁의 서술 내용 분량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개정 (2015~)	금성: 5, 미래엔: 4, 비상: 5, 천재: 3	금성: 5, 미래엔: 7, 비상: 10, 천재: 11
2011개정 (2011~2015)	교학사: 3, 금성: 5, 비상: 6, 천재: 서술 없음	교학사: 6, 비상: 8, 천재: 9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4, 금성: 6, 더텍스트: 4, 천재: 서술 없음	교학사: 서술 없음, 천재: 11
제7차 (1997~2007)	교학사: 5	--
제6차 (1992~1997)	금성: 5	--
제5차 (1987~1992)	지학사: 5	--
제4차 (1982~1987)	보진재: 8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서술 없음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서술 없음	--
제1차 (1954~1963)	일조각: 서술 없음	--

<표 12>에서 정리한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분량을 보면 4차 교육과정 시기 <세계사> 부터 장거정 개혁의 내용이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서술 분량은 비교적 균일한 편이다. 4차 교육과정

시기 보진재에서 출판된 <세계사>에 서술된 장거정 개혁은 ‘개혁’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전후 사건을 연결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서술되었다. 이 후에 출판된 대부분의 <세계사> 교과서 서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2007(2009) 개정 시기의 서술보다 그 이후의 서술이 다소 증가된 것이 확인된다. 특히 2015 개정 시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집필기준의 학습 요소에서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과정은 전쟁의 원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사건, 사실, 인물, 사례 등 핵심 내용을 선정하여 서술한다.”[95]라고 제시하고 있어 임진왜란 직전 명나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거정 개혁에 관해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장거정 개혁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장거정 개혁의 서술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나는 장거정 개혁의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장거정 개혁의 내용과 평가이다. 교과서에서 장거정 개혁을 일으킨 배경에 대한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장거정의 배경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9쪽) 명은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밑에서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하였다.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북로남왜)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다.

95) 「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 2015, 114쪽.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7쪽) 영락제 사후 명의 북쪽에서는 몽골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자주 침입하였고(북로남왜), 환관이 득세하면서 명은 쇠퇴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영락제 이후 황제의 측근에 있던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가 명을 수시로 침략하자(북로남왜), 이를 막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0쪽) 명은 만리장성을 새로 쌓고 해금 정책을 강화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8쪽) 명은 토목보의 변 이후 몽골 세력의 침입을 막고자 만리장성 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들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6쪽) 명은 북쪽의 몽골과 동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명은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환관과 당쟁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7쪽) 16세기경 명에서는 환관들이 득세하여 정치가 부패해지고 이갑제 중심의 향촌 질서가 해체되는 등 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몽골의 일파인 타타르와 오이라트가 국경을 침범하고, 동남쪽에서는 명의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왜구가 침략하여 사회가 더욱 혼란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7쪽) 명은 몽골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15세기 이래로 계속 몽골의 압박을 받았다. 몽골은 한때 명의 황제를 생포하고(토목보의 변), 베이징 성문까지 진격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명은 이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다시 축조하였다. 동남 해안에서는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을 막느라 명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환관 세력이 득세하여 정치가 부패하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어 국가의 기틀이 크게 흔들렸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3쪽) 영락제 사망 이후 환관이 득세하고,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가 자주 침입해 오면서 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2쪽) 명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아래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다.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북로남왜)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엿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2쪽) 명 중기 이후 환관의 정치 개입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몽골 족과 왜구의 침략을 막느라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09쪽) 16세기 초•중반 이후 명의 내정은 불안정하였다. 정덕제는 정치에 뜻을 잃고 환관과 유희를 일삼았으며, 가정제 또한 도교에 탐닉하여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 북방에서는 몽골의 알탄 칸이 수시로 명의 변경을 침략하였고, 남방에서는 왜구들이 발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24쪽) 명은 16세기 중엽 이후 북방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의 침략(북로남왜)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0쪽) 명은 중기 이후 정치가 부패하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는 등 크게 흔들렸다. 잇따른 몽골의 침략과 왜구의 약탈도 국력을 소모시켰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7쪽) 영락제 사후 환관들이 득세하면서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고, 북쪽의 몽골과 동남해안의 왜구가 자주 침입해 오면서 명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98쪽) 명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의 방관 아래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다. 북쪽의 몽골과 동남해안에서 왜구를 비롯하여(북로남왜)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점차 위협을 가해 왔고, 만리장성 보수와 임진왜란 때 조선 출병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1쪽) 영락제 이후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명은 몽골 족과 왜구(북로남왜: 北虜南倭)의 지속적인 침입을 막아 내면서 국방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여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32쪽) 명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북방의 몽골에 대해 점차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만리장성을 쌓아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다시 남쪽을 침범하였고, 1550년에는 베이징을 며칠 동안 포위하는 등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 무렵 왜구도 명의 동남 해안에서 잇따른 약탈을 저질렀다. 두 세력의 침입은 특히 16세기 중엽에 명의 국력을 크게 소모하는 원인이 되었다.

〈표 13〉에서 보듯이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는 장거정 개혁의 배경에 대해 명나라 중기부터 재정난이 심해진 것을 서술하고, 이러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거정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세계사>와 비교하여 서술 분량이 다소 많은 <동아시아사>에서는 장거정 개혁에 대해 정치와 국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였다. 토지 겸병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은 탈세를 일삼았고, 그로인한 국고의 손실을 백성들에게 과중하게 징세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졌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황제들의 무능과 환관들의 득세도 서술하였다.

다음은 장거정 개혁의 내용과 평가에 교과서 서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14> 장거정 개혁의 내용과 평가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9쪽) 16세기 후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일조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으나**, 그의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7쪽) 명 말기 이갑제가 무너지면서 내각 대학사 장거정이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력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거정은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조편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후에 환관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0쪽)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행된 16세기 후반 장거정의 재정 개혁과 기강 확립으로 명은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8쪽) 만력제 때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를 줄였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 시행하던 일조편법을 확대하여 재정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장거정 사후 관료들이 개혁에 반발하고, 환관들의 부패와 권력 남발이 또다시 커지면서 정치 혼란이 심해졌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6쪽) 이러한 상황에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몽골 세력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환관 세력이 다시 대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7쪽) 이러한 상황에서 재상이 된 장거정은 **정치•경제 등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북쪽의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를 절감하는 한편, 만리장성 부근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으며, 남쪽의 왜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관료들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재정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후 다시 환관 세력이 득세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해졌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87쪽)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한 장거정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토지 조사를 하였으며,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이 호전되는 등 중흥의 기운이 나타났다.** 하지만 장거정이 죽은 뒤 그동안 억눌렸던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3쪽) 명 말기에 장거정의 **개혁으로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으나**,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 원병을 보내면서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2쪽) 16세기 후반에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어 오던 일조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비상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2쪽) 장거정은 관리의 근무 평정, 토지 측량, 일조편법 등의 개혁을 시도하여 명의 정치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후에 환관이 권한을 휘두르고 당파 싸움이 심해진 데다 임진왜란 참전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환관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었다. 이어 농민들이 각지에서 저항하였고, 결국 명은 이장성의 군대에게 멸망하였다(1644).
천재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09쪽) 16세기 후반 장거정이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명의 재정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비상	동아시	2011 개정	(124쪽) 이러한 상황에서 장거정이 권력을 장악하고 과감

교육	아사	교육과정	한 혁신 정치를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를 절감하고 변방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안으로는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황제권을 강화시켰으며, 관청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였다. 특히, 균형 있는 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혁(일조편법)을 단행하여 국가의 재정을 튼실히 하였다.** 하지만 장거정 사후 중앙 관료들과 지방의 신사층이 장거정의 혁신 정치에 반기를 들자, 정치는 점차 문란해지고 농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0쪽) 내각의 책임자가 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토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일조편법은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 명에서는 관료들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재정이 호전되는 등 중흥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그동안 억눌렸던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환관 세력이 다시 발호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7쪽) 만력제 때 장거정의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이 회복되었으나,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 원병을 보내면서 재정이 더욱 궁핍해졌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98쪽) 16세기 후반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일조편법을 실시하여 세제를 개편하는 등 강력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해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잇따랐고,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은 멸망하였다(1644).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1쪽) 장거정이 토지 조사와 일조편법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동아시 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32쪽) 이러한 상황에서 장거정이 등장하여 국정을 쇄신하고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탈세를 방지하고 균등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여 명의 재정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하지만 그가 죽자 그동안 억눌렸던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뒤이어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명은 급속하게 쇠약해졌다.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시기의 한국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장거정 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교육계가 장거정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개혁정책과 개혁의 효과에서 평가한 것으로 개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자지고 있으며 장거정이 사망한 후 다시 한 번 정치적 혼란과 재정난에 빠지는 내용이나 개혁 중에 국가 재정이 개선되었고 국력이 회복되는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4차, 5차, 6차 교육과정 시기 객관적인 측면에서 장거정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다.[96]

또 다른 하나는 국가 차원의 발전에서 볼 때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였다. 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 금성출판사에서 출판된 <세계사>에서는 장거정 개혁을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평가하였다.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명조의 국력이 쇠퇴해지는 것을 개변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거정 개혁은 '실패'로 평가하였다. 또한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더텍스트에서 출판된 <세계사>와 7차 교육과정과의 <세계사> 평가는 직접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라는 부정적인 서술 방식으로 평가하였다.[9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장거정 개혁 추진 시기에 이룬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비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장거정 개혁의 실제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서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장거정

96) 『세계사』, 보진재, 1985, 139쪽; 『세계사』, 지학사, 1989, 207쪽;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223쪽.
97) 『세계사』, 교학사, 2003, 178쪽; 『세계사』, 더텍스트, 2012, 141쪽.

개혁의 재정방면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으며 국방, 내정 방면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장거정 개혁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개혁한 것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3. 성리학과 양명학

춘추시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유교사상은 한나라 시기의 관학 사상으로 당시 주류의 정치와 윤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위진남북조시기에 불교와 도교가 민간에 전파되며 성행하자 유학의 독존 지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송나라시기에 이르러 유학은 혁신을 시도하였는데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수용하여 유교의 교리로 해석한 후 이를 핵심으로 신유학체계인 성리학으로 발전되었고 이후 일본과 조선에 전파되었다.

남송 시기 육구연은 성리학과 대립되는 심즉리 학설을 주장하였고 명대에 이르러 왕양명이 육구연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양명학이 형성되었다.

이 절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성리학과 양명학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량과 구체적인 서술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3.1. 성리학에 관한 서술 분석

성리학은 송학(宋學), 주자학(朱子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체로 개창기, 발전기, 집대성기 세 개 단계로 나뉜다. 개창기는 주돈이(周敦頤)가 창

조한 <태극도설>에서 출발하여 성리학의 논리적인 철학 체계를 다지는 기초가 되었다.[98] 그 후 북송시기의 정호(程顥)와 정이(程頤)형제는 성리학에 ‘이(理)’ 중심의 이론을 확립하였다.[99] 마지막으로 주희(朱熹)가 집대성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수립하였다. 성리학은 통치계급의 정치 수요에 적응하여 남송 이후 장기간 통치 지위의 관방 철학으로 활용되었고 그 뒤로 주희가 저술한 <사서집주(四書集註)>가 과거 시험의 표준 교재로 활용되어 통치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식적인 사상이 되었다.

(1) 성리학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성리학에 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성리학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3, 미래엔: 6, 비상: 8, 천재: 7	금성: 16, 미래엔: 18, 비상: 13, 천재: 28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6, 금성: 4, 비상: 7, 천재: 8	교학사: 26, 비상: 25, 천재: 16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4, 금성: 4, 더텍스트: 5, 천재: 9	교학사: 29, 천재: 10
제7차 (1997~2007)	교학사: 3	--
제6차 (1992~1997)	금성: 5	--
제5차 (1987~1992)	지학사: 6	--

98)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Ⅲ - 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 지식사업사, 2018, 207쪽.
99)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위의 책, 211쪽.

제4차 (1982~1987)	보진재: 8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6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13	--
제1차 (1954~1963)	일조각: 8	--

<표 15>에 정리된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성리학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2차 교육과정에서 서술 분량이 3차 교육과정에 비해 2배 정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있다. 여기서 2차 교육과정 시기 서술 분량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61년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1963년 10월 15일 제5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민은 국가의 건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100] 유교사상을 내세워 단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할 것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1] 그리하여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2차 교육과정에서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 소질을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역사적 현실에서 사명을 지각하는 국민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102]

한국에 유입된 성리학은 한국의 기존 사상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교사상은 권위와 통제, 주종관계를 중시하고 성리학은 왕과 공신 간의 도의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론은 박정희가 전제 통치를

100) 『월간조선』, 「朴正熙의 제5대 대통령 취임사(1963년 12월 17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301100024&page=25), 접속일자: 2019.11.24.
101) 黄光国, 「“道”与“君子”：儒家的自我修养论」, 『华中师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53（3）, 2014, 166~176쪽.
102) 김홍주, 위의 책, 218쪽.

실행하기 위한 합리성을 제공하는 이론이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유교사상은 박정희 정권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유교사상의 중요한 학설의 하나인 성리학도 중시를 받게 되었다. 독재 통치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 발행된 〈세계사〉에 성리학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평균 서술 분량은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성리학은 각 시기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각 시기별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집필기준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로 규정되었다.

(2) 성리학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1차 교육과정 시기로부터 2015 개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성리학에 관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동일 출판사의 경우 연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서술의 주된 내용은 성리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성리학 흥기의 배경과 성리학의 정치, 윤리사상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16〉은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성리학 흥기의 배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성리학 형성의 배경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0쪽) 송대에는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하면서 경전의 자구 해석에만 치중한 훈고학을 대신하여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주자학)으로 집대성되었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9쪽) 송대에는 과거제의 발달에 따라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료가 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사상이 발전하였다. 유학에서는 남송대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송대에 학교가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되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는 한편,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서 소작인을 통해 농사를 지었다.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하면서 송의 유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측면이 발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송의 주희는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0쪽) 송대에는 문치주의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에 학교와 서원이 많이 증가하고 목판 인쇄술이 보급되어 서적이 대중화되었다. 아울러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세습적 특권에 의존하던 문벌 귀족과 달리 유학적 소양과 과거제를 기반으로 관료로 진출했으며, 공적인 책임 의식이 강하였다. 당시 사대부는 대중적으로 퍼진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고, 남송의 주희가 이를 성리학(주자학)으로 집대성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4쪽) 5대 10국을 거쳐 송대에는 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대부가 지배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였고,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한편 송은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 민족의 군사적 압박에 대해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중화사상으로 대응하였다. 동시에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였다. 주희는 이를 정리하여 성리학으로 집대성하였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사대부가 지배층이 되자 유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대 이후 유학에서는 경전의 자구를 해석하는 데 치중한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수•당 대를 거치며 불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북송 시기에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신유학이 대두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6쪽) 송대에는 각종 학교가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되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사대부는 유학 연구를 심화시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이

			러한 학풍은 남송의 주희에 의해 성리학(주자학)으로 집대성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0쪽)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하면서 인간 심성과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되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86쪽) 송대에 과거 출신 관료가 더욱 우대되면서 새로운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다. 사대부는 귀족과 달리 출신과 관계없이 과거에 합격하여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유교 지식을 익혀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치에 강한 관심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대부라는 지식계층의 형성과 학교 제도의 발달은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유학 기풍이 발달하여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주자학)이 발달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5쪽) 송대에는 서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가 세워졌다. 송대 사대부들은 불교와 도교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만들어 이를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0쪽) 유학은 송대에 이르러 정치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였다. 관료의 상당수를 과거로 뽑았기 때문에 사회 지배층에게 유학 지식은 필수적이었다. 송대 사대부들은 범중엄이 “천하 백성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며, 천하 백성들이 모두 즐긴 후에야 즐거워한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였다. (91쪽) 그러나 사대부 앞에 펼쳐진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송은 거란의 강한 군사력에 눌려 매년 비단과 은을 보내야 하였다. 또한 금이 화베이 지방을 차지하자 중원을 잃고 화이허 강 이남으로 쫓겨났으며, 금의 신하를 자처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론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중화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한편, 도교와 불교를 극복하는 것도 송대 유학자들의 과제였다. 이들은 도교•불교의 형이상학적 측면에 자극받아 우주의 원리와 세계의 본질 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희가 유학 사상을 형이상학의 체계로 종합한 것이 성리학이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00쪽) 송대에 들어 사회, 경제적 변화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당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을 배경으로 신흥 지주층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과거를 통해 사대부 계층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유학은 과거 시험 준비와 사대부 계층의 교양을 위한 필수적인 학문이었다. (101쪽) 송대에는 국방력 약화로 북방 민족인 요, 금, 서하 등에 세폐를 바쳐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대부들은 북방 민족에 대한

			정신적인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강력한 중화사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한•당 시기의 훈고학적 유학에서 벗어나 화이관을 바탕으로 관념화된 새로운 유학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측면은 유학을 자극하여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닌 우주의 원리와 세계의 본질에 관한 탐구로 시야를 넓혀 놓았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23쪽) **사대부는 지구 해석에 치우친 훈고학에서 벗어나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학풍은 남송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어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 불린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6쪽) **송대 사대부는 유학을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 연구를 심화시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되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1쪽) 송의 지배층은 사대부였다. 이들은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하였고, 지주로서 소작농(전호)에게 자신의 토지를 경작시켰다. **사대부는 자구의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7쪽) **송대에 들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학이 출현하였다. 한대부터 당 대까지의 유학은 자구를 해석하는 훈고학이 중심이었으나, 송대에 들어서는 사상으로서의 활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이에 유학자들이 불교와 도교의 장점, 특히 형이상학적인 면들을 흡수하여 이른바 ‘신유학’ 을 만들었다. 신유학의 특징은 우주와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 한 것이다. 이는 만물에 내재한다는 성과 동일시되었다. 이에 ‘성즉리’ 라는 명제가 제시되었고, 그 탐구 방법론으로 격물치지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이를 추구하는 학문을 폭넓게 이학이라 하고, 또 성즉리라는 말에서 성리학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2쪽) 유학은 송대에 이르러 정치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였다. 관료의 상당수를 과거를 통해 뽑았기 때문에, 관료가 되기 위해서 사회 지배층에게 유학 지식은 필수적이었다. 송대 사대부인 범중엄이 “천하 백성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며, 천하 백성들이 모두 즐긴 후에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사대부들은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대부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송은 5대 10국 이래 거란의 강한 군사력에 눌려 매년 비단과 은을 보내야 했다. 나아가 금이 화북을 차지하자 중원을 잃고 화이허 강 이남으로 쫓겨났으며, 송 황제는

			금 황제의 신하로 자처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중화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한편, 도교와 불교를 극복하는 것도 송대 유학자들의 과제였다. 불교•도교의 형이상학적 측면에 자극받아 우주의 원리와 세계의 본질 등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희가 유학 사상을 형이상학의 체계로 종합한 것이 성리학이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20쪽) 송대에는 유학에, 불교적인 논리 체제를 수용하고 종교적 실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신유학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이 출현하였다. 한편, 송대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법이 보급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면서 신흥 지주층의 세력이 커졌는데, 성리학은 이러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논리이기도 하였다. 성리학은 유교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는데, 경전을 학습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지주층은 과거를 통해 관료가 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16〉에 정리된 교과서 가운데 〈세계사〉에서는 성리학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서술 내용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시기의 대부분의 〈세계사〉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사대부의 출현과 성리학이 형성된 배경, 그리고 사대부와 성리학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성리학 발전의 주요원인인 사대부 계층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였다. 2015 개정 시기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세계사〉에서는 송나라시기 문신을 중용하고 과거제도를 통해 관원을 선발하는 주요 방식이 되었으며 이로서 유학 사상을 겸비한 사대부들이 과거시험을 통과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즉 송나라시기에 과거시험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유학을 배움으로써 유학이 전승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성리학의 형성에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송의 과거제도는 성리학을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의 〈세계사〉에서는 이상에서 서술된 분석 내

용을 기초로 송나라의 교육과 학교제도를 성리학 형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서술하였다. 이 밖에도 2007(2009) 개정 시기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세계사〉에서는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한나라 이후 훈고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이 송나라의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송나라시기에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이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성리학의 형성에 대해 〈세계사〉에서의 성리학 형성의 원인과 다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에서 서술한 특징은 넓은 시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비상교육에서는 송의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사대부 계층의 성장 원인을 분석하고 송의 과거제도가 유학의 발전을 촉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과 북방 민족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성리학의 형성이 당시 사회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 출판 교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였고 그 서술 내용은 2011 개정 시기 교학사 출판 교재에 기술된 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103] 그리고 2007(2009) 개정 시기 그 이전의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성리학 형성 배경에 대한 기술이 많지 않았다.

송의 사대부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도의를 근본으로 정하여 불교와 도교 양교 이론을 도전하여 타민족이 조성한 국치와 국난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송학은 우주생성의 도리와 인류의 본성에 대해 규명하고 유학의 실천과제로 대의명분과 군신부자관계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은 송 독재 군주체제 사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사상으로 되었다. 성리학은 조선, 일본에 전파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성리학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 표와 같았다.

---

103)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102쪽.

〈표 17〉 성리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0쪽) 성리학은 군신, 부자, 지주•전호 등 상하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명분론과 화이론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49쪽)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 탐구에 집중하였으며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군신, 부자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또한 북방 민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화이론을 내세웠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54쪽) 성리학은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 질서의 수립을 중시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한편 성리학이 등장할 무렵 송은 요와 금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성리학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화이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대의명분이 강조되었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이 국제 관계로 확장되면서 화이론이 강화되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7쪽) 금이 남송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져 성리학에서도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76쪽) 성리학은 군신 사이의 원리와 대의명분을 강조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0쪽) 성리학은 군신, 부자 사이의 의리,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5쪽) 성리학은 특히 군신과 부자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결국, **성리학은 황제권을 지**

			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화이론을 더욱 강화하여 북방 민족의 압력에 대항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92쪽) 성리학의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 명분론이다. 명분론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발전시킨 것이다. 명분론은 현실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고 지위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정당화하였다. 명분론은 이민족과 중화의 차별을 강조하는 화이론적 명분론으로 발전하였다.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01쪽)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 논리는 분수론으로 확장되어 임금과 신하, 지주와 전호 간 지위의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하는 화이론이 더욱 강조되었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11쪽) 요•금이 성장하여 송을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져 성리학에서도 대의 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23쪽) 성리학은 군신 사이의 의리와 대의명분을 강조하여 사대부의 이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6쪽) 성리학은 특히, 군신, 부자 사이에 지켜야 할 의리,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1쪽) 주희가 완성한 성리학은 대의명분과 군신 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학문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배층의 정통 학문이자 통치 이념이 되었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7쪽) 성리학은 송대부터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대부층의 사상으로 **황제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3쪽) 성리학의 이념을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 명분론이다. 명분론은 '임금은 이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기질의 차이에 따른 현실의 상하 관계를 인정하고, 지위의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정당화하였다. 나아가 이민족과 중화의 차별을 강조하는 화이론적 명분론으로 발전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21쪽) 요•금이 성장하여 송을 압박하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성리학에서도 대의명분론과 화이관이 강조되었다.

<표 17>에서 정리된 교과서에서 성리학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았고 주로 화이론과 대의명분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시세(時勢)의 수요에 따라 성리학 중의 화이론, 대의명분론 등 이론이 정치, 외교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강조하였다. 2차 교육과정 시기 성리학에 대한 서술 내용이 가장 큰 특징이 있었다. "주자학은 ... 전통적인 실천 도덕을 강조하고 덕치주의·전통·권위 및 복종을 내세워 새로운 전제적인 관료제 국가에 적합한 정치 이념을 제공하였다."[104]라고 서술하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성리학은 정치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2차 교육과정 이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2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리학의 이론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2007(2009) 개정 시기의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세계사>와 2011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학사와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출판된 <세계사>는 국가 정체적 측면에서 성리학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하였는데 그 서술 내용은 첫째, 성리학이 군주봉건사회를 긍정하였다는 내용과 둘째, 전제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3.3.2. 양명학에 관한 서술 분석

양명학은 유교사상 중 하나의 학파로 명나라의 왕수인이 발전시킨 유교 학설이다. 왕수인은 송나라 육구원을 계승하여 '심즉리' 학설을 계승

104) 『세계사』, 을유문화사, 1971, 105쪽.

하여 '지행합일(知行合一)' 과 '치량설(致良說)' 을 주장하였다. 이 학설은 성리학과 상대적이다. 양명학은 명나라 중기 이후의 주류 학설 중의 하나로 일본에도 전파되었고 일본과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 양명학에 관한 서술 현황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양명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8> 양명학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개정 (2015~)	금성: 3, 미래엔: 3, 비상: 4, 천재: 4	금성: 6, 미래엔: 6, 비상: 2, 천재: 5
2011개정 (2011~2015)	금성: 3, 교학사: 4, 비상: 3, 천재: 3	교학사: 6, 비상: 10, 천재: 5
2007(2009)개정 (2007~2011)	교학사: 4, 금성: 3, 더텍스트: 3, 천재: 4	교학사: 10, 천재: 6
제7차 (1997~2007)	교학사: 2	--
제6차 (1992~1997)	금성: 4	--
제5차 (1987~1992)	지학사: 4	--
제4차 (1982~1987)	보진재: 6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5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4	--
제1차 (1954~1963)	일조각: 9	--

<표 18>에서처럼 <세계사>의 경우, 1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에서는 양명학에 관해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2차

교육과정 시기의 내용 분량이 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 급속히 감소되었다. 2차 교육과정 이후의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서술한 분량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었으나 분량이 많지는 않았다. 양명학의 주장과 성리학의 주장은 상반되기 때문에 앞선 분석 내용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시기에 추진한 2차 교육과정의 목적의 하나인 교육을 새로 수립하여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리학과 달리, <세계사> 교과서에서 양명학에 관한 서술 내용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에서의 2007(2009) 개정, 2011 개정에서 양명학의 평균 서술 분량은 비교적 균등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유과정 시기의 평균 서술 분량은 그 전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대개 2015 개정에서 발행한 <동아시아> 교과서의 페이지수가 대량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과 쪽수에 대한 제약을 받았으므로 양명학의 평균 서술 분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양명학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성리학의 관학화는 학술과 사상의 침체를 초래하여 자유 연구와 토론을 제약함으로써 활력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명대의 사상계가 침체와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아래에 조류와 역행되는 양명학이 성립되었다.[105] 시기별 교육과정의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명학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았고 내용도 대체로 비슷하고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서술의 중심은 성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전개

105) 이춘식, 위의 책, 386쪽.

되었다.

이 절에서는 양명학이 등장한 배경과 양명학의 정치, 논리사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는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시기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제시된 양명학 흥기의 배경에 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양명학의 등장 배경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1쪽) 명 중기 이후 왕수인은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며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6쪽) 명에서는 관학인 성리학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자, 이에 반대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4쪽) 명 중기부터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경전의 이해보다 개인적인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나타났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64쪽)성리학이 점차 관념화하면서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자 명 말에는 개인의 수양과 구체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120쪽) 동아시아 3국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학풍이 나타났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7쪽) 명 대 성리학이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사회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명학이 발전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76쪽) 명 대에 도덕적 통치를 위해 성리학이 강조되고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자, 이에 반발하여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나타났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8쪽) 명 중기 이후 성리학이 형식화되자, 왕수인은 이를 비판하며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7쪽) 명 대에는 관학인 주자학을 비판하며 경전의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나타났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36쪽) 명 중기에는 왕수인이 형식화된 주자학에 반기를 들고, 마음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심즉리)라고 주장하며 실천을 중시하는(지행합일) 양명학을 창시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61쪽) 명 중기 이후 성리학이 형식화되자 왕양명이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서술 없음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46쪽) 15세기 무렵 명과 조선에 핵심 사상은 성리학있다. 성리학은 통치 체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이를 관학화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학은 점차 형식화되고 교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성리학 이외의 새로운 해석은 철저히 부정되었으며, 독창적인 사상과 학문은 발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은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신분 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0쪽) 명이 도덕적 통치를 위해 성리학을 강요하고, 성리학을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자, 이에 대한 반발로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나타났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62쪽) 명 중기 이후 성리학이 형식화되자 이를 비판하며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인간의 본체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민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서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03쪽) 명 대에는 관학이었던 주자학에 반발하여 양명학이 나타났다. 16세기 초 왕수인(호 양명)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여 일반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교 경전의 이해보다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을 확립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5쪽) 명 대에는 원대의 개방적인 문화 경향이 사라지고, 한족의 전통문화가 다시 강조되었다. … 왕수인(왕양명)은 성리학 일변도의 학문 경향에 반발하여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확립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4쪽) 명은 주자학을 관학으로 채택하여 보급하였다. 영락제 때는 “영락대전”, “사서대전” 등의 대형 도서 편찬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였다. 15세기 말에는 송대 육구연의 학문을 발전시킨 왕양명이 ‘심즉리’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양명학에서는 지행일치

			를 매우 중시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08쪽) 명 대에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이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138쪽) 명 대는 서민들의 활력이 넘쳤던 시대였다. ... 성리학을 관학으로 내세웠지만 지식인 사회에서는 지행합일과 현실의 욕망을 긍정하는 양명학이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양명학을 위험스럽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21쪽) 이민족 왕조인 원을 물리치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건설한 명은 민족적•전통적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과거제를 강화하고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 … 그러나 이 시기에는 성리학을 과거 합격이라는 세속적 목적을 위한 학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일부 성리학자들은 육구연의 심학을 받아들여 도덕•실천적인 측면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왕수인의 양명학이 탄생하였다. 양명학은 학문적인 탐구를 강조한 주희의 성리학과는 달리 수행과 구체적인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표 19>에서 정리된 대부분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양명학의 등장 배경을 관학화한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보았다.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양명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서술은 분량이 적은 편이고 <표 19>에서 정리된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발행된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다.

2007(2009) 개정 시기 명의 경제 발전이 일으킨 사회 변화적 측면에서 성리학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106]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서술된 내용은 비교적 단일하고 성리학이 과거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에서는 양명학 흥기

106)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108쪽;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227쪽; 『세계사』, 지학사, 1989, 209쪽.

배경에 관해 서술하며 성리학이 쇠퇴한 원인을 서술하였다. 서술 내용에서는 관학이었던 성리학은 통치자의 봉건통치에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하고 국가의 권위성을 강조하였다고 했다. 성리학이 점차 형식화 교조화가 되면서 유학 이외의 기타 사상을 배제하고 학술사상의 발전을 방해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성리학이 점차 경제발전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가 부패했다고 서술하였다. 이 밖에도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에서 지배층의 시각에서 양명학은 흥기를 이루었고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양명학을 위험스럽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라는 서술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 판별 능력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양명학 흥기에 대해 서술하였고 양명학 학설 원리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서술 내용적 측면에서 각 시기별 교육과정 중 서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양명학은 사대부, 상공업자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양명학의 지행합일 이론이 명조의 쾌속적인 상공업 발전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양명학은 개개인의 평등을 주장하기[107]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 수요에 부합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이 출판한 <동아시아사>에서는 양명학의 한계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도한 심리적 수양은 현실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양명학은 공론이 되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108] 이러한 내용은 한국 학계가 양명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107)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세계사』, 천재교육, 2018, 64쪽; 『세계사』, 교학사, 2019, 138쪽;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227쪽;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2018, 120쪽;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9, 146쪽;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108쪽.

108)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8, 150쪽.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 교육계가 양명학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았고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양명학 서술 분량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4. 교육과정 차수별 역사 교과서의 중국 근현대사 서술

한국 각 교육과정 시기별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중국 근현대사의 내용이 비중 있게 서술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중화사상에 젖어 있던 중국이 팽창을 시작한 서구열강의 침략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격변의 시대로 돌입하는 계기가 된 아편 전쟁과 제국주의 서구열강의 침략에 항쟁하기 위하여 일어난 의화단 운동, 공화제를 주창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군주제를 뒤엎은 신해혁명, 중국사회에 공산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5ㆍ4운동, 대륙침략의 야심을 가진 일본군에 맞서 8년 간 대항한 중ㆍ일 전쟁,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의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전개된 국ㆍ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4.1. 아편 전쟁과 의화단 운동

중국 근대사는 굴욕의 역사이자 중국인들이 구국의 길을 탐색하고 외래의 침략에 저항했던 항쟁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근대사의 시작은 1840년 아편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 정부는 1842년 교전국인 영국과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홍콩 섬은 영국에 할양되었고, 상하이(上海)와 광저우항 등이 개항되며 굳게 닫혀 있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중국인들의 항쟁이 시작되었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서구열강들은 1901년 청나라 정부와 불평등조약인 신축조약(辛丑條約)을 체결하였고, 중국은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러나 구국을 위한 중국인들의 항쟁은 각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외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반봉건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갔다.

4.1.1.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분석

청나라는 6대 황제인 건륭제시기에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최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건륭제 말기부터 관원들의 부패가 갈수록 심해졌고, 군대 또한 마찬가지였다. 부정과 부패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여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징세를 견딜 수 없게 된 농민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켰다.

부패와 농민반란으로 청의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며 쇠퇴할 무렵,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자원과 상품 판매 시장을 찾던 영국은 식민지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인도, 베트남 등 중국 주변의 국가는 점차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중국도 풍전등화의 처지였다.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인도의 경영권을 빼앗고 중국과의 무역을 시작하였다.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중국과의 통상을 시작한 영국은 모직품과 인도산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고, 차, 실크,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상품들이 유럽 시장에서는 잘 팔리는 것에 비해 중국인들은 영국의 상품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은 본위제를 시행하고 있던 중국에는 많은 양의 은이 쏟아져 들어왔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은이 부족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중국으로 들어간 은을 회수하기 위해 급기야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대량의 인도산의 아편을 밀수하여 중국에 팔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아편에 중독되면서 사회 문

제가 되었고, 대량의 은이 유출되어 청 정부의 재정도 점차 악화되었다.

도광제(道光帝)는 아편 근절에 실적을 올리고 황주에지(黃爵滋)의 「아편엄금론」에 동참해 글을 올렸던 호광총독(湖廣總督) 린쩌쉬(林則徐)를 1838년에 흠차대신으로 임명하고 아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저우로 파견하였다. 린쩌쉬는 아편 흡연과 판매를 금하는 금지령을 내리고 정부에서 허가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외국 상인과 결탁해 아편을 판매하던 상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후 아편을 몰수하고 다시는 밀수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보증서를 쓰게 하였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갖고 있던 아편을 모두 사들여 석회를 섞어 바다에 폐기했다. 그러나 이는 제1차 아편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1차 아편 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1842년 영국과의 사이에서 불평등 조약인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는 중국에서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애로우호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사프들레이느(*Auguste Chapdelaine*) 피살 사건을 빌미로 1856년에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도 패한 중국은 1858년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와 <텐진조약(天津條約)>, 1858년 러시아와 <아이훈조약(愛琿條約)>, 1860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현황

이 절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아편 전쟁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 보겠다.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아편전쟁에 대한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 아편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개정 (2015~)	금성: 10, 미래엔: 11, 비상: 13, 천재: 28	금성: 5, 미래엔: 12, 비상: 20, 천재: 18
2011개정 (2011~2015)	교학사: 15, 금성: 12, 비상: 15, 천재: 30	교학사: 21, 비상: 17, 천재: 17
2007(2009)개정 (2007~2011)	교학사: 6, 금성: 17, 더텍스트: 22, 천재: 27	교학사: 17, 천재: 12
제7차 (1997~2007)	교학사: 12	--
제6차 (1992~1997)	금성: 27	--
제5차 (1987~1992)	지학사: 43	--
제4차 (1982~1987)	보진재: 43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28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52	--
제1차 (1954~1963)	일조각: 39	--

<표 20>에서 보듯이 1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을 다른 주제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징을 보면 3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분량이 2차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된 것이 확인된다. 3차 교육과정시기 한국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제정세와 한・중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며 분석하고자 한다.

1972년 대통령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명분을 내세워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정권을 연장했다.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정부는 한국의 현실과 국가정책의 의지를 강조하고 국적 있는 교육[109]을 제창하였다. 이는 제3차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사 교육이 강화되었지만 세계사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세계사> 과목의 지도 방향도 "문화사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국사의 세계사적 파악을 위하여 국사와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110]고 정하고 있어 아편 전쟁 등 타민족의 전쟁사의 서술 분량은 자연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 시기의 금성출판사 교과서보다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학사 교과서의 분량도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교육방향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총괄 목표에서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111]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육은 각 국과 민족 간의 상호이해에 중심을 두고 국가 간의 국제 합작과 교류를 촉진하고 세계평화와 발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작은 국가의 역사 내용도 포함되면서 이전 교육과정보다 중국사에 관한 내용이 압축되었다.

그 외에도 제7차 교육과정 교학사의 <세계사> 교과서는 집필진 가운데 중국사 전공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112] 즉 집필진 구성원의 영향으로 아편 전쟁의 서술 분량이 감소됐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서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은 상대적으로 균일하였기에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분석

---

109) 김흥주, 앞의 책, 246~247쪽.
110) 문교부령 제350호(1974. 12. 31),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22~23쪽.
111)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해설서』, 1997, 191쪽.
112) 이승현, 『제 6.7차 교육과정『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비교 분석 : 중국 근현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10쪽.

2007(2009) 개정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아편 전쟁에 관해 모두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는데, 대부분 1차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아편 전쟁에 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아편 전쟁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0쪽)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지급하며 중국 물품을 수입하던 영국은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여 자유 무역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삼각 무역**으로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다. 청은 아편 밀수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을 단속하였다. 영국은 **이것을 빌미로 아편 전쟁(1840~1842)을 일으켜 승리하고 청과 난징 조약 및 추가 조약을 맺었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4쪽) 19세기 이후 영국은 공행 무역에 따른 **대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이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초래되자 청은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 단속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이를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전쟁에 패한 청은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등을 규정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추가 조약을 통해 최혜국 대우, 영사 재판권** 등을 인정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2쪽) 18세기 중반 이후 청은 공행을 통해 영국과 무역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자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몰래 팔았다.** 이로 인해 청에서 많은 양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고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였다. **청과의 무역 확대를 꾀하던 영국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1840~1842). 전쟁에서 패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고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방하였다.
천재	세계사	2015 개정	(171쪽) **18세기 후반 이후 청은 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지**

교육		교육과정	**부족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졌다. 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재정을 많이 소모하여 국력이 점차 쇠퇴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양 열강의 통상 압력까지 받게 되자 나라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 서양 열강은 청과 자유로운 무역을 원하였으나, 청은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 따라 조공 무역의 형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 청과 영국의 교역은 각각 공행과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차, 비단 등을 수입하였고, 면직물을 수출하였지만 잘 팔리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산업화와 차 수입에 필요한 은을 조달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였다. 청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발생하였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아편 구매의 대가로 낸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국가 재정도 날로 궁핍해졌다. (172쪽) 청은 아편 밀수로 발생한 사회 혼란과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하였다. 그는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하였다. 영국은 이를 기회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1842). 전쟁은 청의 일반적인 패배로 끝났고 공행 폐지, 홍콩섬 할양, 배상금 지급, 5개 항구 개방을 약속한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이듬해 청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추가 조약을 맺었고 미국, 프랑스 등과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0쪽) 청 정부가 아편을 단속하자 영국은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아편 전쟁을 일으켜 청을 개항시켰다. 청은 두 차례의 아편 전쟁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각국이 외국과 맺는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되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26쪽) 19세기 중반 청은 영국에서 밀수출하는 아편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닥쳤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아편 구매 비용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국은 청 정부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25쪽) 18세기 이후 산업 혁명에 성공한 서양 국가들은 본국의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획득하고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그중에서도 영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청과의 교역도 늘리며 아시아 교역에 가장 적

			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은 19세기 초까지 서양 상인들이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하도록 제한하였다.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며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였는데, 이로 인해 영국의 대청 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러한 무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구입하여 청에 밀수출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고, 다량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어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난이 발생하였다. 결국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자 영국은 이를 구실로 함대를 파견하여 청을 공격하였다(제1차 아편전쟁, 1840). 전쟁에서 패한 청은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등의 불평등한 내용으로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또 추가 조약을 통해 영국의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고, 조계를 설정해 주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29쪽) 18세기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한 영국은 나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하였고, 청과의 교역도 점차 늘리고 있었다. 당시 영국과 청의 무역에서는 차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차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그 대가로 청에 지급할 은이 부족해졌다.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그 결과, 청의 아편 수입량이 늘어나 은이 영국 쪽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청의 재정은 어려워졌고,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 정부가 아편 수입을 단속하자,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이에 따라 청은 홍콩 할양,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등 영국에 많은 특권을 허용하였다.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체결된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서양 각국과 여러 조약을 통해 협정 관세,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 체제가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조공•책봉 질서를 대신하게 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3쪽)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공행 무역 체제(광동 무역 체제)를 유지하며, 서구 열강의 자유 무역 요구를 거절하였다.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차를 수입하면서 큰 적자를 보았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편의 유입으로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고 대량의 은이 유출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늘어났다. 이에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 영국 선박에 실은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수입을 엄금하였다. 영국은 이를 빌미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이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공행 폐지,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등의 내용을 담은 난징 조약과 최혜국 대우, 치외 법권 등

			을 규정한 추가 조약을 맺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53쪽)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중국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여 자유 무역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여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다. 청은 아편 밀수가 증가하여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밀수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영국은 이것을 기회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아편 전쟁(1840~1842)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 패한 청은 난징 조약을 맺고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고 상하이 등 남부의 5개 항구를 개방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17쪽) 영국이 중국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 중국 물품, 특히 차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 갔다. 그러나 수출은 적어 영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며 상당한 양의 은을 지불하였다. 청이 광저우 한 곳만을 개항하고 공행을 통해 교역하도록 하는 등 상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도 불만이었다. 영국은 청에 매카트니 사절단 등을 보내 개항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여 무역 적자를 메우기 시작하였다. 아편 무역은 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은 유출로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편 흡입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무역을 단속하고 아편 흡입자를 처벌하였다. (218쪽) 영국은 이를 기회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제1차 아편 전쟁, 1842).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49쪽) 중국의 청대에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차•면화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차•도자기 생산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유럽과의 무역으로 해외에서 많은 양의 은이 들어왔다. 이처럼 서양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중국에서도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당시 청은 광저우 한 곳만 무역 항구로 개방하였고, 조정의 허가를 받은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영 무역에서 차의 수출 초과로 인해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18세기 후반 이후 청의 공행 무역 체제(광동 무역 체제)는 영국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영국은 시장 확대를 공격적으로 도모하였다. 영국은 중국을 자국의 상품 시장으로 만들고, 양쯔강 유역의 차 원산지와 가까운 곳에서 무역하여 더 싼 가격으로 차를 사고자 하였다. 그래서 영국은 청에 공행 무역 체제를 바꾸어 무역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다. ←19세기 이후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몰래 청에

			팔았다. (250쪽) 청은 아편 밀무역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초래되자,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은 이를 기회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그 결과 청은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겼으며, 상하이 등 남부의 5개 항구를 개방하였다. 이듬해에는 추가 조약이 맺어져 청은 영국에게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게 되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50쪽) 18세기 무굴 제국이 쇠퇴하자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내세워 인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19세기 영국은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까지 식민지 지배를 확대하였다. 한편, 청은 영국과의 무역을 광저우의 몇몇 특허 상인(공행)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비단, 차, 도자기를 수입하던 영국은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청에 인도산 아편을 몰래 들여왔다.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아편의 구입으로 은이 유출되면서 은의 가치가 올라 백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졌다.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청은 아편 금지가 자국의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151쪽) **아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상하이를 비롯해 강남 지방의 다섯 항구를 개방하도록 하였고, 홍콩을 넘겨받았다. 또한 영국이 약 32%의 관세를 부과한 데 비해 청은 약 5%의 관세를 매겨야 하였다. 이후 다른 열강도 청에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추가로 항구를 열게 하였고, 영토와 이권을 차지하였다.
비상교육	동아사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70쪽) 19세기 초까지 청은 광저우의 공행을 통한 무역만을 허용하였다. 산업 혁명 이후 국내의 차 수요가 늘어난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였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부진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영국은 아편을 청에 몰래 판매하였다. 이에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크게 늘어났고, 농촌은 물론 국가 기강까지 해이해졌다. 게다가 아편 구입에 필요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재정이 악화되었다. (171쪽) 청 정부가 광저우에 임칙서를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영국이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청은 영국의 강요로 난징 조약을 맺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공행을 폐지하였다.
천재	동아시	2011 개정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한 나라는 청이었

교육	아사	교육과정	다. 18세기 이후 영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였고, 청과의 교역도 점차 늘려 가고 있었다. 당시 영국과 청의 무역에서는 차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차 구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대가로 청에 지불할 은이 부족하게 되었다.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수출하였다. 청의 아편 수입량이 많아져 은이 영국 쪽으로 대량 유출되면서 청의 국가 재정은 어려워졌고, 청나라 사람들의 아편 중독 폐해도 심각해졌다. 이에 청 정부는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단속하였다. 청 정부의 아편 단속 강화에 반발한 영국은 무력으로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군함이 청의 항구를 포격하면서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승리하여 난징 조약(1842)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청은 홍콩 할양, 관세 자주권 포기, 영사 재판권 인정,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등 영국에 많은 특권을 허용하였다.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체결된 근대적인 조약이었다. 그러나 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42쪽) 서구 열강은 공행 무역으로 무역을 통제하고 있던 청에게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였다. 영국은 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수출하였다.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심각해졌다.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하였다. 이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결국 **청은 영국에게 굴복하고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97쪽)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였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하며 차를 수입해 온 영국은 여러 차례 자유 무역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동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고,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는 삼각 무역을 통해 이러한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다. 청은 아편 밀수가 증가하여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초래되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영국은 이를 기회로 아편 전쟁(1840~1842)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패한 청은 협정 관세율,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된 난징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이로 인해 영국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할양하였으며, 상하이 등 남부의 5개 항구를 개방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22쪽) 청은 건국 이후부터 해외에서 많은 은이 유입되었으며,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군사력이

			점점 약화되었으며, 쇄국 정책으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18세기 청과 영국의 교역은 각각 공행과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유 무역을 요구하였지만, 청은 이를 무시하고 공행을 통한 조공 무역 체제를 유지하였다. (223쪽) 영국은 산업 혁명의 진행과 차 수입에 필요한 많은 양의 은을 조달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 인도산 아편을 청에 판매하였다. 그 결과, 청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의 건강 악화와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아편 구입의 대가로 지불한 은이 영국에 대량 유출되면서 국가 재정은 날로 궁핍해졌다. 결국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 몰수와 폐기, 수입 금지 등의 강경책을 취하였다. 영국은 이를 빌미로 삼아 청을 무력 침공하였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전쟁은 청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났고, 공행 폐지, 홍콩 할양, 배상금 지불, 5개 항구 개방을 약속한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1842). 이듬해에는 관세 자주권의 상실, 최혜국 대우, 치외 법권을 규정한 호문 추가 조약을 맺었다. 1844년 청은 미국, 프랑스와도 영국과 유사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아편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가 무너지고 서구 열강의 불평등 조약 체제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16쪽) 서양 열강은 청과 자유로운 무역을 원하였으나, 청은 전통적인 중화 질서에 따라 조공 무역의 형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무역 항구로 광저우 한 곳만을 지정하여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하도록 하였다. 당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청에 면직물을 수출하고 차를 수입하였는데, 면직물은 잘 팔리지 않았지만 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본 영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편을 청에 수출하였다.** 그 결과 청은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 국민 건강이 큰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은 본위 경제 체제였던 청은 대량의 은 유출 때문에 은의 가격이 높아져 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도 악화되는 등 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217쪽) 청은 아편 밀무역 때문에 발생한 사회 혼란과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하였다. 이를 구실 삼아 **영국은 자유 무역을 보장해 달라며 청의 해안 지방을 공격하였다(제1차 아편 전쟁, 1840~1842). 결국 청은 우수한 군사력을 지닌 영국에 패배하여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은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5개 항구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과도 비슷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48쪽) 청은 영국과의 무역 창구를 광저우의 몇몇 특허 상인들로 제한하고 있었다. 비단, 차, 도자기를 수입하던 **영국은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몰래 팔았다.** 이에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크게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었다. 또 아편 구입에 필요한 은의 유출로 백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졌다.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청은 아편 금지가 유교적 왕도 정치에 맞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전쟁을 결정하여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149쪽) 아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상하이를 비롯한 몇몇 항구를 개방하도록 하였고, 홍콩을 넘겨받았다. 또한, 청의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관세를 약 5%로 정했는데, 영국이 32% 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현실에 비하면 청에 매우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다른 열강도 청에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추가로 항구를 열게 하고, 영토와 이권을 차지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76쪽) 가장 먼저 서양에 의해 문을 연 것은 청이었다.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차를 수입하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청에 지급하였고, 이에 은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수출하였다. 대량의 아편 수입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이 악화되자 청 정부는 아편 단속을 강화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승리한 결과, 영국은 난징 조약(1842)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은 관세 주도권, 영사 재판권 등을 영국에 허용하였다.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되었다.

<표 21>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아편 전쟁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고 서술 방식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중에서 2015 개정 시기 천재교육 <세계사>는 아편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청나라의 내부 상황과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아편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아편 전쟁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18세기 후반 이후 청은 인구 증가로 인한 농경지 부족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졌다. 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반

란을 진압하는 데 재정을 많이 소모하여 국력이 점차 쇠퇴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양 열강의 통상 압력까지 받게 되자 나라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 라고 서술했는데, 2007(2009) 개정시기부터 출판된 모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아편전쟁과 관련하여 이 시기를 서술한 교과서는 2015 개정 천재교육 〈세계사〉가 유일하다.

7차 교육과정 이전의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 2차 교육과정 시기의 을유문화사 〈세계사〉에서는 “18세기 말에는 종교적인 비밀 결사의 하나인 백련 교도의 난이 일어났다(1766). 이 난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소비하여 진압은 되었으나(1805), 청조의 쇠약은 어찌할 수 없었다.” [113] 고 기술하였고, 4차 교육과정의 보진재 〈세계사〉에서도 “반청 사상을 부르짖고 일어난 백련교도의 난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민간 용병의 힘을 빌어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114]고 서술하며 아편 전쟁 이전의 청나라에게 닥친 위기를 설명했다.

난징조약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홍콩 할양,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의 내용을 서술하거나 불평등 조약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도 했다. 그러나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의 〈세계사〉 교과서처럼 “영국은 이를 기회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간략하게 서술한 경우도 있다.[115]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1차 아편 전쟁의 패배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서 서술이 끝나는데, 2007(2009) 개정 시기 더텍스트와 천재교육의 〈세계사〉와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2011 개정 시기와 2015 개정시기의 천재교육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는 1842년 난징

---

113) 『세계사』, 을유문화사, 1971, 212쪽.
114) 『세계사』, 보진재, 1985. 225쪽.
115) 『세계사』, 비상교육, 2018, 218쪽.

조약 이후 1844년 미국과 체결한 왕샤조약(望厦條約), 프랑스와 체결한 황푸조약(黃埔條約)에 대해서 “1844년 청은 미국, 프랑스와도 영국과 유사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116]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과도 비슷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117], “이후 다른 열강도 청에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추가로 항구를 열게 하고, 영토와 이권을 차지하였다.”[118]라고 간략하게나마 서술하였다.

4.1.2.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분석

아편 전쟁에 패한 청은 영국과의 난징조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나라의 정치와 경제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농민들은 1851년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청 정부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자 했으나 이 운동은 14년에 걸쳐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열강들은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청나라는 또다시 패전을 겪으면서 더욱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계속되고 청은 속수무책으로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청 정부와 일부 지식층들은 근대화의 탐색을 시작하였고 양무운동, 무술변법 등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농민들은 중국 최대의 반외세운동인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다.[119] 아편 전쟁의 패배와 열강국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중국은 영토와 국권을 상실하여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고, 거액의 배상금 지불로 경제는 휘청거렸다. 정부의 가혹한 징세와 관리들의 부패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

116) 『세계사』, 더텍스트, 2012, 223쪽.
117) 『세계사』, 천재교육, 2012, 216쪽.
118)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149쪽.
119)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Ⅵ - 改革과 革命』, 지식사업사, 2015, 67쪽.

중시켰고, 1897년부터 중국 화북지역에서 잇따른 자연 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또한 국외의 상품이 대량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농업과 수공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도시 수공업 공인들의 생활도 점차 열악해졌고, 열강들이 중국의 철도와 해양운송에 간섭하면서 수로운송에 종사하던 노동자들도 실업난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철도를 부설하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토지세를 강행하고, 조상의 묘를 훼손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자 서양세력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120)]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온 크리스트교는 중국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크리스트교의 교리는 중국의 전통 질서, 가치관 등과 과 자주 충돌하게 되자 중국인들의 감정은 이로 인해 기독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깊은 반감이 생겼다. [121)]

결국 중국인들은 '청을 일으키고 서양을 멸망시키자(부청멸양)'라는 구호를 외치며 의화단 운동에 가담했다. 산동, 하남 등 지역에서 시작된 의화단 운동은 점차 반크리스트교 운동으로 전개되어, 크리스트교도를 살해하거나 교회와 신도들의 집을 방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청 정부는 열강들의 압력에 못 이겨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산둥(山東) 순무(巡撫)로 임명하여 의화단을 강력하게 진압하였으나 의화단 운동은 오히려 텐진(天津)과 베이징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시기 의화단 운동은 반크리스트교 운동에서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로인해 일본 공사관 서기관과 독일 공사가 베이징 거리에서 피살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구 열강들은 다시 청 정부에게 의화단을 진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태후와 보수파 관료 등은 오히려 의화단을 지원하여 베이징을

120)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위의 책, 69쪽; 이춘식, 앞의 책, 514~515쪽.
121) 이춘식, 위의 책, 516쪽.

점령하고 서구 열강들을 몰아내고자 했다.

이에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은 반격을 위해 연합군을 결성했다. 8개국 연합군은 다구커우(大沽口)에 상륙하여 다구(大沽) 포대(砲臺)를 함락시키고, 텐진을 거쳐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의화단을 진압했다. 연합군이 베이징에 이르기 전 서태후는 광서황제와 측근들을 데리고 시안(西安)으로 피신하면서 관병들에게 의화단 진압을 명하였고, 리훙장(李鴻章)과 경친왕 이쾅(奕劻)을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열강들과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1901년 9월 청 정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11개국 대표가 모여 <신축조약(辛丑條約)>을 체결하였다.[122) 이로써 중국 농민들이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났던 의화단운동은 정부의 배신과 열강 연합군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다.

(1)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8, 미래엔: 7, 비상: 6, 천재: 8	금성: 2, 미래엔: 12, 비상: 3, 천재: 9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14, 금성: 5, 비상: 10, 천재: 15	교학사: 8, 비상: 7, 천재: 7
2007(2009) 개정	교학사: 12, 금성: 3,	교학사: 6, 천재: 7

122) 쑨톄, 이희진(역), 『중국사 산책』, 일빛, 2011, 583쪽.

(2007~2011)	더텍스트: 11, 천재: 7	
제7차 (1997~2007)	교학사: 8	--
제6차 (1992~1997)	금성: 15	--
제5차 (1987~1992)	지학사: 17	--
제4차 (1982~1987)	보진재: 21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11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8	--
제1차 (1954~1963)	일조각: 11	--

〈표 22〉의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시기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의화단 운동에 대해 모두 서술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2015 개정 시기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의 서술 분량이 2011 개정 시기의 분량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과 제3차 교육과정시기의 〈세계사〉에서의 서술 분량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2015 개정 시기의 서술 감소는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 과정에서 '학습 요소의 감축을 통한 학습량의 감축'을 주요 교육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으로[123]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분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교육과정 시기 보진재에서 출판한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분량은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의 〈세계사〉 교과서보다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고,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교과서의 해당 주제 서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3차 교육과정 고시와 4차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3차 교육과정에서는 6개

1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역사과 교육과정Ⅲ』, 2015, 28쪽.

의 장 가운데 ‘동양 사회의 변혁’부분에서 서술되고 있는데, 이 장은 ‘동양의 변천’과 ‘근대화 운동’으로 나누어져 있고,[124] 4차 교육과정에서는 7개의 장 가운데 ‘아시아의 근대화’부분에서 서술되고 있는데, 이 장은 ‘아시아 세계의 새로운 움직임’,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기타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로 각각 나뉘어 있어[125]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의화단 운동에 대한 내용은 의화단 운동이 발생한 배경, 의화단 운동의 전개과정, 결과 세 가지 측면에 서술하고 있다.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의화단 운동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2쪽) 개혁 운동(무술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산둥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련교 계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었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부청멸양).’라는 구호를 내걸며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하고, 베이징을 점령한 후 청 정부의 지원 아래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을 습격하였다. 이에 영국, 일본 등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청과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 1901)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청은 열강에**

124) 문교부, 『문교부령 제350호(1974,12, 31,)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 접속일자: 2019.11.24.
125) 문교부, 『문교부 고시 제422호(1981,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www.ncic.re.kr/), 접속일자: 2019.11.24.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여 중국의 반식민화가 심화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6쪽)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외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산둥반도를 근거지로 일부 백련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의화단은 '부청멸양'을 구호로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의화단은 외국인을 습격하고 교회와 철도, 전신 시설 등을 파괴하였다. 이에 영국, 일본 등 8개국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한 뒤 청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청은 열강에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한편, 열강의 이권 침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산둥성에서는 의화단이 봉기하였다(1899). 이들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부청멸양).'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크리스트교•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열강에 대항하고자 열강에 선전 포고를 하였으나 의화단은 8개국 연합군에 진압되었다. **그 결과 청은 열강과 신축조약(베이징 의정서, 1901)을 맺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락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4쪽) 청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인들의 **배외 감정**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백련교도가 의화단을 조직하여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부청멸양을 내세워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베이징의 외국 공관을 습격하였다. 당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는 의화단을 이용해 열강의 침략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한 뒤 청과 신축조약(베이징 의정서)을 체결하였다(1901). 그 결과 **청은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8쪽) 의화단 운동은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발하여 일어났지만, 열강의 군대에 진압되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0쪽)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지급할 배상금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마련하였다. 서구 열강은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청에 여러 이권을 요구하였다. 청의 각 항구에 조차지를 설정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차지하였다. 일본도 서구 열강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청은 영토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리스트교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의화단은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까지 공격하였다. 청 정부도 '부청멸양'을 내세운 의

			화단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 정부는 연합군과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1901).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1쪽) 청·일 전쟁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고통을 겪던 민중들은 의화단을 중심으로 **반외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열강들에게 진압되었고, 청은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0쪽)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타이완을 넘겨주었다. 청에서 외국 기업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거나 공장을 세우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열강이 경쟁적으로 철도와 광산 등의 이권을 차지하였다. 청에서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 산둥성에서 조직된 의화단이 '청 왕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부청멸양)' 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의화단 운동). 의화단은 교회, 학교, 철로 등 서양 문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화북 지방을 휩쓸 정도로 거세었으나, 8개국 연합군이 출병하면서 실패하였다. **청은 열강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신축 조약, 1901).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6쪽)서구 열강은 중국에 진출하여 철도와 광산, 전화, 전신 등의 이권을 빼앗아 갔다. 또한 ,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온 크리스트교가 중국의 전통 관습을 무시하자 중국인들의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이 칭다오를, 영국이 웨이하이를 점령하는 등 열강의 중국 분할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중국인의 배외 감정은 고조되어 갔다. 한편, **산둥 지역은 열강의 철도 건설과 외국 물자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 수공업 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흉년이 지속되었다.** 이때 산둥 지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련교 계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었다. 의화단은 '부청멸양' 을 구호로 외국인이나 교회를 습격하는 한편, 철도, 전신 시설 등을 서구 열강의 중국 침략 도구로 판단하여 파괴하였다. 서구 열강은 청 정부에 의화단을 잔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서태후와 보수파 관료들은 의화단을 이용해 열강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영국, 일본 등 8개국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한 뒤 청과 '베이징 의정서(신축조약)' 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청은 열강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어 중국의 반식민지화가 심화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55쪽) 개혁 운동이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가운데 산동에서 일어난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부청멸양).' 는 구호를 내걸고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한때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위세를 떨쳤으나 열강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청 정부는 신축조약(베이징 의정서, 1901)을 체결하여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1쪽)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가 인정된 이후 크리스트교도와 일반 농민 사이에 종종 충돌이 일어났으며, 열강의 침략으로 백성의 배외 감정은 더욱 높아 갔다. 19세기 말 산둥 성의 농민들은 의화단을 중심으로 뭉쳐 반외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의화단은 청조를 도와 서양인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철도와 전신, 교회 등을 공격하였다(의화단 운동, 1900). 청이 의화단을 지지하고 열강에 선전 포고를 하였으나 자국 국민과 시설 보호를 내세운 영국과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에게 의화단 운동은 진압되었다. **청은 배상금을 39년간 분할하여 갚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락하며, 외국인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진압할 것 등을 요구하는 신축조약에 서명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61쪽) 청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중국 민중들의 배외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을 약탈하기 위해 가설한 철도와 아편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는 이러한 배외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백련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화단을 '부청멸양'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크리스트교적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산둥 지방에서 세력을 길러 톈진과 베이징에 진입하여 외국 선교사와 그리스트교 신자들을 살해하였으며,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였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태후와 보수 정권은 이들의 구호에 솔깃하여 이를 이용해 외세를 배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의화단의 활동이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과 교회에까지 미치게 되자 영국·미국·일본 등 8개국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은 열강의 무력 앞에 다시 굴복하고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청은 의화단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며, 열강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청 왕조 최후의 외세 배척 운동이었던 의화단 운동의 실패로 보수 정권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중국의 반식민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61쪽) 중국 민중은 제국주의의 분할 경쟁과 열강의 침략에 반발해 의화단을 조직하여 봉기하였다. 의화단은 청 정부의 묵인 아래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하였으며, 교회당을 불사르고 외국 공관을 공격하였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162쪽) **청은 5년 예산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냥의 배상금을 39년 동안 나누어 지불하기로**

			하고, 베이징 주변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신축 조약, 또는 베이징 의정서). 서구 열강과 일본은 이때부터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1931년까지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사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6쪽)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고 서양 물품의 수입이 확대되어 중국인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점차 외국인을 배척하는 감정이 높아졌다. 특히 산둥에서는 열강의 이권 침탈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자 의화단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양인이 설립한 학교, 교회, 철도 등을 파괴하고 서양인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청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여 서양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일본 등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다음 해 정부는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1901).**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5쪽) 19세기 말, 열강의 이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서양에 돌리는 하층민의 강력한 저항도 나타났다. 1900년에 절정에 이른 의화단 운동은 '청 왕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부청멸양).' 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크리스트교, 철로, 학교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중국 북부를 휩쓸 정도로 전개되었으나 서구 열강과 일본, 러시아 등 8개국 연합군의 직접 출병으로 진압되었다. **그 결과 청은 연합군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물고, 베이징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51쪽) 서구 열강은 중국에 진출하여 철도와 광산, 전화, 전신 등의 이권을 빼앗아 갔다. 또한,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온 **크리스트교는 중국의 전통 관습을 무시하였다.** 이에 중국인들은 외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칭다오를, 영국이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하였다. 이때 산둥 지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다. 의화단은 '부청멸양' 을 구호로 내세우며 외국인이나 교회를 습격하고, 철도, 전신 시설 등을 파괴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하였다(1899). 서구 열강은 청 정부에 의화단을 진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태후와 보수파 관료들은 오히려 의화단을 옹호하며 서구 열강에 선전 포고하였다. 이에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의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과 베이징 의정서(신축조약, 1901)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청은 열강에게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어 중국의 반식민지화가 심화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300쪽) 청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거세지는 가운데 산둥에서 의화단이 '청을 도와 서양을 멸하자(부청멸양)' 는 구호를 내걸고 반크리스트교•반제국주의 운동을 일

			으켰다 이들은 한 때 베이징까지 진출하였으나 열강의 연합군의 의해 진압되었도, **청은 신축 조약을 체결하여 열강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었다**(1901).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27쪽) 개항 이후 중국에 대한 열강의 경제 침탈과 철도 부설, 크리스트교 전파는 일반 민중들에게 반외세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에 일부 백련교도가 중심이 되어 의화단을 조직하였고,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부청멸양을 내세워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인을 살해하였다. 당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은 의화단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여 열강의 침략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청과 신축조약을 체결하였다(1901). 그 결과, **청은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20쪽) 베이징 조약 이후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고, 서양 제품의 수입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배외 감정이 높아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백련교도들도 섞여있는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부청멸양).” 라는 구호 아래 교회와 철도, 학교 등 서양과 관련된 것들을 파괴하고,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을 공격하였다(의화단 운동, 1899~1901). 청 왕조는 이들을 이용하여 서양 열강을 몰아내고자 하였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한 뒤 **청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59쪽) 중국 민중은 제국주의의 분할 경쟁과 서양의 침략에 반발해 의화단을 조직하여 봉기하였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며 교회당을 불사르고 외국 공관을 공격하였다. 이에 일본군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과 연합군은 베이징 주변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켜 대한 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98쪽) 19세기 말에 집중된 열강의 이권 획득 경쟁은 반크리스트교 운동(교안)이 널리 퍼지는 계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청 왕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부청멸양).’ 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의화단은 서태후 등 보수파의 지원을 받고 베이징을 점령하였지만, 8개국 연합군의 반격으로 종말을 맞았다. **중국은 다음 해에 체결된 신축 조약으로 은 9억 냥이 넘은 배상금과 함께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인정하여 열강의 대한 종속이 강화되었다.**

〈표 23〉에 정리된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의화단 운동의 배경(원인), 의화단 운동의 전개과정(경과), 〈신축조약〉의 체결(결과)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관한 서술은 각 교과서마다 내용의 소략함과 상세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기별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세계사〉 와 〈동아시아사〉 과목상의 차이는 다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열강들의 중국 침략,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저항과 반외세 감정을 서술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이 크리스트교의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들과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를 빌미로 8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는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15 개정 시기 미래엔과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경우 청이 서구 열강들에게 철도, 광산, 전화, 전신 등의 온갖 이권을 빼앗기게 된 원인인 시모노세키 조약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는 2007(2009) 개정과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와 2011 개정 시기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세계사〉의 서술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그런데, 모든 교과서 가운데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만 “산둥 지역은 열강의 철도 건설과 외국 물자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 수공업 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흉년이 지속되었다.” 라고 서술하며 의화단이 최초로 일어난 산둥(山東)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신축조약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의 교과서 서술에서 문제점이 보인다. 의화단 운동 부분의 마지막 서술은 신축조약에 의해 베이징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락했다’, ‘인정했다’, ‘허용했다’ 등의 표

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서술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1901년 9월 7일 최종 체결된 신축조약 12조 가운데 외국 군대의 주둔에 관한 항은 제7조, 제8조, 제9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126)]

第七, 열강은 각각 자국의 공사관을 위해 상설 호위병을 조직하고 공사관 소재구역을 방어할 권리를 지니며, 청국인은 이 구역 내에서 주거할 수 없다.
第八, 大沽砲臺 그리고 북경과 海岸間의 자유교통에 장해가 되는 諸砲臺를 파괴할 것.
第九, 각국은 首府와 海岸間의 자유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각 지점[127)]에 군대를 주둔하게 한다.

그리고 신축조약 마지막에 있는 단서에서는 청 정부가 12조항을 모두 이행한다면, 7조에서 언급한 외국 공사관을 지키는 병력 이외의 군대를 1901년 9월 17일까지 베이징에서 모두 퇴각하고, 9조에서 언급한 지정된 12곳의 지점을 제외한 직예성에 있는 병력도 1901년 9월 22일까지 모두 퇴각한다고 쓰여 있다.[128)] 즉, 이 조항들은 청 정부에게 매우 굴욕적이기 했지만, 그나마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외국 군대를 물러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2007(2009) 개정과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청과 연합군은 베이징 주변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베이징 주변에 열강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서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126)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一冊(1689-1901)』, 三聯書店, 1957, 1006~1007쪽.
127) 9조에서 지정한 12지점은 수도인 베이징에서 산하이관에 이르는 이동로에 위치한 지역으로 黃村, 郎坊, 楊村, 天津, 軍糧城, 塘沽, 蘆臺, 唐山, 灤州, 昌黎, 秦皇島, 山海關이다.
128) 王鐵崖 編, 앞의 책, 1008쪽.

‘베이징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인정’ 또는 ‘허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조약 내용에서 보듯이 베이징 내에서도 ‘공사관지역’과 베이징에서 산하이관(山海關)까지의 구간 가운데 지정된 ‘12곳’에서만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의화단 운동은 청 정부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에게 큰 각성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외세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중들을 배신한 정부에 대해 큰 배반감을 갖게 되었고, 신축조약의 체결로 인해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남으로서 청나라 붕괴를 앞당기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 서술에서는 이러한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신축조약 체결에 대한 서술로 마무리되었고, 역사적 의미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4.2. 신해혁명과 5ㆍ4운동

중국 근현대사에서 신해혁명과 5·4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해혁명은 청 왕조를 뒤엎고 중국 2천 여 년의 봉건군주제를 마무리한 사건이고, 5·4 운동은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 성격을 가진 민중운동이었다.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 분량과 서술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4.2.1.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분석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청 정부는 서구 열강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돌아

와 청의 근대화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1872년부터 1875년까지 총 120명의 10대의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케 했다. 이후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유럽 각국, 그리고 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났다. 그런데 해외로 나간 유학생 대부분은 근대문화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부패하고 무력한 청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혁명 운동의 중요한 역량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신축조약의 최종 체결을 앞두고 있던 1901년 1월 청 황실의 서태후는 청 정부의 마지막 개혁이 된 '신정(新政)'을 추진하였다. 신정은 청의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이르는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역량부족으로 결국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유학하고 있던 많은 청년 지식층은 위기에 몰린 중국을 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1905년 8월 일본 도쿄(東京)에 모인 쑨원(孫文), 황싱(黃興), 쑹자오런(宋敎仁), 왕징웨이(汪精衛) 등은 기존의 단체인 흥중회(興中會), 화흥회(華興會) 등을 통합한 중국 동맹회(中國同盟會)를 결성했다. 1904년 상하이에서는 차이위안페이(蔡元培)가 광복회를 설립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차이위안페이는 1905년 중국 동맹회 결성 시 광복회 회원들과 함께 가입하여 동맹회 상하이지회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동맹회에는 '오랑캐 축출, 중화 회복, 민국 수립, 토지균등배분'의 4대강령을 정하고,[129] 기관지인 『민보』를 통해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의 '삼민주의'를 제창하였다. 이후 동맹회는 중국의 남부 각지에서 반청 무장봉기를 수차례 일으켰다. 그러나 민중의 기반이 약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여 봉기는 실패를 거듭했는데, 1911년 5월 청 정부의

129)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앞의 책, 135쪽.

‘철도의 국유화령’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막대한 이권이 열강에게 넘어갔고, 중국인들은 그 가운데 철도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민간에서는 스스로 자금을 모으며 철도부설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모이지 않아 철도 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1년 청 정부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후 철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투자한 민간인의 이권을 박탈하고,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겠다는 계획이었다. 격분한 중국인들은 거세게 반대했고, 쓰촨(四川) 성에서는 가장 격렬한 저항운동이 벌어져 철로(철도)를 지키자는 의미의 ‘보로(保路) 동지회’까지 조직해 동맹휴학과 납세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진압하여 유혈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9월에 이르러 민중의 봉기는 무장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베이(湖北)파의 혁명 지식 청년들은 우창(武昌)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는데, 당시 이를 진압해야 하는 관군인 신군 내부에는 혁명에 동조하는 신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911년 10월 10일 신군의 공병대가 먼저 봉기를 일으켰고 그 뒤를 이어 보병, 포병들도 봉기에 가담하며 혁명세력은 우창을 점령하게 된다. 우창봉기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각 성의 혁명세력들은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 후 2개월도 안되어 10여 개의 성이 독립을 선포했다. 해외에서 돌아온 쑨원은 1912년 1월 1일 임시 대총통에 추대된 후, 국호를 중화민국, 수도는 난징(南京)으로 정했다.

난징정부가 설립된 후, 청 정부는 위안스카이(袁世凱)를 개각 총리대신으로 임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위안스카이는 혁명군을 토벌을 위한 파병을 명하고 한구(漢口)와 한양(漢陽)을 수복하면서 동시에 난징정부에 협상을 제안하였다. 군사적 우위에 있던 위안스카이는 쑨원과의 협

상을 통해 선통제의 퇴위와 공화제의 실시, 그리고 수도를 남경으로 옮기는 것을 약속하고, 대총통의 직위를 차지했다. 그 후 위안스카이는 1912년 2월 12일 선통제를 퇴위시켰다. 이로써 중국의 마지막 봉건왕조국가인 청나라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신해혁명의 모든 성과를 빼앗고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곧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로 인해 중국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다.

(1)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신해혁명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개정 (2015~)	금성: 14, 미래엔: 17, 비상: 12, 천재: 15	금성: 13, 미래엔: 8, 비상: 6, 천재: 7
2011개정 (2011~2015)	교학사: 18, 금성: 13, 비상: 22, 천재: 18	교학사: 22, 비상: 8, 천재: 6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17, 금성: 14, 더텍스트: 17, 천재: 12	교학사: 7, 천재: 13
제7차 (1997~2007)	교학사: 12	--
제6차 (1992~1997)	금성: 21	--
제5차 (1987~1992)	지학사: 31	--
제4차 (1982~1987)	보진재: 34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26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31	--
제1차 (1954~1963)	일조각: 41	--

〈표 24〉의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서술한 분량을 보면 제6차 교육과정을 전후로 하여 서술 분량의 차이가 보인다. 6차 교육과정 이후의 서술 분량은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6차 교육과정 이후의 서술 분량이 왜 그 이전 교육과정보다 줄어들었는지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형성되었고, 한국과 중국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근 30여 년 간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중 양국의 인식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양국의 대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적대감과 의심은 갈수록 더해갔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 추진된 1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공 사상이 교육에까지 그대로 주입되었다. 이는 냉전이 끝난 후까지 이어져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한국과 중화민국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온 중국 국민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오랜 유대관계 때문이었고, 그 이후 분단이라는 공통된 현실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동맹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술보다는 중화민국과 더욱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 신해혁명에 대한 서술에 비중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냉전체제의 완화와 해체, 그리고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는 급반전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복권한 후

곧바로 중국 정치계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두루 겸직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시기 그 이전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벗어나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했다. 1980년대부터는 외교도 '혁명외교'에서 국가 실익을 추구하는 실력외교로 전환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의 대(對) 공산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1989년 말부터 한국과 중국은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허용하였고, 1992년 8월 24일에 정식 수교를 맺게 되었다.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중화민국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후 한국과 중화민국의 44년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이렇게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 한중관계의 변화로 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신해혁명의 서술 분량은 그 전의 교육과정에서의 서술 분량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모든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신해혁명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신해혁명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3쪽) 의화단 사건 이후 청 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특히 쑨원은 '청을 타도하여 공화 정부를 세워야 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

			명 운동을 주도하였다. 1905년 성립된 중국 동맹회는 쑨원의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혁명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또한 입헌제 준비가 지연되자 속히 국회를 열자는 청원 운동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청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이러한 반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우창(현재의 우한)에서 신군이 일으킨 봉기가 전국으로 퍼졌다(신해혁명, 1911). 혁명 세력은 난징을 점령하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여 중국 최초의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을 세웠다. 청 정부는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기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혁명군과 타협하여 청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신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추대되었다. **위안스카이는 이후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고, 중국의 공화 체제는 형식만 남은 채 각지에서 군벌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졌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6쪽) 청의 지배에 실망한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을 타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쑨원은 도쿄에서 혁명 단체를 모아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중국 동맹회는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청 정부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하자 쓰촨 지방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자, 우창에서 혁명 세력과 연결된 신군이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1911). 이듬해 혁명파 세력은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여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청은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혁명을 진압하려 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선통제를 퇴위시킴으로써 청은 멸망하였다. (167쪽) 쑨원을 대신하여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탄압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는 **제정으로의 복귀를 시도하여 황제로 취임**하였으나 곧 병사하였다. 위안스카이 사후 중앙 정부의 통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장쭤린 등의 군벌이 자신의 근거지에서 휘하에 군대를 보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들 군벌은 장제스가 북벌을 완료할 때까지 베이징의 중앙 정부를 무대로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군벌 간의 갈등으로 정국은 혼란스러워졌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4쪽) 의화단 운동 이후 …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여 삼민주의를 내걸고 청 정부 타도를 위한 혁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 정부는 개혁 추진 비용과 신축조약에 따른 배상금 지불 등으로 재정난에 빠지자 민간 철도를 국유화한 후 이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하였다. 이에 맞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혁명파가 우창에서 봉기하였다. 여기에 농민, 군인, 입헌파 등이 참여하면서 절반 이상의 성이 독립을 선언하였다(신해혁명, 1911). 이듬해 혁명파는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청 정부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등용하였으나, 그는 총통직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혁명군과 청 황제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었다. 위안스카이는 스스로 황제에 오른 후,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군벌이 등장하면서 중화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5쪽)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후 청에 대한 열강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 외국 유학생, 기업인을 중심으로 청을 타도하자는 혁명 운동이 국내외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쑨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들은 일본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1905),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발표하였다. 1911년 청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혁명 운동의 영향을 받은 우창의 신군이 반청 봉기를 일으키면서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 이에 동조한 각 성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혁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듬해 각 성의 대표들은 난징에서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청은 혁명 진압을 위해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혁명 세력과 협력하여 청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중화민국의 대총통에 취입한 위안스카이는 태도를 바꾸어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병사하였다. 이후 중국은 각지에서 군벌 세력이 난립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8쪽) 정부는 개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왔다. 이에 철도 국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마침내 우창에서 혁명파가 지원하는 군대가 봉기하였다(신해혁명, 1911). 혁명은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많은 지방 정부가 동조하였다. 지방 정부의 대표들은 난징에 모여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1912). 그러나 난징 임시 정부는 청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와 타협하여 황제를 물러나게 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155쪽)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의 독재로 공화제가 유명무실해져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4쪽) 청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1년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이 봉기하였다(신해혁명). 이에 호응한 각 성이 봉기하여 청의 지배를 거부하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하지만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군사 및 재정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공화제 시행을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었다. (144쪽)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공화제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1쪽) 청 정부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하자, 전국적으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어 우창에서 신식 군대를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자, 각 지방의 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신해혁명, 1911). 그 결과 쑨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1912). (138쪽) 신해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위안스카이는 황제 체제의 부활을 시도하는 한편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용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6쪽) (1908)청의 지배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이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쑨원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파는 중국동맹회를 조직하여 청 왕조를 타도하고, 한족이 중심이 되는 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1911년 우창 신군의 반란으로 시작된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되어 공화제를 채택하였다. 청 황제 퇴위 이후 임시 대총통 쑨원은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직을 양보하였다. 그러나 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가 제정을 부활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중국은 군벌들에 의해 분열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7쪽) 청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무렵 해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을 타도하자는 혁명 사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쑨원은 1905년 각 혁명 단체들을 모아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고 혁명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중국 동맹회는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내세우고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은 근대적 개혁 추진 비용과 베이징 의정서에 따른 배상금 지불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청 정부는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여 이를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다. 이에 1911년 쓰촨 지방을 중심으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자, 민중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은 1911년 10월 10일 우창에서 군대가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 봉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주요 성들이 동참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청으로부터 독립한 각 성의 대표들은 난징을 수도로 임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여 중국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청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쑨원 등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황제를 퇴위시킨 후, 쑨원을 대신하여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이후 위안스카이는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이 직접 황제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위안스카이 사후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실권을 장악한 베이징의 군벌 정부가 중화민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56쪽) 의화단 운동 이후 … 근대적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청의 지배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과 혁명 운동이 확산되었다. 특히 쑨원은 청을 타도하고 공화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05년 결성된 중국 동맹회는 혁명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청 왕조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 우창 신군의 봉기로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1911). 각 지방이 이에 호응하여 청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는 가운데 쑨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고, 중화민국이 성립하였다(1912). 청 정부는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등용하였으나, 그는 혁명군과 타협하여 청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대신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이후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고, 중국의 공화 체제는 형식만 남은 채 각지에서 군벌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졌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2쪽) 의화단 운동 이후 국민들의 청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졌다. 이에 청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혁명 운동이 국내외에서 확산되었다. 쑨원은 혁명 단체들을 모아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열강에게 빼앗긴 철도 부설권이나 광산 채굴권 등을 되찾으려는 이권 회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신사층과 민중은 돈을 모아 철도를 직접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청이 외국 차관을 빌려 철도를 놓고 국유화하려 하자, 격분한 쓰촨의 민중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혁명파가 신식 군대를 중심으로 우창에서 봉기하자 전국의 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신해혁명, 1911). 이후 혁명파는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고 난징에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1912). 청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혁명 세력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혁명파와 타협하여 청을 멸망시켰다. 쑨원을 대신하여 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가 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중화민국은 군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62쪽)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청•일 전쟁에서 청이 패하게 되자 혁명 단체인 흥중회를 조직하고 청조 타도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혁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러•일 전쟁을 계기로 혁명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였다. 동맹회는 쑨원의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삼민주의는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를 말하는데, 만주족 왕조의 타도, 공화정의 수립, 민생의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청은 1911년에 안팎에서 가해오는 개혁 압력을 극복하고 왕조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내각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황족과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였으므로 개혁을 원하는 지식인에

			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새로운 내각은 차관을 얻기 위해 철도 부설권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철도를 국유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조세를 거부하는 농민 투쟁도 널리 퍼져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혁명 조직과 연결된 국인과 학생들이 우창에서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1911. 10. 10.). 봉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주요 성들이 동참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듬해 혁명파 세력은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여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등용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황제를 퇴위시킴으로써 청은 멸망하였다.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황제 체제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병사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군벌 세력이 난립하고 열강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면서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67쪽)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나 이듬해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중국 남부에 중심을 두었던 신해혁명 세력은 청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앙의 권력자인 위안스카이와 타협하였다. 원래 청 정부는 혁명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대총통에 취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혁명파와 손을 잡았다. 이로써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무너졌으며, 화이 관념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 **신해혁명은 인접한 국가와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신해혁명 중 외몽골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러시아가 이를 지지하였다. 만주와 몽골에서의 권익을 위협받게 된 일본은 중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권익을 지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한편, 베트남 민족 운동 세력은 신해혁명의 중심지인 광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고 반프랑스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68쪽) 1912년 3월 베이징에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혁명파의 기대와 달리 국민당을 탄압하였다. 의회를 무시하고 열강으로부터 재정 위기 해소에 필요한 차관까지 받았다. 쑨원은 여기에 맞섰지만 실패하여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13년 10월 대총통에 정식으로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며 전횡을 휘둘렀고, 공화제는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비상교육	동아사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7쪽) 의화단 운동의 실패로 신축조약이 체결되자 망국의 위기를 느낀 지식인을 중심으로 청조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중 쑨원은 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여러 혁명 단체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조의 마지막 개혁이 실패하고 우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이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청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정 체제의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가 제정을 부활시키려다 실패하고, 각지에서 군벌이 할거하면서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7쪽) 1901년 이후 청은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는 입헌 준비에 나서 혁명을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11년에 후베이성 신군이 봉기하면서 청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신해혁명). 이때 각 지방이 독립하여 중국이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한 위안스카이가 혁명파 대신 정권을 잡게 되었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52쪽) 신정 추진에 따른 개혁 비용과 베이징 의정서에 따른 배상금 지불 등으로 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청 정부는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여 이를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다. 이에 1911년 쓴촨 지방을 중심으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청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는데,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은 우창에서 군대가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 봉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주요 성들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규모의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듬해 혁명파 세력은 쑨 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여 난징에 수도를 정하고 중국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청 정부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위안 스카이를 파견하였지만, 위안 스카이는 오히려 쑨 원 등 혁명파 세력과 손을 잡고 황제를 퇴위시켰다. 그 후 군사력, 자금, 조직력에서 우세한 위안 스카이는 열강의 지지 하에 쑨 원을 대신하여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위안 스카이는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이 황제에 오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실권을 장악한 베이징의 군벌 정부가 중화민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300쪽) 근대적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청의 지배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이 점차 확산되었다. 특히, 쑨 원은 이민족 정권인 청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 정부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1905년 도쿄에서 결성된 중국동맹회는 10여 차례 이상의 무장 봉기를 시도하여 청 왕조를 위협하였다. 청 왕조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창 신군의 봉기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1911). 각 지방이 이에 호응하여 청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는 가운데 쑨 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고, 중화민국이 성립하였다(1912). 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위안 스키이를 등용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혁명군과 타협하여 청 왕조를 멸망시키는 조건으로 중화민국 대총

			통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위안 스카이는 권력 강화를 위해 황제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였고, 공화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근대국가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채 각지에서 군벌이 할거하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27쪽) 혁명가들은 화교와 일본, 유럽, 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과 연계하여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특히, 쑨원은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여 청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민주•민생을 강조하는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또한 군 내부에 혁명파를 침투시켰다. 1911년, 청은 국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쓰촨에서 철도를 지키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같은 해 10월 10일 우창에서 혁명파의 지도로 신군이 봉기하였다(신해혁명, 1911). 혁명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어 15개 성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듬해 쑨원은 난징에서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청은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고 혁명을 진압하려 하였다. 그러자 쑨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직을 제안하여 청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수천 년을 이어온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그 이후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탄압하며 황제가 되려고 하였으나 돌연 사망하였다. 이에 중국 각지에 열강과 결탁한 군벌이 일어나 더욱 혼란한 상황이 되었다.
천재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20쪽) 의화단 운동의 실패 이후 청은 개혁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청조와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을 타도하자는 혁명의 기운이 팽배하였다. 쑨 원은 일본 도쿄에서 이전의 혁명 단체들을 통합하여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삼민주의를 내걸고 중국인들에게 무장봉기를 권유하였다. 당시 청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여, 이를 담보로 외국 자본을 빌려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창에서 혁명 운동의 영향을 받은 신식 군대가 반청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 대부분이 독립을 선언하였다(신해혁명, 1911). 혁명세력은 쑨 원을 임시 대총통에 추대하고 난징에 중화민국을 세웠다(1912). 청조는 위안 스카이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정국을 안정시켜 주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혁명 세력과 협력하여 청조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대총통이 된 그는 혁명 세력을 탄압하면서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병사하였다. 이후 중국은 각지에서 군벌이 세력을 떨치는 혼란의 시기에 들어섰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71쪽) 1910년 8월, 대한 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다. 이듬해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1912년에는 아시아의 첫 공화국,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중국

			남부에 중심을 두었던 신해혁명 세력이 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의 권력자인 위안스카이와 타협하면서였다. 원래 청 정부는 혁명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대총통에 취임할 것을 조건으로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하자는 혁명파와 손을 잡았다. **그 결과 청 왕조가 무너지고 중국의 왕조 지배 체제가 끝났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80쪽) 의화단 사건 이후 청 정부의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만주족 중심의 청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의 정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쑨 원은 청 왕조 타도를 목표로 하는 혁명 운동을 주도하여 10여 차례가 넘게 무장봉기하였다. 이후 청 왕조가 새로 육성한 군대인 신군이 우창에서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181쪽) 하지만 초대 대총통이 된 위안 스카이가 황제 체제를 부활하려다 실패하고 나서 중국은 각 지역을 장악한 군벌들에 의해 분열에 빠졌다.

<표 25>에 정리된 2007(2009) 개정부터 2015 개정까지 발행된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신해혁명에 대한 서술을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신해혁명의 배경으로 의화단 운동이나 철도 국유화령을 모두 서술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만 서술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 차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다르지 않다.

신해혁명 서술의 마무리 부분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황제로 등극하고자 했던 위안스카이로 인해 공화국으로 첫발을 내딛은 중국이 좌절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 사후 난립하는 군벌세력으로 인해 중국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위안스카이가 죽기 전 시기에서 서술이 끝나기도 했는데,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의 <동아시아사>에서는 “그 결과 청 왕조가 무너지고 중국의 왕조 지배 체제가 끝났다.” 고 했고, 2015 개정 시기 비상교육의 <동아시아사> 에서는 “위안스카이는 황제 체제의 부활을 시도하는 한편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수용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라는 내용으로 서술

을 마치고 있다.

가장 서술이 다른 것은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으로 이 교과서에서는 “1911년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나 이듬해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고 시작하여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이후 주변국의 반응과 동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외몽골지역의 독립선언을 언급하고, 이를 지지하는 러시아, 이로 인해 만주와 내몽골 지역에서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력을 확대해 나간 일본, 신해혁명의 중심지인 광저우에서 반프랑스 운동을 시작한 베트남 민족 운동 세력에 대해 서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7(2009) 개정 이후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제1차 교육과정 이후 출판된 모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별한 오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11 개정 시기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교과서에서는 청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수립에 대해 “1911년에 후베이성 신군이 봉기하면서 청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봉기가 일어난 후 1912년 1월 1일 쑨원이 임시대총통에 오르며 국호를 ‘중화민국’ 이라 했다. 그 후 위안스카이와 협상시 쑨원은 선통제의 폐위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받아들인 위안스카이는 1912년 2월 12일 선통제를 강제 퇴위 시켜 청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이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서술은 문제가 있다.

4.2.2. 5·4 운동에 관한 서술 분석

신해혁명에 의해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선통제가 폐위되면서 청나라 왕조가 무너졌지만 모든 권력은 위안스카이에게 돌아갔다. 임시 대총통이

었던 쑨원과의 협상으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혁명세력과 중국 민중들이 바라던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황제제도를 꾀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틈을 타서 일본은 중국 내 독일의 조차지인 칭다오(靑島)를 비롯한 산둥(山東)반도를 점령한 후, 산둥에서 독일이 누리던 권익을 모두 일본이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평등한 '21개조'의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황제제 부활과 황제 취임에 대해 일본이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1915년 5월 9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총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특혜조건 가운데 제5호 7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승인했다.[130] 위안스카이는 수개월 뒤인 1616년 1월 1일 마침내 황제에 등극하였다. 그러나 그는 3월 22일 황제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위안스카이가 황제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전념하는 동안 지식인들은 민중의 의식을 깨우치고 위태로운 국면을 되살리기 위해 계몽 운동에 힘썼다. 천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후스(胡適), 차이위안페이, 루쉰(魯迅) 등은 1915년 9월 상하이에서 『청년잡지(靑年雜誌)』를 창간하여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문화와 제도에 반대하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는 신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청년잡지』는 1년 뒤에 『신청년(新靑年)』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몇 달 후 베이징으로 이전하였다.

『신청년』이 이전해 오면서 베이징대학교는 새로운 문화 운동의 주요 활동지가 되었다. 『신청년』은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소개하거나,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주장하기도 했고, 백화문 운동(白話文運動)을 전개하며 베이징의 청년지식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러

130) 《东亚三国的近现代史》 共同编写委员会, 『东亚三国的近现代史』,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64쪽.

시아의 10월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문화 운동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리다자오 등은 『신청년』을 통해 마르크스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신문화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봉건사상의 통치 지위를 흔들고 민중들을 각성시켰다.

그러는 사이 세계 제1차 대전이 종결되었고, 1919년 1월에 전승국들은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중국은 전승국의 지위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고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열강이 중국에서 얻은 특권을 취소하고, 1915년 위안스카이가 일본과 체결한 21개조 조약의 폐지와 산둥의 권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중국 대표단의 기대와는 다르게 회의에 참석한 협상국들은 일본과의 협정으로 인해 일본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고, 중국의 요구는 묵살되고 말았다.[131]

이러한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각계각층의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신문화운동의 터전이었던 베이징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베이징의 대학과 전문학교의 학생 3000여 명이 5월 4일 오후 1시 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모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매국행위를 한 군벌정부에 대해 규탄하며 각국 공사관이 있는 동교민항(東交民港)[132]으로 향했다. 그들은 '외쟁국권 내제국적(外爭國權 內除國賊)', '21개조 폐지', '산동 이권 회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관 구역에 도착했으나 군경에 의해 저지되었고, 결국 몇 명의 학생 대표들만이 각국의 공사관에게 진정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흥분한 학생들은 21개조 요구 당시 외교차장이었던 매국노 차오루린(曹汝霖)을 응징하러 가자고 외쳤고, 학생들은 그의 집으로 몰려가 집을 불태웠으며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학

131) 이춘식, 앞의 책, 539쪽.

132) 동교민항(東交民港)은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베이징에 설치된 각국 공사관 구역으로 이곳에는 공사관을 호위하는 외국 병영들이 집합해 있고, 중국인의 거주는 금지되어 있었다.

생이 체포됐다.[133)]

그러나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지게 되었다. 이튿날 베이징의 전문대학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국에 알려 다음날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담하였다. 5월 7일은 텐진, 26일에는 상하이의 학생들까지 수업거부에 돌입하며 이에 동참하는 등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6월 3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무산계급 투쟁으로 변화하기도 했는데, 상해의 공장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곧이어 다른 지역의 노동자와 상인들도 파업을 하고 시위에 나섰다.[134)] 베이징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포 학생을 석방했다. 그리고 차오루린을 파면하고 파리강화조약의 인준을 거부하게 되었다.[135)]

5・4운동은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청년 지식층이 선봉에 서서 일으킨 구국정치운동이었다. 그러나 곧 중국의 노동자와 상인 등의 무산계급과 도시의 소상공인, 또한 민족자본가계급까지 동참하며 연합체계를 구성하여 일종의 혁명대오를 형성했다. 이렇게 광범위한 계층이 동참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5・4운동은 자산계급의 민주혁명이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이 발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1) 5・4 운동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5・4 운동의 서술 내용에 관한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33) 쑨톄, 이희진(역), 앞의 책, 614~615쪽.
134) 佐伯有一, 野村浩一 외, 吳相勳(역), 『中國現代史』, 한길사, 1988(3쇄), 284~285쪽.
135) 이춘식, 앞의 책, 540쪽.

<표 26> 5·4 운동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6, 미래엔: 7, 비상: 5, 천재: 5	금성: 17, 미래엔: 10, 비상: 4, 천재: 4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5, 금성: 4, 비상: 4, 천재: 5	교학사: 7, 비상: 6, 천재: 4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7, 금성: 8, 더텍스트: 6, 천재: 서술 없음	교학사: 8, 천재: 8
제7차 (1997~2007)	교학사: 3	--
제6차 (1992~1997)	금성: 8	--
제5차 (1987~1992)	지학사: 9	--
제4차 (1982~1987)	보진재: 6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5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9	--
제1차 (1954~1963)	일조각: 6	--

〈표 26〉에서 보듯이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 출판된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 가운데 2007(2009) 개정 시기의 교학사에서 출판된 〈세계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에서는 5·4 운동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분량은 큰 차이가 없다.

(2) 5·4 운동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

시아사> 교과서에서 5·4 운동에 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7> 5·4 운동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86쪽)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은 독일 세력권이던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점령하고, 위안스카이 정부에 일본의 권익을 보장받으며 '21개조'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러한 이권의 반환과 '21개조'의 취소가 수용되지 않고, 일본에 이권이 양도되는 것을 알게 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도시의 상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였다(5·4 운동, 1919).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7쪽) 제1차 세계 대전 후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반도의 이권 회수를 요구한 중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919년 베이징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5·4운동). 상인과 노동자가 가세하면서 시위는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 군벌 타도, 친일파 타도 등을 외쳤다. **결국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열강은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였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4쪽) 제1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은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였다.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나 전후 열린 파리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자, 베이징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반일본·반군벌 시위를 일으켰다. 여기에 노동자와 상인들이 참여하여 시위가 거국적인 항일 구국 운동으로 확산되었다(1919).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5쪽) **신해혁명 이후** …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중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중국에 강요한 21개조 요구의 취소와 산둥 반도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의 3·1운동 등에 영향을 받은 베이징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반군벌·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54쪽) 전후에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1919~1920)에서 중국 정부는 21개조 요구가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의 주권은 인정하였으나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도 인정하

			였다. 이에 반발하여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155쪽)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 산둥 권익 반환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베이징의 대학생들은 조약 조인 거부와 매국노 처벌 등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결국 중국 대표단은 강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중국 민중이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해 이를 자신의 힘으로 달성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중국은 5·4 운동을 거치면서 국민 의식이 형성되어 대중들 사이에 국민국가 수립의 열망이 생겨났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4쪽)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 지방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또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다. 이에 베이징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145쪽) 베이징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고, 상인과 노동자 등도 가담하였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중이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을 몰아내자.’ 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제•반봉건의 이념을 내세운 사건이었다.**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38쪽) 이즈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의 이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과 21개조 요구의 철회를 촉구하는 5·4 운동이 전개되었다(1919).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결국 군벌 정부는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2쪽) 1919년 5·4 운동이 일러났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반도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베이징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군벌·반일 시위를 벌였다. 상인과 노동자 등이 가담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에 굴복한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60쪽) 제1차 세계 대전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둥 반도의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자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학생들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많은 상인,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위는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 군벌 타도, 친일파 타도를 외쳤다(5•4 운동). **결국, 중국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

			부하였으며, 열강은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91쪽) 1915년에는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하였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1919)의 결과 독일이 중국의 산둥 성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이에 베이징 대학생들 주도로 대규모 반일·반군벌 시위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5·4 운동).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56쪽)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은 산둥 반도의 칭다오를 공격하고, 각종 권익을 획득하고자 중국 정부에 21개조를 요구하였다. 열강과 베이징 군벌 정부의 인정으로 일본의 침탈이 묵인되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5•4 운동이 일어났다(1919).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98쪽) 신문화 운동이 한창이던 중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승리의 대가로 중국 내 독일의 각종 이권을 일본에 양보한다는 내용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위안스카이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조약이 연합국의 승인을 받게 되자 베이징의 학생 대표들이 일본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학생,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반군벌·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5·4 운동, 1919).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72쪽)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의 철폐와 산둥 반도의 반환 요구를 열강이 거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은 톈안먼 앞에 모여 '밖으로는 주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을 제거'하자고 외쳤다. **5·4 운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이었다. 3·1 운동과 5·4 운동은 실천적 지식인이 민중과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 식민지 민중이 계급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였을 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9쪽) 중국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열강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과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취소하고 산둥 반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인 사이에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었고, 베이징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 모여 시위를 일으키자(5·4 운동) 상인과 노동자 등도 가담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놀란 중국 군벌 정부는 민중에게 굴복하여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3·1 운동, 5·4 운동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 운동이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많은 민중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을 정치 기구가 구성되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87쪽) 청년층이 크게 호응한 이 운동(신문화 운동)의 열기는 54운동으로 이어졌다. 1919년에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베이징의 대학생 3,000여 명은 5월 4일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자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5・4운동).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53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이 중국의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일본에게 양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베이징의 학생들은 1919년 5월 4일 톈안먼 광장에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노동자와 상인들까지 합세하여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5・4 운동이라 한다. 중국은 5・4 운동 이후 국민 의식이 형성되면서 민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올리게 되었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301쪽)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 강화 회의(1919)에서 중국 대표는 일본이 제출한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취소와 독일의 산둥 이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산둥 이권의 반환과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 친일 관료 파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놀란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으며, 열강은 중국 영토의 보전을 약속하였다. 5・4 운동은 이후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쑨 원은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였고, 천 두슈 등은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52쪽) (신문화 운동) 이런 가운데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중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하였던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취소와 산둥 반도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열강이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자, 베이징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1919).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반군벌・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없음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173쪽)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의 철폐와 산둥 반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중국의 주장을 열강이 거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들은 톈안먼 앞에 모여 ‘밖으로는 주권을 쟁취’ 하고 ‘안으로는 국적을 제거’ 하자고 주장하였다. 5・4 운동은 중국에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동시에 제기한 첫 사건이었다. … 5・4 운동**은 실천적 지식인이 민중과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 식민지 민중이 계급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였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200쪽)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표단이 중국에 반환되기를 기대했던 산둥의 독일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 오자, 베이징의 대학생 3000여 명이 5월 4일에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자 학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베이징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파리 강화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발전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중의 힘에 주목하여 중국 국민당이 만들어지고(1919),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면서 반제 민족주의가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

5·4 운동에 관한 교과서 서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량에서 큰 차이가 없고, <표 27>에서 보듯이 서술된 내용면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과서 서술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목적한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철회와 산둥반도 이권 반환이 거절당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분노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먼저 대규모 항의 시위를 시작하자, 청년 학생층 이외의 노동자와 상인들까지 시위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별 분량 차이로 인해 내용이 매우 간략하거나 조금 더 상세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표 27>의 교과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규모 항의 시위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5·4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군벌 정부가 베르사이유 조약에 조인을 거부하게 된 사실을 서술한 교과서는 2015 개정 시기의 미래엔 <세계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1 개정 시기의 교학사 <세계사>,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 금성출판사 <세계사>, 천재교육, 교학사의 <동아시아사>가 있다.

그리고 몇몇의 교과서는 5·4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다. 2015 개정 시기의 금성출판사,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1 개정 시기

의 교학사, 비상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시기 교학사, 금성출판사 <세계사>, 천재교육, 교학사의 <동아시아사>가 이에 해당된다. 5·4 운동의 의의에 대한 서술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아도 교과서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5·4 운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이었다. 3·1 운동과 5·4 운동은 실천적 지식인이 민중과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 식민지 민중이 계급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였을 때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136]

> 3·1 운동, 5·4 운동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 운동이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많은 민중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을 정치 기구가 구성되었다.[137]

> 5·4 운동은 이후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쑨 원은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였고, 천 두슈 등은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다.[138]

> 5·4 운동은 실천적 지식인이 민중과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 식민지 민중이 계급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였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139]

> 5·4 운동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발전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중의 힘에 주목하여 중국 국민당이 만들어지고 (1919),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면서 반제 민족주의가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140]

---

136)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8, 172쪽.
137)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 189쪽.
138)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2, 301쪽.
139)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173쪽.

이와 같이 5·4운동의 의의를 다양하게 보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역사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후에 전개될 2가지 성격의 중국혁명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5·4 운동의 의의에 대한 서술 중에 3·1운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교과서 내용 중에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와 비상교육의 <동아시아사>에서는 3·1 운동과 5·4 운동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이라는 사실과 실천적 지식인이 민중과 결합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설명은 비슷한 설명이고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27>의 2015 개정 시기 천재교육의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은 "한국의 3·1운동 등에 영향을 받은 베이징의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술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보진재의 <세계사>의 "이 운동은 우리 나라의 3·1 독립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141] 와 제6차 시기의 금성출판사 <세계사>의 "5·4 운동은 한국의 3·1 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 [142]라는 서술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는 오랜 세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내 온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일수도 있지만, 이미 이러한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국 일부에서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5·4 운동은 한국의 3·1 운동과 상관없이 1915년 위안스카이의 황제복벽 시도 과정에서 일본이 요구한 21개조를 수용하면서 문제가

140)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2, 200쪽.
141) 『세계사』, 보진재, 1985, 258쪽.
142)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283쪽.

시작되었고, 파리강화회의에 승전국의 지위로 참석한 중국의 요구가 무참히 좌절되면서 일어난 대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시기적으로 3월 1일보다 2달 정도 늦은 5월 4일 날 발생하였다고 하여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서술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시기의 교과서와 한국의 일부에서 주장된 이러한 내용이 2015 개정 시기의 교과서에서 다시 서술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2007(2009) 개정 시기와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에서 출판된 <동아시아사>교과서의 표현 중에는 “식민지 민중이 계급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결하였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라는 같은 서술이 있다. 교과서의 서술 중에 중국을 ‘식민지’ 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이 두 권의 <동아시아사> 교과서 이외에는 없다.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첫째, 5·4 운동 시기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주권과 독립을 가진 나라였다. 이것은 중국이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때 엄연한 전승국의 지위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일부 영토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점령되긴 했지만, 여전히 독립된 국가로 식민종주국의 통치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부 영토가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식민지’로 인식하고 중국의 민중을 ‘식민지 민중’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고, 역사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4.3.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제2차 대전을 전후하여 중국이 겪은 두 차례의 큰 전쟁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중·일 전쟁은 아편전쟁 이래 중국을 침략한 외세에 대항하여 중화민족이 승리를 거둔 반침략·민족해방전쟁이었고, 국·공 내

전은 중·일 전쟁이 끝난 후 중국 재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이다.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서술된 중·일 전쟁과 국·공 내전에 대한 서술 분량과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4.3.1.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분석

5·4 운동 이후 광둥을 떠나 상하이로 온 쑨원은 1919년 10월 10일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편 5·4 운동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으로 1921년 7월 상하이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성립되었다.

코민테른과 접촉을 이어가던 쑨원은 1923년 1월 소련의 외교관인 요페(*Adolf Abramovich Ioffe*)와 만나 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한 끝에 1923년 1월 이른바 '쑨원-요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쑨원은 공산당 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 국민당에 입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중국 국민당 개조 선언'을 발표하여 당의 개조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1924년 1월 국민당은 광저우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대표 회의에서 공산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선언했고,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24명 중 리다자오 등 3명의 공산당원을 참가시켜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어 냈다.

1925년 쑨원 사후 국공합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1926년 3월 중산함 사건으로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6월 25일 국민혁명 총사령으로 임명된 장제스(蔣介石)는 7월 27일 북벌을 시작했다. 그러나 장제스의 명령으로 1927년 '4·12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공합작은 파기되었다. 장제스는 난징 국민정부를 개조하며 북벌을 진행하여

1928년 북벌을 완성했다. 그리고 난징국민정부는 훈정(訓政)을 실시하며 임시헌법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국민정부 내부는 극심한 파벌 갈등으로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였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3월 1일 만주국을 수립했지만 내부 투쟁에 말려든 장제스는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항하지 말 것을 명령한 후 이를 국제연맹에 위임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중국 공산당과 민중들은 자발적인 항일운동을 일으켰다. 한편 국제연맹은 리튼조사단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케 했고, 10월 1일 '리튼 보고서'에 의거하여 일본군의 만주 철수를 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33년 3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여 그들의 침략의지를 노골화했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조작하여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한편 북벌에 가담했던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張學良)은 1936년 12월 12일 장제스를 납치・감금한 후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울 것, 쑨원의 유지(遺志)를 이행할 것 등의 8개의 조건을 요구한 시안(西安) 사건을 일으켰다. 장제스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고 공산당 대표들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제2차 국공합작의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와중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즉시 제2차 합작을 이루었고 항일 통일 전선을 수립하였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공동으로 일본에 맞섰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12월 9일 충칭 국민정부는 정식으로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항일전을 이어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중국의 항일 전쟁도 승

리를 거두게 되었다.

(1)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중・일 전쟁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8>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2015~)	금성: 6, 미래엔: 4, 비상: 5, 천재: 6	금성: 13, 미래엔: 16, 비상: 9, 천재: 12
2011 개정 (2011~2015)	교학사: 5, 금성: 6, 비상: 9, 천재: 5	교학사: 19, 비상: 14, 천재: 14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4, 금성: 8, 더텍스트: 5, 천재: 7	교학사: 24, 천재: 17
제7차 (1997~2007)	교학사: 5	--
제6차 (1992~1997)	금성: 15	--
제5차 (1987~1992)	지학사: 25	--
제4차 (1982~1987)	보진재: 7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13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15	--
제1차 (1954~1963)	일조각: 16	--

<표 28>에 정리된 중・일 전쟁 관련 서술을 보면 2007(2009) 개정 이후 출판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에 비해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의 경우 시기마다 분량의 감소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차부터 7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중·일 전쟁 서술 분량의 차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문제의 변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1차부터 7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 중에는 5차 교육과정 시기 지학사에서 출판된 <세계사>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한일관계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방향에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등으로 인해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한일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1982년 일본은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판했다. 이에 한국 사회는 일본에 대한 성토로 들끓었고, 이러한 비난은 중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였다.[143]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과 항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총 공사비용 7백 46억 중 6백 83억여 원을 성금으로 모아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노가 팽배했던 1980년대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5차 교육과정 세계사에서 중·일 전쟁에 대한 서술은 ‘현대 세계의 시련’에서 다루는데, 1930년대 중엽부터 독일과 이탈리아 전체주의 국가들은 아시아의 전체주의 국가인 일본과 손을 잡고 팽창과 침략을 자행함으로써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서술하여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전체주의 대두의 배경을 살피도록 하였다.[144] 이러한 방향에서 아

143) 『동아일보』, 1982년 7월 7일, 「日本 개편 高校 교과서 「侵略역사」 美化」; 1982년 7월 9일, 「日本 高校교과서 檢定 말썽, “侵略역사 美化” 中共도 批判」.; 1982년 7월 15일, 「日 교과서 檢定 말썽 蘇도 “歷史왜곡” 非難」.

144) 문교부, 『고등학교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1988.

시아의 근현대사의 교육을 강조하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의 일부분인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분량은 다른 시기의 교육과정 교과서에서의 분량보다 많이 서술된 것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세계사의 학습을 통하여 각 나라와 민족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증진하기 위해 작은 국가에 관한 내용도 보충함으로써 중국사에 관한 서술 분량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일 전쟁의 내용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동아시아사>가 새로 신설된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중·일 전쟁에 대한 서술은 시기별 증감은 특별하지 않지만 <세계사> 와 <동아시아사> 과목별 차이만 확인된다.

(2)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현행 시기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중·일 전쟁에 대한 서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9> 중·일 전쟁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86쪽) 한편 만주 사변(1931)으로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켜(1937)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져 '내전 정지, 일치 항일' 의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항일 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9쪽) 만주 사변(1931) 이후 ... 일본의 중국 침략이 진전되는 가운데 내전을 중지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치 단결하여 항일 투쟁에 나서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시안 사건이 일어났다. 뒤이어 **중일 전쟁**(1937)이 발발하자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 다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제2차 국공합작) 항일 투쟁에 나섰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83쪽) **일본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에 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1931), 이듬해에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을 중시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요구가 거세어졌다. ... 이 사건(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 합작이 성사되어 중국은 항일 투쟁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였다. (185쪽) 일본은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다(난징 대학살).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95쪽) **일본은 전후 불경기에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겹치자**, 군국주의를 추구하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1931). 이후 일본은 팽창 정책을 강화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194쪽) 중국 공산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전을 전개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고, 결국 시안 사건과 중일 전쟁 발발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다시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항일 투쟁에 나섰다(1937).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59쪽)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여 난징을 점령하였다(1937).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30만 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는(**난징 대학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저항하였다. 일본군은 도로와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했으나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160쪽) (시안 사건)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고 함께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1937). … 중국 공산당은 일본군의 침입으로 중국 국민당군이 철수한 농촌 지역에 들어가 일본에 맞서 싸우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중국의 저항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8쪽)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1932). 국제 연맹은 만주를 점령한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점령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계속하였다. 1937년 일본은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수도인 난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특히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일본

			은 중국 각지에서 모든 것을 불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른바 **'삼광 작전'** 을 펼쳐 점령지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한편 중국 국민 정부는 항일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1937).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는 서로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일본의 중국 점령 지역이 확대되고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면서 중•일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비상 교육	동아시 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0쪽) 만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는 만주국을 수립하며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중국은 일본을 국제 연맹에 제소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군비 확장을 통한 대외 강경책을 추진하였다. ... 일본은 루거우차오 사건을 구실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일본은 전쟁 초기 난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였다. 이에 맞서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으며, 공산당과 제2차 국•공 합작을 통해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141쪽) 중•일 전쟁 초기에는 난징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으며(**난징 대학살**), 화북 지역에서는 삼광 작전을 벌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46쪽) 일본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의 주도로 만주를 장악하기 위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1931). 일본군은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국제 연맹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며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이후 중국 침략을 계속하여 중국 북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힘을 합쳐 일본군에 대항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937년에는 베이징 근처의 루거우차오에서 **중・일 양국 군대가 충돌**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총공격을 결정하고 전쟁을 일으켰다(중•일 전쟁). 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 합작을 결성하고 항일 전쟁에 나섰다. 일본은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수도인 난징마저 함락하였다. 이어서 우한,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철도망을 장악하자, 국민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항전을 계속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항일 전쟁이 이어졌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62쪽)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재벌과 군부 등 보수 세력이 결집**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대외 침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일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으며,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과 독일은 소련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다음해 일본은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금성	세계사	2011 개정	(291쪽) 만주 사변(1931)으로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출판사		교육과정	일본은 **중·일 전쟁**(1937)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 무렵 중국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가운데 '내전 정지, 일치 항일' 의 요구가 거세어졌다. 결국 시안 사건(1936)을 계기로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항일 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비상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56쪽) 시안 사건을 계기로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 다시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항일 투쟁에 나섰다(제2차 국•공 합작, 1937). (261쪽) 일본에서도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진 가운데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 전쟁을 추진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1931). ... 국제 연맹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자, 일본은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였다(1933). ...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방공 협정을 맺고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였다(1937).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천재 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98쪽)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상하이를 침략하는 등 중국 북서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대규모 항일 투쟁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안 사건을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손을 잡고 항일 운동을 펼쳤다(제2차 국·공 합작, 1937). 8년여에 걸친 전쟁을 통해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중국에서 일본군을 몰아냈다.
교학사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79쪽) 만주 침략으로 군국주의의 첫발을 내디딘 일본에서는 군부, 특히 육군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은 '국방 국가 건설' 이란 구호 아래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구역화한다는 국책을 세우고, 군비를 확장하였다. 일본은 1937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부터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국, 만주국과 경제 협력을 확고히 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처음 열강은 일본의 침략을 방관하였다. 영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미국도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집중하고 있던 소련은 일본과의 충돌을 회피하였다. 개전 초기 일본군은 승승장구하였다. 도로와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침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제2차 국·공 합작을 체결하였다. 대장정을 마친 공산당은 화베이와 화중 지역의 항일 근거지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본은 '불태우고 죽이며 약탈하는' **삼광 작**

			전을 벌였다. 국민당은 중국의 서남 지역으로 계속 후퇴하였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받지 않아 충칭에 임시 수도를 두고 저항을 계속하였다. (180쪽) 중·일 전쟁은 일본군의 애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일본군은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점령하지 못하였고 소련군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94쪽) 일본은 ... 만주 사변을 일으켜(1931)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루거우차오 사건(1937)을 빌미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중·일 전쟁**)하였다. 이후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징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195쪽) 한편,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시안 사건을 계기로 내전 중단, 공동 항일 투쟁에 합의하여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고 미국과 영국의 군수 물자 지원을 받아 항전하였다. (196쪽) 중·일 전쟁 과정에서는 점령지의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삼광 작전**을 벌여 철저히 파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난징을 점령하기 위해 비행기와 대포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고,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난징 주변에 숨은 중국 군인들을 체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와 골목, 주택, 사원, 마을 등지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난징 대학살**)하였다. 1946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국제 전범 재판 결과 ‘일본군이 점령하고 처음 6주 동안 난징 및 주변에서 살해된 주민과 포로가 20만이 넘었다.” 라고 기록하였을 정도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194쪽) 1931년,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본격적인 중국 침략에 나섰다. 일본군은 관동군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 이에 국제 연맹은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며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점령 지역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1937년에 베이징 근처의 루거우차오에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이어 수도인 난징마저 함락시켰다. 이후 일본이 우한,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철도망을 장악하자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항전을 계속하였다. 또한, 공산당과의 제2차 국공합작(1937)을 통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미국과 영국도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자 단기간에 중국을 점령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197쪽) 일본군은 중•일 전쟁 초기에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 무고한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다. 또한, 화북 지역에서는 중국인의 저항을 막고자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물자를 약탈하여 철저히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2천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288쪽) 이미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1937년부터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

		교육 과정	자, 일본은 원유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302쪽)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전개되고,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자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하였다. 일본의 침략은 만주 사변(1931)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전면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1937).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수도 난징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와 도로망을 장악하였다. 이에 항일을 위한 민족 단결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안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항일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졌다. 항일 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58쪽) 일본 군부는 천황제 국가라는 정치적 구조의 한계와 세계 대공황의 여파에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이를 국제 연맹이 비난하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한 후 중국을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1937). (252쪽)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에 맞서 다시 합작을 하였다(제2차 국•공 합작, 1937).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51쪽) 공산당은 내전 중지와 항일 통일 전선 구축을 중국 인민에게 호소하였고, 결국 장 제스는 시안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과 다시 손을 잡고 통일 전선을 형성한 후 항일 투쟁에 나섰다. (254쪽) 군부는 군국주의를 표방하며 만주 사변을 통해 만주에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고 일본 본국의 실권을 잡았다. 국제 연맹이 영국의 리튼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자 일본은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군부의 팽창주의 정책 속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였다(1937).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68쪽)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다(만주사변). 국제 연맹은 일본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여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국제 고립을 자초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군비 확장과 대외 강경책을 추진하였다. (169쪽) 일본은 1937년 베이징과 상하이를 시작으로 만리장성 남쪽의 중국 본토를 침략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국, 만주국과 경제 협력을 확고히 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중국 국민당 군대의 저항이 계속되자, 난징에 있던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였다(**난징 대학살**). …열강의 방관 속에 일본군은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광활한 대륙에서 중국인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므로 항복을 받아내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177쪽)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제2차 국・공 합작을 체결하였다. … 일본은 도로와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광활한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화북과 화중 지역에 건설해 둔 항일 근거지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저항으로 일본군의 침략 전쟁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었다. (178쪽) 미군은 1943년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하자 태평양을 계속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미 늪에 빠진 중국 전선에서 전력을 특별히 보강할 수 없었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1943년부터 반격을 개시하면서 일본군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즈음부터 중국에서의 항일 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였다.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자 중국 공산당의 군대도 일본군을 향해 파상 공격을 개시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191쪽) 일본의 침략은 만주사변(1931)으로 시작되었다.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은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인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으로의 침략을 계속하였다. 결국, 1937년에 베이징 근처의 루거우차오에서 중・일 양국 군대가 충돌하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192쪽)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하고 나서 수도를 점령하면 중국이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여 난징을 함락하였다. 이때 수십만 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다. 일본이 주요 도시와 도로망을 장악하자 국민당 정부는 오지인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며 항전을 계속하였다. 또한, 국민당과 공산당도 국공 합작을 통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미국과 영국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에 물자와 무기를 제공하며 항일 전쟁을 지원하였다. (202쪽) 이 무렵 강화된 일본의 침략은 항일 운동을 발전시켰다. 중국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는 국민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결국, 내전 정지・일치 항일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시안 사건(1936)을 계기로 제2차 국공 합작과 거국적 항전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본군의 공세로 국민당 군대가 철수한 농촌 지역에서 공백 상태를 메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었다. 이들은 농민을 잘 조직하여 일본에 맞서 싸우면서 상당한 지역과 세력을 확보하였다. 1945년 8월, 중국은 마침내 승리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2천만 명이상의 군・민 희생자를 낸 참담한 승리였다.

〈표 29〉에서 정리된 모든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일 전쟁에 대한 서술은 분량과 내용이 모두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대부분 소략한 편이고 서

술의 시작과 마지막 내용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2007(2009) 개정 시기 <세계사> 교과서는 시안사건부터 서술을 시작하여 중・일 전쟁의 발발로 마무리한 천재교육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만주사변부터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분량이 매우 짧지만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동남아시아 침략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술을 마쳤고, 금성 출판사와 더텍스트 교과서는 제2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무리 했다.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의 <세계사> 교과서는 일본의 대공항부터 서술하여 중・일 전쟁 발발로 마무리했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만주사변부터 시안사건, 국・공 합작까지의 흐름과 중국 공산당이 농민의 지지를 얻어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실력을 확보한 것으로 마무리 했다. 비상교육 교과서도 시안사건부터 서술하여 난징대학살까지 서술했고, 천재교육 교과서는 만주국부터 국・공합작과 이후 8년간의 전쟁 이후 중국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것으로 서술을 마쳤다. 2015 개정 시기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의 <세계사>는 만주사변, 비상교육과 천재교육 <세계사>는 일본의 경제 위기부터 서술을 시작하였고, 마무리는 모두 국・공 합작으로 마쳤다.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동아시아사> 과목이 분리되면서 <세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지역 관련 서술은 그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로인해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흐름만 정리되어 있지만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는 2011 개정과 2015 개정 시기 <세계사> 교과서에 일본의 만행인 난징대학살에 대해 서술하기도 했다.

<세계사> 교과서와 달리 2007(2009) 개정 시기 이후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중・일 전쟁 서술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고 내용도 풍부한 편으로 모두 만주사변부터 시작하였지만 마무리는 시기별로 차이가 보인다. 2007(2009) 개정 시기의 교학사와 천재 교육의 <동아시아사>는 모두 1945

년 8월 종전 시기까지 서술했고, 2011 개정 시기 교과서에서는 장기화 된 전쟁의 양상이나 일본군의 만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를 서술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 2015 개정 시기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도 대부분 장기화된 중·일 전쟁의 양상에 대한 서술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일 전쟁에 대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에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서술은 2015 개정 시기 천재교육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에서 서술했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난징 대학살에 관해 서술했고, 그 이후 일본군이 공산당군의 근거지인 화베이 지역 등지에서 항일세력을 없애기 위해 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삼광작전(三光作戰)에 관해 설명한 경우도 있다.

또한 만주사변 직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합작이 가능하게 했던 시안사건에 대한 서술은 2007(2009) 개정 시기 천재교육, 2011 개정 시기 비상교육, 2015 개정 시기 금성출판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만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없다. 하지만 이 시안사건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서술된 경우가 더 많다.

4.3.2.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분석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다. 중국은 8년간에 걸친 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전쟁 종식 이전부터 다시 시작된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으로 새로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쟁이 끝난 이후 국가 체제와 재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매우 컸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접수하

는 문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종전 직후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국・공 사이의 화평을 위해 장제스는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세 번이나 전보를 보내 협상을 제의했고, 1945년 8월 29일부터 40여 일 동안 충칭(重慶)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10월 10일에 '내전을 회피하고 평화적 건국을 지향하며, 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후 애매모호한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건국방안과 국민대회를 소집한다는 원칙만 합의하고 결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날의 협정을 '쌍십(雙十) 협정'이라고 부른다.[145]

이후 국・공 양측은 몇 차례의 협의를 통해 1946년 1월 10일 미국의 마셜 장군, 국민당의 장췬(張群)과 공산당의 저우언라이(周恩來)로 구성된 '군사 3인위원회'가 상호협의 하에 국・공 정전협정(停戰協定)'에 조인하였고, 이날부터 31일까지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통일정부 수립, 국민대회 개최, 군제(軍制) 개혁, 화평건국강령(和平建國綱領), 군사문제안, 헌법초안 등 '5대 결의'를 채택하고 가결하였다.[146] 그러나 이 시기에도 화북과 동북지역에서는 공산당군과 국민당군 사이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불안정한 국・공 양측의 합의는 1946년 6월 장제스의 전면적인 공격명령으로 인해 파기되었고, 중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국민당군과 달리 공산당군은 일본군으로부터 탈취한 구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열세에 있었다. 내전 초기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한 국민당군은 먼저 모든 전선에서의 도시와 진을 점령하고 장강 이북의 주요 교통과 철도를 통하여 공산당의 해

145) 이춘식, 앞의 책, 577쪽.
146) 위와 같음.

방 구역에 진입하여 농촌까지 점령해 나갔다.

1946년 7월에 인민해방군으로 개명한 공산당군은 전면전을 피하고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면서 도시지역이나 해방구를 포기하고 농촌으로 후퇴하여 농촌지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당군의 병력을 분산시켰다.

1947년 5월 이후 동북지역에서부터 공산당군은 반격을 시작했다. 병참선이 길어지고 고립 분산된 국민당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48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있었던 ‘랴오선(遼瀋)전투’, ‘화이하이(淮海)전투’, ‘핑진(平津)전투’는 국·공 내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3대 전투였다. 1948년 9월부터 11월 2일까지 동북야전군을 지휘하던 린비아오(林彪)는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을 중심으로 주요도시를 공격, 점령하였다. 52일간의 이 전투에서 국민당군 47만을 섬멸하고 동북지방의 기반을 굳혔다(랴오선 전투). 천이(陳毅)가 이끄는 화동 야전군은 산둥성(山東省)에서 국민당의 마지막 보루였던 지난(濟南)을 장악하였는데, 11월 6일부터 다음해 1월 10일까지 덩샤오핑이 지휘하는 중원 야전군과 화동 야전군이 합세하여 교통의 요지였던 쉬저우(徐州)를 공략하여 55만의 국민당군을 패퇴시켰다(화이하이 전투). 그리고 랴오선 전투에서 패한 국민당군 52만이 베이징과 톈진을 방위선으로 구축하며 저항하자, 동북 야전군과 화북 야전군이 11월 29일부터 진격하여, 12월 24일 양자거우(楊家溝)를 점령하였고, 이듬해 1월 4일에는 톈진을, 그리고 1월 31일에 마침내 베이징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핑진 전투).[147]

공산당은 이러한 전투를 통해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1년여만에 공세적 입장이 되었지만, 국민당은 미국의 정치적 지지와 함께 대규모의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분열과 부패, 무능 등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정치적 실패와 군사

147) 쑨톈, 이희진(역), 앞의 책, 690~694쪽.

적 후퇴를 거듭하였다. 공산당 군대는 이미 국민정부의 소재지 남경에 접근하였다.

한편 장제스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서구 열강에게 원조를 호소하고 공산당에게 화의를 제의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은 이를 외면했고, 공산당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제스는 결국 1949년 1월 21일 총통직에서 물러났고, 리쭝런(李宗仁)이 총통대리로 취임하면서 다시 공산당에게 화의를 제의했다. 이에 난징 진입을 준비하던 공산당은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국공평화협정 8개조'를 제시하였다.148)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된 국・공 평화협상은 4월 20일 국민당이 정식으로 이를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1일 인민해방군 주더(周德) 총사령관은 전군에 대하여 난징과 상하이로의 진격을 명령했다.

1949년 4월 24일 인민해방군은 난징에 입성했고, 5월 27일 상하이를 점령했다. 인민해방군은 퇴각하며 저항하는 국민당군을 추격하고 중국 곳곳을 평정하였다. 공산당 측이 빠른 속도로 중국대륙을 장악해 나가자 마오쩌둥은 1949년 9월 중국인민 정치협상 회의를 소집한 후, 1949년 10월 1일 30만의 군중이 운집한 텐안먼 광장에서 베이징을 수도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했다.

한편, 12월말까지 인민해방군은 저항하는 90만 국민당군을 추격하였는데, 마침내 12월 7일 국민당군 50만이 타이완(臺灣)으로 도피를 시작했고 나머지 40여만이 공산당 측에 투항하면서 국・공 내전이 종결되었다.

(1)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현황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

148)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3』, 청아출판사, 2009(초판 5쇄), 626~627쪽.

국·공 내전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0〉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분량

*단위: 줄 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2015개정 (2015~)	금성: 4, 미래엔: 5, 비상: 4, 천재: 2	금성: 6, 미래엔: 19, 비상: 13, 천재: 15
2011개정 (2011~2015)	교학사: 6, 금성: 4, 비상: 8, 천재: 4	교학사: 27, 비상: 12, 천재: 12
2007(2009) 개정 (2007~2011)	교학사: 6, 금성: 9, 더텍스트: 2, 천재: 3	교학사: 24, 천재: 19
제7차 (1997~2007)	교학사: 4	--
제6차 (1992~1997)	금성: 12	--
제5차 (1987~1992)	지학사: 6	--
제4차 (1982~1987)	보진재: 9	--
제3차 (1974~198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7	--
제2차 (1963~1974)	을유문화사: 15	--
제1차 (1954~1963)	일조각: 14	--

〈표 30〉에서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서술된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한 분량을 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시기까지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시기별로 서술 분량의 증감이 심한 편이고,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의 교과서는 〈동아시아사〉의 서술 분량이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서술 분량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교육과정 시기의 분량 감소와 6차 교육과정 시기의 분량 증가의 원인은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의 변동과 한·중 관계의 변화로 인해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의 서술 분량의 증감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1970년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쟁은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등장한 후, 60년대에 체계화작업을 거친 '주체사상'을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명문화 하였다. 이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아들 김정일의 승계체제를 사상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일이었다.[149)]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1인 체제로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남한의 대통령 박정희는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3선에 성공한 후, 1972년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독재체제를 확립했다.[150)] 이후 한국 사회는 박정희 유신체재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대치 상황에 있는 북한과의 긴장과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권력을 지켜나갔다.

이렇듯 3차 교육과정 시기는 한국과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상황과 이를 이용한 남·북한 관계의 긴장이 유지되던 시기였고, 남한의 경우 반공이데올로기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로 인해 공산당이 승리를 거둔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대한 서술은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관계가 정상화되고,[151)] 미·소 몰타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이 선언된 후,[152)] 1990년 9월 한·소 수교가 수립되면서[153)] 한·중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

149) 주체사상에 관해서는 '양재인,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북한의 정치이념:주체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참조.
150) 『경향신문』, 1972년 12월 27일, 「維新憲法도 公布」.
151) 『한겨레』, 1989년 5월 17일, 「중국-소련 관계 전면정상화」.
152) 『동아일보』, 1989년 12월 2일, 「美蘇 몰타頂上회담 시작」.
153) 『동아일보』, 1990년 9월 17일, 「韓蘇외무회담때 「修交」발표」.

루고 있었고, 폭넓은 국제관계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먼저 무역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은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으로 6개항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정식 수교국이 되었다.[154]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6차 교육과정 시기 <세계사> 교과서에서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한 서술 분량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한 서술 내용 분석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 발행된 고등학교 <세계사>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표 31>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관한 서술

출판사	교과목	차수	서술 내용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86쪽) 항일 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06쪽 국・공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키고(1949),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였다.
미래엔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95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에 일어난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49). 마오쩌둥은 은행과 각종 기업의 국유화, 농업과 상공업의 집단화, 토지 개혁 등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154) 『동아일보』, 1992년 8월 24일, 「韓中修交와 臺灣斷交」.

비상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95쪽) 중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토지 개혁을 주장한 공산당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 정부에 승리하였다. 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밀려났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210쪽)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은 토지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은행과 각종 기업을 국유화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1949).
금성 출판사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4쪽) 중국에서는 일본의 항복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국·공 내전이 본격화하였다(1946). 공산당은 국민의 지지와 소련의 지원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정부를 수립하였고, 이후 양안 관계가 형성되었다.
미래엔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2쪽)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협력하여 일본과 싸웠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립하였다. 내전 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 지도부가 평화 교섭을 벌였다. 미국은 평화 교섭을 중재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였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국민당군은 1947년 공산당 본부가 있던 옌안을 점령하고, 만주•화북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통화가 남발되어 물가가 폭등하였다. 게다가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해 점차 민심을 잃어 갔다. 반면에 공산당은 점령지에서 친일•악질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시행하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소련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받아 공산당군의 화력을 강화하였다. 1947년 중반 총반격에 나선 공산당군은 1949년 초 베이징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는 등 중국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마침내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10.1).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66쪽)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제2차 국·공 합작을 체결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나, 일본이 패망한 이후 다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양당의 평화 협상을 주선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1946년 7월부터 국•공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내전 초기에는 국민당이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만주와 화북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등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갔다. 그러나 공산당이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낸 반면, 국민당은 관료들

			의 부정부패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점차 민심을 잃었다. 공산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유격전을 펼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1947년 이후에는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1949년 10월, 공산당은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국민당 정부를 재조직하였다.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주변 지역으로 공산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 및 경제 봉쇄 정책을 펼쳤다.
천재교육	동아시아사	2015 개정 교육과정	(175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은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충돌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놓고 대립한 국제 질서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충돌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내전에 돌입하였다(국•공 내전, 1946. 7).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공산당의 근거지인 옌안을 포함하여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공산당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공산당군은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 마침내 공산당이 중국 본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 10.).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을 취하고 일본의 반공 기지 역할을 강화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72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간에 내전이 벌어졌다. 국민당은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 재정 파탄 등으로 중국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공산당은 점령지에서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미국의 지원까지 받았던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하여 타이완으로 옮겨 갔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고, 은행과 기업 국유화, 농업과 상공업 집단화 등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금성출판사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91쪽) 항일 전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307쪽 국•공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키고(1949), 토지 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였다.
비상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72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은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은 공산당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대적

			인 공세를 펼쳤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에 맞서는 한편, 토지 개혁과 사회 개혁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결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하여 타이완으로 건너갔고, 마오쩌둥은 톈안먼 광장에서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 10.). 그리고 기업의 국유화, 농업과 상공업의 집단화 추진 등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천재교육	세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98쪽) (중・일)전쟁 과정에서 공산당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 지역을 확대하였다. 일본군 항복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 그리고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겼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01쪽)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바랐던 미국이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의 타협을 주선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내전을 피할 수 없었다(국•공 내전). 미국은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 정부에 막대한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였다. 소련 또한 국민당 정부로부터 만주의 이권을 보장받으면서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만주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와 군수품을 공산당에 지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내전 초기에는 국민당 정부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산당의 근거지를 점령하는 등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원조 자금과 물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몇몇 가문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물가가 폭동하고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국민당 정부의 통치력은 약화되었다. 국민당 정부가 반공을 명분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면, 공산당은 항일전을 통해 얻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 1947년 새로운 점령지 등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8년 중도 세력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202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여 남녀평등과 경제 부흥, 토지 개혁 등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처리 구상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주변 지역으로 공산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포위 전략을 취하였다. …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1987년까지 일당 독재를 실시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부패를 추방하여 체제를 안정시켰다. 국민당 정부는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 정부로 활동

			하였다.
비상 교육	동아사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2쪽) 중국에서는 일본의 항복으로 국·공 합작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충돌 위기가 높아졌다. 이를 막기 위한 평화 협상이 충칭에서 열렸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국·공 내전은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국민당이 승리한 뒤 전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기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내전 초기에는 미국의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우수한 병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공산당 본부가 있는 옌안 지역까지 점령(1947)하였다. 그러나 내전 중 국민당이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로 점차 민심을 잃은 반면, 공산당은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공산당이 기동전과 유격전을 중심으로 전술을 재편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 공산당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 이에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정부를 수립하면서 두 개의 중국으로 분단되었다.
천재 교육	동아시 아사	2011 개정 교육과정	(221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하였다(국공 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을 물리치고자 힘을 합쳐 중·일 전쟁을 치렀으나,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막으려고 미국이 평화 협상을 중재하였으나 국공간의 충돌을 막는 데는 실패하였다. 결국, 1946년 7월, 국공 내전이 본격화하였다. 국공 내전 초기에는 군대와 장비 면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공산당의 근거지인 옌안을 시작으로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이 국민의 지지와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공산군은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을 약속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 1947년 이후 공산당이 총반격에 나서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10.).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236쪽)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장악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꾀하였다.
교학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307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은 전국적인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은 공산당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마오 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에 맞서는 한편, 토지 개혁과 사회 개혁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나갔다. 국민당 정부는 결국 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건너갔으며, 1949년 10월 마오 쩌둥

			은 톈안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금성 출판사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352쪽)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러나 전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갈등이 다시 표면에 떠올랐다. 장 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일본의 점령 지역을 회복하였지만, 내부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으로 도시 주민들의 큰 불만을 샀다. 그러나 마오 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점령 지역 안에서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점차 심화되던 양당의 대립은 국민당이 군사 공격을 개시하면서 내전으로 확대되었다(1946).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산당의 인민 해방군에게 패하여 타이완으로 밀려났다. 마침내 전국을 통일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
더텍스트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63쪽) 중국 본토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었으며(1949), 이듬해에는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천재 교육	세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65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 쩌둥은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 개혁을 시행하고, 각종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교학사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02쪽) 내전 초기 중국 국민당군은 중부 평원과 양쯔 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고 1947년 3월 옌안을 점령하는 등 전쟁을 주도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기동전과 유격전을 펼치며 산시성 일대로 이동하였다. 12월에 중국 공산당과 중도 세력이 빠진 상태에서 열린 국민 대회는 장 제스에게 폭넓은 권력을 부여하는 헌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국민당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본격화되어 중·미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중·미 원조 조약, 해군 조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중국 원조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중국 국민당은 반공을 명분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부패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또 원조 자금과 물자의 처리 과정에서 몇몇 가문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는 등 국민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중국 국민당의 통치력도 약화되어 갔다. (203쪽) 이에 반해 내전 초기 열세였던 중국 공산당은 대중적 기반을 넓히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1947년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고, 1948년에는 중도 세력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의 결과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공 내전

			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장 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옮겨 갔다. 이에 따라 타이완 주민과 이주해 온 세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는 개혁과 부패 추방을 통해 통치 체제를 안정시켰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은 중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반공 진영을 구축하려 했던 미국의 전후 구상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였다.**
천재 교육	동아시아사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	(230쪽) 중국에서는 일본 패망 직후 장 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공산당과의 연합 정부 건립이 무산되면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 결과 공산당은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234쪽)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충돌하는 국공 내전이 일어났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자 힘을 합쳐 중·일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충돌 위기가 높아졌고, 이를 막으려고 평화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1946년 7월, 국공 간에 전쟁이 본격화하였다. 처음에는 군대와 장비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여 공산당의 근거지인 옌안을 시작으로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중국 인민 해방군이 반격에 나서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인민 해방군은 주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을 약속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특히, 만주에서는 소련의 무기를 넘겨받는 등의 지원으로 세력을 빠르게 넓혀 갔다. 반면에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특히 도시에서 민심을 잃었다. 1947년 이후 공산당이 총반격에 나서 중국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235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은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랐다. 그래서 무기와 재정을 지원했지만 국민당의 부패와 무능으로 효과가 없었다. 한편, 소련은 국민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협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을 후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9년 초까지도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에 중심을 둔 대 중국 정책을 실행하였다.

<표 31>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2015 개정 시기까지 발행된 모든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 관한 내용은 매우 간략하다. 그나마 2011 개정 시기까지의

<세계사>는 약간의 서술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2015 개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공 내전이 발발하고,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서술만 나열되어 있다. 이는 앞서 계속 언급한대로 2015 개정부터 세계사 과목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요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2009) 개정 시기의 교학사와 천재교육의 <동아시아사>에서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한 서술 분량은 <표 31>에서 정리된 모든 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편으로 국・공 내전의 전개과정, 소련과 미국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에 미친 영향과 역할, 국민당의 부패, 공산당의 민심 획득,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타이완으로 옮겨간 국민당 정부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특히 국민당의 부패에 대한 서술 비중이 많은 편이고,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타이완으로 간 국민당 세력이 타이완의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내용을 서술했고, 천재교육 교과서는 국민당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협조하면서도 공산당을 지원했던 소련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두 교과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전후 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2011 개정 시기 교학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도 소련의 이중적 태도와 미국과 소련의 전후 정책의 실패를 서술하였다. 또한 타이완으로 이동한 국민당 정부가 1987년까지 일당 독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까지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활동하였다는 내용도 서술했다.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한 서술내용의 변화는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술내용과 표현이 변화한 시기는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부터이다.

1차부터 4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교과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술과 표현이 모두 부정적인데, 특히 1차 교육과정 시기의 일조각과 2차 교육과정 시기의 을유문화사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서술은 더욱 그렇다. 두 교과서에서는 내전의 발발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국민당 정부의 부패에 틈을 타 세력을 얻어’, ‘전후의 혼란을 틈타서 내전을 일으켰다’, ‘이 틈을 탄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고 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산당의 전투를 부당하고 부정한 행동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의 수복, 탈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2차 교육과정 시기 을유문화사 교과서에서는 “아시아 대륙의 한복판에 거대한 공산 국가가 출현한 것은 자유 진영의 큰 손실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어 당시 박정희 정부의 반공교육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서술에서 2차 대전 후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된 중국, 즉 국민당 정권의 관리들이 부패하여 사회가 불안한 사이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여 국·공 내전을 일으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갔다고 짧게 서술했다.

4차 교육과정 시기 보진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국·공 내전 중 공산당의 수도 연안을 점령하여 유리한 상황에 있던 국민당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군이 반격하여 승리하게 되었다고 서술하면서 공산당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국민당의 실정(失政)과 더불어 공산당의 ‘교묘한 선전이 농민의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출판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나 서술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공 내전의 원인도 공산당군이 먼저 도발한 것으로 서술한 이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국민당 정부가 공산

당군과의 '대립을 표면화'시켜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내전의 원인에 국민당 정부쪽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당의 패퇴(敗退)에 대해서도 '부패와 부정에 시달렸던 국민 정부는 싸움에서 패하여 타이완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내용의 변화는 이 교과서의 발행된 1989년 이전의 한·중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 한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를 맺지는 않았지만 1883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민항기의 불시착 사건[155]으로 인해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156] 한·중 양국의 대표들은 납치범과 중국인 승객들에 대한 처리를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상호간의 국호(國號)를 사용하는 문제로 오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최종합의문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는데[157] 이는 상대방 국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의미라서 양국 관계 발전에 매우 큰 의미였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1984년 친척 상호 교류가 허용되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관계가 크게 발전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인 6차 교육과정의 금성출판사의 <세계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서술에서 '공산당은 신민주주의와 토지 개혁을 제창하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총반격에 성공한 공산당은'이라고 서술하고, 타이완에 대해서도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동남 아시아의 선두 개발국으로 경제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중국과의 수교로 단교하게 된 타이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7차 교육과정 시기 교학사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 주제에 대한 서술 분량은 적은 편이지만,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대지

---

155) 『동아일보』, 1983년 5월 6일, 「中共여객기의 不時着」.
156) 『동아일보』, 1983년 5월 7일, 「中共대표파견경위 中共외무성 前例없이 즉각談話」.
157) 『동아일보』, 1983년 5월 10일, 「서울·北京이 새겨 넣은 歷史 兩國 覺書 교환의 波長」.

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봉건적인 구조를 타파하여 가부장적 사회를 없애고 여성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켰다.' 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하였다.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발행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앞에서 분석한 대로 국·공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관한 서술 내용에서 시각적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6·25 전쟁 이후 시작된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를 기준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세계사>와 2000년대 이후 세계사 과목에서 분리·신설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중국사에 관한 서술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 과정에서는 2007(2009)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교육과정별 각 1종씩을 선정한 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중국의 역사 서술은 분량과 내용, 시각적인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이 새롭게 정해지기 때문인데, 교육과정이 정해지는 배경은 한·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 국내의 정치·사회의 변화, 동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국제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신 정권의 정치이념과 교육 목표가 결정되었고, 이를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형성케 했다.

본고에서 선정하여 분석한 중국사 주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여 각각 3장과 4장에서 다뤘다. 3장의 전근대사 주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중국 통일과정과 통치, 송나라의 왕안석과 명나라의 장거정에 의해 주도된 정치·사회·경제의 변혁 시도와 결과, 그리고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과 성리학에 반발하여 등장한 양명학을 그 대상으로 했다.

4장의 근현대사 주제는 오랜 세월 중화사상에 젖어 있던 중국이 팽창하는 제국주의 열강과 부딪치며 처음으로 겪게 되는 시련인 아편 전쟁과 신축조약의 체결 원

인이 된 의화단 사건, 중국의 황제제를 전복시키고 공화제 정부를 세운 신해혁명,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인들의 의사가 묵살되자 베이징 지역의 청년 지식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5·4 운동, 대륙에 대한 침략을 꾀하던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후 1937년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탈한 중·일 전쟁,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중국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 이 벌인 국·공 내전, 그리고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한 서술을 분석했다.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시기별 교육과정이나 한국 국내외의 상황변화를 막론하고 모든 분석 대상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중국 근현대사에 관한 서술은 전근대사에 관한 서술과 비교하여 사건을 보는 시각과 내용, 표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는 전근대 시기의 중국의 역사보다 근현대 시기의 중국의 역사가 현재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기별 교육과정의 교과 개편에 따른 변화 중에 제7차 교육과정 시기는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작은 국가의 역사까지 포함되면서 중국사에 관한 서술 분량이 감소하였다. 교육과정에 따라 분량의 변화가 생긴 또 다른 시기는 1차 교육과정부터 〈세계사〉에 통합되어 있던 동아시아사 과목이 2007(2009) 개정 시기 신설되면서 분량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서술 분량이 2007(2009) 개정 시기부터 〈세계사〉에서는 매우 짧게 압축되고, 〈동아시아사〉에서 상세히 서술되며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2015 개정 시기의 분량 감소이다. 2015 개정 총론에서는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명시하였고, 일부 단원이 통합되면서 단원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전반적인 분량이 대폭 줄어들어 중국사의 분량도 감소하였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따른 서술 내용과 시각, 표현의 차이는 3차, 4차, 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서술의 변화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3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한국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는 세계적인 냉전 상황도 그렇지만 장기독재체제를 이어 온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의 주요한 정책이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서술은 부정적인 서술이 많은데, 특히 근현대사 서술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했던 중국에 대한 서술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시작해 5차 교육과정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 대한 표현에서 ‘공산 정권’, ‘중공 정권’, ‘공산주의 국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가 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국 공산 정권’, 6차 교육과정부터는 중국의 정식 국호인 ‘중화 인민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의 수습을 위한 양국 대표자들의 협상 과정에서 상호 정식 국호의 사용을 시작하면서 부터이고, 이후 시작된 교류와 냉전체제 종식, 그리고 양국 간의 정식 수교로 인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변화였다.

1998년 한·중 양국 간의 관계는 더한층 심화하고 발전되어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이는 한·중 양국 간의 협력의 긴밀도와 신임도가 한·중 수교 초기의 우호 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 정부, 한국 언론, 한국 학계는 중국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자 한국사회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대의 변화, 정권의 교체,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교과서 집필에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기별 교육과정 마다 출판된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사에 대한 서술이 변화되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를 통해 상호간의 적대적,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호적, 긍정적 시각으로 상대 국가의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과정・집필기준・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사회과 교육과정』, 200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사회과 교육과정』,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09.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2015.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7.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 201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사회과 교육과정』, 2007.

교과서

강택구 외 5인, 『세계사』, 더텍스트, 2012.

김덕수 외 7인, 『세계사』, 천재교육, 2012.

김덕수 외 7인, 『세계사』, 천재교육. 2018.

김덕수 외 8인, 『세계사』, 천재교육, 2018(초판 5쇄).

김상기, 민석홍, 『세계사』, 을유문화사, 1971.

김은숙 외 4인, 『세계사』, 교학사, 2003.

김태웅 외 6인, 『동아시아사』, 미래엔. 2018.

김형종 외 5인,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2.

김형종 외 5인,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8(초판 5쇄).

김형종 외 5인,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8.

손승철 외 6인,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8(초판 5쇄).

손승철 외 7인, 『동아시아사』, 교학사, 2012.
신채식, 양병우, 『세계사』, 보진재, 1985.
안병우 외 8인,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2.
안병우 외 8인,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8(초판 5쇄).
안병우 외 8인,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2019(초판 2쇄).
오금성, 유경준, 『세계사』, 금성출판사, 1995.
이민호, 신승하, 『세계사』, 지학사, 1989.
이병인 외 6인,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9(초판 2쇄).
이병인 외 7인, 『세계사』, 비상교육. 2018.
조의설, 『(인문계 교등학교) 세계사』,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 1978.
조좌호, 『세계사』, 일조각, 1956.
조항욱 외 5인, 『세계사』, 비상교육, 2018(초판 5쇄).
최상훈 외 6인, 『세계사』, 교학사, 2019(초판 6쇄).
최상훈 외 7인, 『세계사』, 교학사, 2012.
최준채 외 5인, 『세계사』, 미래엔. 2018.
최현상 외 5인, 『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2018.
황진상 외 5인, 『동아시아사』, 비상교육, 2018(초판 5쇄).

단행본

교육부, 『교과서 편수 자료(Ⅰ) -편수 일반 편-』, 교육부, 2017.
김한종,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김흥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3』, 청아출판사, 2009(초판 5쇄).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Ⅱ - 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지식사업사, 2016.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Ⅲ - 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 지식사업사, 2018.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Ⅳ - 帝國秩序의 完成』, 지식사업사, 2018.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Ⅴ - 中華帝國의 動搖』, 지식사업사, 2016.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Ⅵ - 改革과 革命』, 지식사업사, 2015.
서울대학교동양사연구실, 『강좌 중국사 Ⅶ - 新秩序의 摸索』, 지식사업사, 2016.
쑨톄, 이희진(역), 『중국사 산책』, 일빛, 2011.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第一冊(1689-1901)』, 三聯書店, 1957.

이춘식, 『中國史 序說』, 교보문고, 1991.
錢穆, 『國史大綱』(下冊), 商務印書館, 2016.
정선영, 김한종, 양호환, 이영효,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19.
조성운,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 선인, 2019.

학위 논문

김상경, 『청의 서구문명 수용과 아편전쟁에 대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상훈, 『1945~1950년 역사 교수요목과 교과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선희, 『세계사 교과서의 청대사에 관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현정,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자료의 분석 중국 근대사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배성호, 『제7차 교육과정 3종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자료의 비교 분석 : 중국 고 · 중세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신향란, 『세계사・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제1・2차 아편전쟁에 대한 서술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심은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5.4운동 서술 분석』,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양 설,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 분석: 탈냉전 이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우민주,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삽화 자료의 분석 연구 : 중국사 부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윤상원, 『6・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 명청 시대를 중심 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윤소정, 『제7차 고등학교『세계사』교과서 '북방민족' 서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李敏卿, 『제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비교와 분석 : 中國 近代史 중심으로』,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6.
이병철, 『신청사이론'을 통한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승현, 『제 6.7차 교육과정『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비교 분석 중국 근현대사 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우정,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몽골제국사에 투영된중화적 시각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지모선,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논의 연구: 2007년 과목 신설부터 2015년 개정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최선희, 「教育課程 變遷에 따른 高等學校 世界史 敎科書 分析 : 中國 現代史 單元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학술 논문

박진동, 「교수요목기 중등 역사 검정 교과서의 발행 상황과 목록화」,『역사교육』151, 2019.
소경희,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의 변천과 최근의 개혁 동향」,『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28권 1호, 2019.
신유아, 「한국 역사교육과정의 변천과 근현대사의 비중」,『전북사학』제55호, 2019.
강수옥,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비친 중국 역사」, 『白山學報』, 제111호, 2018.
최재영, 「중・고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동양사 내용 체계분석-2011부분 개정 교육과정과 중국사 학습내용 요소를 중심으로-」,『歷史教育』 147, 2018.
김덕수,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개정 현황과 쟁점: 6차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까지」, 『歷史教育』141, 2017.
원지연, 「고등학교『세계사』・『동아시아사』교과서의 일본 근현대사 서술」, 『歷史教育』143, 2017.
지모선,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검토」, 『歷史教育』143, 2017.
최재영,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중국고중세사 서술- 역사 용어를 중심으로-」, 『歷史教育』 142, 2017.
이병인,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중국근현대사 서술 구조-2009교육과정과 교과서, 2015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142, 2017.
손준식, 「해방 후 세계사 교과서 중국근현대사 관련 서술 변천」, 『역사문화연구』 제60집, 2016.
강태현,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사회과교육』54권 1호, 2015.
김한종, 「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 23, 2015.

黃光国, 「“道”与“君子”：儒家的自我修养论」, 『华中师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53期（3）, 2014.
김지훈, 「『고등학교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중국사 서술」, 『史林』, 제46권, 2013.
송요후,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관련 서술의 변화」, 『역사와 교육』제16집, 2013.
이영옥, 「잠영(潛影)과 몰락(沒落)-한국사 교과서의 청나라 서술 분석-」,『명청사연구』 제39집, 2013.
박진동, 「교수요목에 의거한 이웃나라 역사 교과서의 발건과 구성」,『역사교육』106, 2008.
김창규,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근대 이전 중국사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중등교육연구』 53(1), 2005.
정하현, 「세계사 교과서에 있어서중국사의 위상과 서술방향」,『역사와 역사교육』 제9호, 2005.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사회과교육연구』12권 2호, 2005.
김창규, 「현행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중국 근현대사 서술체제와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제43권 4호, 2004.
이명희, 「신국가건설기 교육과정의 성격-사회생활과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88, 2003.
차경애, 「辛丑條約案을 둘러싼 열강간의 角逐」, 『이화사학연구』 20·21호, 1993
梁豪煥, 「韓國 『세계사』敎科書의 中國史敍述」, 『歷史教育』 54, 1993.
양재인,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북한의 정치이념:주체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인터넷 자료 및 언론

국사편찬위원회 : http://www.history.go.kr/, 접속일자: 2019.11.2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http://www.ncic.re.kr/, 접속일자: 2019.11.24.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http://www.textbook.ac/index.jsp, 접속일자: 2019.11.24.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中文摘要

韓國高中歷史教科書中關于中國史叙述的研究

－以《世界史》和《東亞史》教科書爲中心－

鐘蔓菁
韓國學科
一般大學院
祥明大學

韓國解放之后，韓國人爲了擺脫長達36年的日本殖民教育，在当時動蕩和混亂的社會环境中仍加緊對教育進行改革。1948年韓國政府成立之后，韓國政府主導下試圖推行的教育課程由于戰爭原因而暫時中斷，但休戰后又馬上着手重新制定新的教育課程。從1954年的第一次教育課程開始，中間經歷各种波折与起伏，到目前爲止，已經頒布和實施了2015修訂教育課程。

以每个不同時期的教育課程爲基准而編撰的歷史教科書能反映出國家的政策方向与意志，以及社會各界的主流意識。學生通過教科書不只能學習到自己國家的歷史，還可以了解到世界各國的歷史，幷從中形成看待歷史的視角。因此，如果綜合分析各時期教育課程的內容和各教育課程時期發行的教科書的內容的話，這有助于更好地了解和認識一个國家的國民歷史觀和其形成的過程及變化。

本論文主要圍繞6·25戰爭以后發行的韓國高中《世界史》教科書和2000年代后發行的新設科目《東亞史》教科書中關于中國史的叙述流向及叙述變化作分析。其中，分析對象中被選定的中國史主題分爲前近代史和近現代史兩大部分。前近代史部分包括元代·清代的中國統一過程和統治、宋代的王安石變法和

明代的張居正改革、程朱理學和陽明學等內容。而近現代史部分則包括鴉片戰爭和義和團運動、辛亥革命、5·4運動、中日戰爭、國共內戰、中華人民共和國的成立等主題。

關于中國史叙述分析的方面，主要結合第一次教育課程時期到現行的2015修訂教育課程時期的總論和分論、教科書的叙述內容、韓國的政治·社會·經濟的變化以及中韓關系的變化等方面的因素，對韓國高中生使用的《世界史》和《東亞史》教科書的內容變化和背景進行分析。

從6·25戰爭之后實行的第一次教育課程時期發行的教科書到中韓兩國正式建交的1992年前后實行的第六次教育課程時期的歷史教科書，与其之后推行的教育課程時期發行的教科書有明的因素角差异和叙述變化。

南北韓分裂固定化的李承晩政府和介入越南戰爭的朴正熙政府時期，是冷戰高潮時期，同時也是南北韓之間的体制競爭极爲激烈的時期。這段時期頒布的第一次教育課程到第三次教育課程時期的教科書中對于中國的叙述是非常的敵對和負面的。但以1983年發生的中國民航机被劫持事件爲契机，中國与韓國開始有所接觸和交流，這之后的第四次教育課程的教科書開始對中國的叙述稍微出現了微妙的視角變化。而從1992年中·韓兩國正式建交之后發行的第六次教育課程的教科書開始以及之后的《世界史》和《東亞史》教科書中對于中國史的叙述轉變爲正面且客觀。

本論文不只确認了韓國歷史教科書中關于中國史的叙述變化，還确認了的中·韓關系的變化過程。爲了推動和維持中韓兩國友好的關系的發展与交流，通過觀察這些變化的過程，我們可以再次思考一下中韓兩國政府和國民應該從什么樣的視角來看待彼此，并爲此能做出什么樣的努力。

關鍵詞:　教育課程，歷史教科書，中國史叙述，世界史教科書，東亞史教科書，歷史認識